

# 남 원 고 사

(1864-1869년)

## ○ 남원고사 권지일

턴하명산 오악지중에 형산이 높고 높다 당시절의 절문 중이 경문이 능통흐므로 농궁의 봉명흐고 석교상 느즌 봄바람의 팔선녀 희롱흔 죄로 환상인간흐여 출당입상타가 틱스당 도라들 제 뇨도절디드리 좌우의 버러시니 난양공주 영양공주 단치봉 가춘운 계섬월적경홍 심요연 빅능파와 슬커정 노니다가 산중일성의 즈든 꿈 씌거다 아마도 세상 명니와 비우희락이 이러흐가 흐노미라 청이 죠흔 남니상의 니화방초 고든 길의 청녀완보 드러가니 산여옥석층층닙의 만학군봉 쇼스 잇고 청스쥬분점점비의 빅도뉴천 기러 잇다 층암정슈절벽간의 저 골 쇠소리 종달시는 석양청풍 풀풀 날고 만학적요 김흔 골의 귀촉도 불여귀라 두견식 슬피 울고 무심흔 저 구름은 봉봉이 걸녀는디 빅당뉴스정요슈라 나무마다 열의엇고 식식이 붉은 쫓춘 골골마다 영롱하니 일군교도공제해라 가지가지 낭즈한다. 흥진청계불견인은 무릉도원이 어디메뇨 만학청암쇄모연을 낙이산중 니러흐가 벽도화 천년봄은 풍결주의 프르릿고 한가하다. 춘산계화점점홍의 붉어시니 방장 봉닉 어디메요 영쥬 삼산이 여기로다 요간부상삼빅척의 금계제파일륜홍은 지척일시 분명하다 오초는 어이흐여 동남으로 터져 잇고 건곤은 무삼 일노 일야의 썬 잇느니 강안의 춘롱하니 황금이 천편이오 누하의 풍기하니 빅설이 일장이라 창오모운월천춘의 잠연낙무 경도 죠타 무산십이 높흔 봉은 구름 밧기 쇼스 잇고 동정칠빅 너른 물은 하늘과 혼빋치라 망망평호 가는 빅는 범녀의 오호쥬오 평스십니 나는 식는 서왕모의 청도로다 강안비회초월오는 옥누청풍 물가마다 한가로히 안즈 잇고 산토황금진접잉은 청포세류 두던 우희 비거비릭 왕닉하니 원상한산석경스는 니적선의 일홍이오 쇼쇼낙목귀마슈는 빅낙천의 유취로다 즈미동남선아유는 날과 문져 노랏노라 이런 경기 다 본 후에 어디메로 가즈 말고 산은 첩첩 천봉이오 슈는 잔잔 벽계로다 기암층층 절벽간의 폭포청과 썬러지고 흥심일경 빗긴 길에 창송은 울울 벽도화 난만중의 쫓 속의 잠든 나뭇 즈최 쇼리의 펼펼 날고 노화홍요 적막흔 디 아희야 무릉이 어디메니 도원이 여기로다. 화간점무분분설의 류상 잉비편편금이라 동원도리편시춘은 어이 그리 슈히 가노 우양은 하산흐여 외양을 츠즈가고 속도는 죽지끼고 군비투럼흔고나 삼간초옥 적막흔 디 일편식문 다드두고 니화월빅 붉은 날의 두견성중 홀노 안즈 칠현금 빗기 안고 천니고인 싱각하니 산당슈원 먼나몬 디 안절어침 더욱설다 오동쥬야 붉은 달과 호접춘풍 긴긴 날의 산가춘적을 어부스로 화답흐고 일엽어션 홀니 저어 장장어스 긴 낙티로 낙조강노 빗겼는디 즈믹풍진 미친 괴별 산간어용 닌 몰너라 은닌옥척 썬노는디 야슈강턴 혼빋치라 거구세린 낙가닉니 송강노어 불얼쇼냐 십니샤장 내려가니 빅구비거 썬이로다 죽당망해 단표즈로 천니강산 드러가니 만학천봉 구름 속의 초옥식문 도라드러 금서쇼일흔 곳의 유쥬영쥬흔여세라 당가단적 두세 곡의 일빅일빅부 일빅라 퇴현옥산 취흔 후의 석두한팀 잠을 드러 학녀일성 썬다르니 계월삼경 썬이로다 고거스마 쫓이 업고 미쥬가효 홍이 난다 승단치지 노릭흐고 석전춘우 밧출 가니 당우턴지 이 아니며 갈턴민인 나 썬이라 등동고이 셔쇼흐고 립청류이 부시로다 남전곡식 밋 리 업고 운지고산 시비 업다 세상 영욕 다 바리고 물외강산 오며가며 일디계 산 적막흔 디 석조강어 썬이로다 범범창과 이닉 홍을 녹녹세인 제 닌 알니 천직 만직 억만직를 여츠여

츠 늙으리라

이 세상의 밋오 이상하고 신통하고 거룩하고 괴특하고 꺾려하고 땡냥하고 희한한 일이 잇겠다.

전라도 남원부스 니등스또 도입시의 즈제 니도령이 년광이 십늑세라 얼굴은 딘유즈오 풍치는 두목지라 문당은 니태빅이오 필법은 왕희지라 스또 스랑이 티과하여 도입 초의 칙방의 기싱 슈청 드리즈 하니 식의 상홀가 넘너하고 통인 슈청 너츠하니 용의 골가 넘너하여 관속의게 분부하되

칙방 의 만일 기싱 슈청을 드리거나 반반한 통인 슈청을 드리는 폐가 잇시면 너희를 잡으드려 뉴월도 싸를 쫓고 원호초를 박으면 웃고 죽으리라

이러듯 분부를 지엄극악키 하니 엇던 녀적의 아들놈이 슬쩍 암캉아지 하나하나 칙방 근처의 보너리오 칙방 슈청을 드리되 귀신 다 된 아희놈을 드리거다 상모를 녀넉히 쓰더 보니 티고리는 북통 굵고 얼굴은 밀미판 굵고 코는 어러죽은 초빙 줄기만하고 님은 귀가지 도라지고 눈구멍은 총구멍 갓하니 깃던지 마던지 이달의 울 일이 이시면 뉴월 초싱의 눈물이 뒹쳐다가 스므날정게 되 여야 낙누하고 엇던지 마던지 엇은 구멍에 탁쥬 두 푼어 치 부어도 잘 츠지 아니하고 몸집은 동덕문안 인정만하고 두 다리는 휘경원 정즈각 기동만하고 키는 팔척당신이오 발은 계요 기발만하디 종아리는 비상먹은 쥐다리 굵하니 바람부는 날이면 간드령간드령 하다가 된통 바람이 부는 날이면 각금 낙성하는 아희놈을 명식으로 슈청을 드리니 니도령이 칙방의 홀노 안즈 탄식하는 말이

세스를 숨숨 헤으리니 묘창히지일속이라 남기라도 은형목은 즈웅으로 마조 서고 물이라도 음양슈는 격을 츠즈 도라들고 식라도 원양조는 웅비즈중 나라들고 풀이라도 화반초는 스시장춘 마조 나고 돌이라도 망쥬석은 둘이 서서 마조 보고 원양지상냥냥비오 봉황 누하쌍쌍되라 날짐승도 빵이 잇고 길버러지도 짝이 잇고 현 고리도 짝이 잇고 현 집신도 짝이 잇네 나는 어인 팔지완디 어제밤도 식오잠 즈고 오날밤도 식오잠 즈고 밋양 장상 식오잠만 즈노 엇던 부모는 즈부 어더 아들 낫코 쌀을 나하 님장출가 시킨 후의 아들의 손즈 쌀의 손즈 안고 자고 지롱보고 엇던 부모는 쥬변이 업고 마련이 업고 된 데가 업서 다만 즈식 나 하나 두고 청춘 이십 당하도록 독숙공방 시기느고 츠마 설워 못 살깃다.

이러트시 탄식하며 시절을 도라보니 썩맛츰 삼춘이라. 초목군싱지물이 기유이즈락이라 썩갈남기 속넙 나고 노고질이 높히 썩다 건넌산의 아즈랑이 씨이고 잔썩잔썩 속넙 나고 달바조 썩썩 울고 삼년 묵은 말가죽은 외용죄용 쇼티하고 선동아 군복하고 거동츰네하라고 청지고리 신상토 썩고 동너 얼은 츠즈 보고 피양이 성적하고 식집가고 암씨 서답츠고 월후하고 너구리 넛손즈보고 독겅이 외손즈보고 다람이 용기치고 과부 기지키결 제 니도령의 밋음이 흥글항글하여 불승탕정이라

산천경기 보려하고 방즈 불너 분부하디

이 고을 구경쳐가 어디어디 유명하다

방즈 엇즈오되

무슴 경을 보려하오 히히점점정한스하니 육하한공슈원식라 괴득편만이별안하니 축조 인어격격해라 평스낙안경이오니 이를 구경하라 하오 히쥬미직스아동하니 히화인인결순풍을 너시호신능범웅하니 품범지거슈저동을 원포귀범경이오니 이를 구경하라 하오 품엽노 화슈국츰하니 일강풍우스편쥬를 청년고범무인도하니 단근창오원야슈라 쇼상야우경이오니 이를 구경하라 하오 반희초직삼경흔하니 만경츰광범소되라 호상의 슈취절적인가 벽연무 제안항괴라 동정츰월경이오니 이를 구경하라 하오 낙일관관함원슈하고 귀호인인상한종을

어인거입노화소호니 슈점취연만강청을 어촌낙도경이오니 이를 구경하라 호오 류저비공옥  
하지호니 가화낙지역다시라 일순초도강무주호니 관도스응권도시라 강턴모설경이오니 이  
를 구경하라 호오 막막평림취가련호니 누딘은초격나침을 하상권지풍취거오 한이왕가관식  
산을 산시청남경이오니 이를 구경하라 호오 일북단청전무지호니 슈향슈목등무릉을 부릉  
진필 응즉농이라 남스중잔북스중을 연스모중경이오니 이를 구경하라 호오 이슈문이 난진  
이라 동정호 가라 호오

동정호 칠빅니의 비가 업서 못 가리라

그리면 악양누 가라 호오

두즈미 글의 호여시되 친봉무일즈호고 노병유고주라 호니 악양누도 못 가리라

그리면 봉황디 가라 호오

봉황디상봉황유러니 봉거디공강즈류라 봉황디도 못 가리라

그리면 다 더지고 관동팔경 보라 호오

아서라 그도 슬타

방즈놈 엿즈오디

예로부터 니른 말이 경궁요디 조타 호되 성진호여 불 길 업고 위무데의 동작디와 슈  
양테의 십녹원도 즈 고비어디상이라 황학누 등왕각 고소성 한산스 함외당강공즈류라 고  
려국 명산은 금강산이오 기즈왕성은 묘향산이라 딴주는 축성누 함흥은 낙민누 평양 연광  
정 성천 강선누 밀양 영남누 창원 벽허누 희취 부용당 안주 벽상누 의주 통군정 영동구  
읍 호중스군 다 월적 더져두고 동부암 서진관 남삼막 북승기라 남한 북한 청계 관악 도  
봉 망월은 호거룡반세로 북극을 괴온 경이 거록다 호려니와 본읍의 광한누가 경기절승  
유명호와 시인소직드리 쇼강남의 비겨 잇고 풍뉴호스 칭찬호되 별 유턴지비인간으로 니  
르옵나이다.

어허 네 말 갓홀진디 절승경기 분명하다 아모커나 구경가즈

방즈놈 엿즈오디

아이에 이런 분부는 싱심도 마옵쇼셔 스또 분부 지엄호신 줄 변연이 알면서 싱스람  
끝나라고 구경가즈 호옵느릿가

니도령 니른 말이

우리 단두리 호는 일을 알 니가 뉘 잇스리오 스또 분부는 녀녀마라 너 다 슈쇄호마

공방 불너 포진하라 주모 불너 술 드리고 관청밋 불너 안주 찰히고 건는 노식 슈안장  
의 은입스 선후거리 당미양이 지어노코 도련님 호스보쇼. 의복단장 밋시 잇다 삼단긋튼  
허튼 머리 반달긋튼 화룡소로 아조 살살 홀니 빗겨 전반긋치 넓게 썩하 슈갑스 토막당괴  
석우황이 더욱 조타 싱면주 겹바지의 당뵈중의 밋쳐 입고 옥식항나 겹적고리 디방전의  
약낭이오 당갑스 슈향빅즈 가화본의 옥단쥬며 당모시 중치막의 싱초 긴 옷 밋쳐 입고 삼  
승보선 통형전의 회식운혀 밋시 잇게 지어신고 한포단 허리썩의 모초단 두리쥬치 주황당  
스 벌미듭을 보기 조케 썩여치고 즈지갑스 너분 썩를 세류춘풍 빗기 썩고 분홍당지 승두  
선의 탐화봉접 고려 쥐고 김희간죽 빅통디의 삼등초 띄여 물고 방즈놈 압세우고 뒤홀 썩  
라 탄탄디로 너른 길의 마음 심즈 갈 지즈로 낭류춘풍 썩소리긋치 흑승흑보호여 방화슈  
류 광한누 츠즈 갈 제

산천경기를 녀녀히 삶혀보니 산은 첩첩 천봉이오 슈는 잔잔 벽계로다 괴암층층 절벽  
간의 폭포청과 썩러지고 장송은 울울호고 벽도화 난만호디 썩 속의 잠든 나뉬 즈취 쇼티  
의 헐헐 날고 연상의 노는 빅구 우성변의 한가하다 치어다 보니 만학천봉 구버보니 층암

은 절벽이라 원산은 종종 근산은 첩첩 티산은 주춤 낙화는 동동 간슈는 잔잔 이 골 물  
 저 골 물 한디 합슈하여 구뵈구뵈 출녕출녕 홀너 갈 제 쫓춘 띄엿다가 제절노 지고 입흔  
 띄엿다가 한절을 당하면 광풍의 다 써러져 속절업시 낙엽이 되어 아조 펄펄 훗날니니 그  
 도 쏘흔 경이로다 쏘 흔 곳을 슸혀보니 버들이 버러시되 당버들의 기버들 슈양버들 능슈  
 버들 식로 낫다 홍제원버들 춘풍이 불 제마다 너홀너홀 춤을 추고 함전도화부상류는 가  
 지가지 봄빛치라 화중두견류상잉은 곳곳마다 봄소리로 난만이 지저귀고 화간접무분분설  
 이오 뉴상잉비편편금을 점점낙화청계변의 구뵈구뵈 써나가고 쏘 흔 곳 바라보니 각식초  
 목 무성하다 어쥬 축슈이산춘하니 무릉도원 복성화꽃 츄문쥬가하쳐직오 목동요지 형화꽃  
 북창삼월청풍취하니 옥창오경 잉도화꽃 위성조우읍경진하니 직스청청 버들꽃 난만화중  
 척촉화 고쥬팔월진암초하니 만지쥬상 국화로다 동절춘싱절하니 요님군의 명협화 석양동  
 풍 히당화 절벽강산 두견화 벽히슈변 신이화요 슈부목 무궁화 길췌화계 무금화 흰초 난  
 초 키긋튼 파초 모란 작약 월계 스계 치즈 동빅 종녀 오동 왜석뉴 화석뉴 영산홍 왜척죽  
 포도 다리 으흐름너출 열그러지고 뒤트러졌다 쏘 흔 곳 바라 보니 온갖 잡목 다 잇더라  
 동녕슈고불변식의 군즈절은 창송이오 춘하쥬동스시절의 정정독닙 전나무 만경창파빅척당  
 의 슈궁중의 무회목 투지목과 낙지경거 뒤틀니는 모과나무 오즈서의 분묘 압희 충성홀손  
 가목이오 망미인혜턴일방의 님 그리는 상스목 청산영니부운간의 도석네불 복나무 슈척지  
 휘 랑공불기 아름다리 거지목 즈단 빅단 산유즈 박달 용목 향목 침향 금평 울목 잡목 턴  
 두목 지두목 횡즈목 빅즈목 느러진 장송 부러진 고목 넙적 석갈 황계피 무푸레 단목 측  
 송 보리슈 드랭 드랭 널너고나 모과 석뉴 가지가지 광풍의 휘느러졌고 쏘 저편 슸혀보니  
 각식 금슈 나라들 제 연작은 나라들고 공작은 괴여든다 청즈도 흑즈도 닉금정 외금정 빵  
 보라믹 산진이 슈진이 히동청 보라믹 췌다 보아라 종달식 청턴을 박치고 빅운을 무릅쓰  
 고 호중턴지 췌 잇는디 방정마즌 할미식 요망스런 방울식 이리로 가며 호로로 빗죽 저리  
 로 가며 빗죽 호로로 췌당그르르 마리산 갈가마괴 돌도 츄돌도 못 어더먹고 티빅산 기슭  
 으로 골각갈곡 갈으랭 갈으랭 울고간다 춤 잘 쥬는 무당식 정냥 췌는 호반식 슈루루 층  
 암절 벽 우희 비르르 장그렁 나라들고 쇼상강 췌기러기 허공중의 눅히 췌서 지리지리 슬  
 토록 우리예고 것츠로는 비루먹고 속은 아모것도 업시 췌탱그려 뷔엿는 고양나무 우희  
 부리 췌족 허리 질눅 췌지 묵독헌 저 췌져구리 거동보쇼 크나큰 디부동을 한아름 드립췌  
 허험췌 드러잡고 오르며 췌드락췌췌 나리며 췌드락췌췌 하며 낙낙장송 느러진 가지 홀노  
 안즈 우는 식 밤의 울면 두견식 낮제 울면 접동식 흔 마리는 나려 안고 쏘 흔 마리는 눅  
 히 안즈 공산야월 적막흔 디 축국강산 녀시 되어 귀촉도 불여귀라 피 나게 슸히 울고 벽  
 국식도 우름 울고 숙국식도 우름 울고 풍년식은 슸 적다 흥년식은 슸 텅텅 약슈삼천니  
 요지연의 쇼식 전튼 청묘식 샤마상여 줄쇼리의 오유스방 봉황식 부용당 운무병의 그림긋  
 튼 공작식 일천년 화표쥬의 물시인비정위학 미성료의 글귀 속의 교교호음 잉무식 칠칠가  
 기은하슈의 다리 노튼 오작식 녹양 스이 복이 되어 봄빛 췌는 췌소리 일쌍비거각두희라  
 원불상니 원앙식 상님원의 글 전하던 별포귀릭 흥안식 석양비흘청산식하니 냇기상망 히  
 오리 범범쥬뉴 지향업시 상친상근 빵비오리 곳곳지 춤을 추고 길췌싱도 괴여든다 산군은  
 호표요 성슈는 기린이라 당싱불스 미록이오 스과춘산 국노로 시위상셔 코기리 이리저리  
 괴여들고 돈피 서피 일희 승냥이 히달피 청설모 다람쥬 진납이 파람하고 청기고리 복질  
 한다 금뚝겹이 식남하고 청멧쏘기 당고 치고 흑멧쏘기 저를 불고 돌진가지 무고 치고 도  
 야지 밧출 갈고 슈달피 고기 잡고 암곰이 외입하니 슈툽기 북통한다 다람이 그 꼴 보고  
 암상닌다

이런 경기 다 본 후의 광한누의 다드라서

방즈야 도원이 어 디메니 무릉이 여기로다 광한누도 조커니와 오작교가 더욱 조타 건  
우성은 너가 되려니와 직녀성은 너가 되리 악양누 등왕각이 아모리 조타흔들 이의 더 조  
흐라

방즈놈 엇즈오디

이 곳 경기 이렇기로 풍화일난하여 처운이 즈저질 제 신선이 내려와 노늬이다

니도령 말이

아마도 그러하면 네 말이 적실하다 운무심이출슈하고 도권비이지환이라 별유턴지비인  
간을 예를 두고 니르미라

호상을 즈작하여 슈삼비 거후르고 비회고면하여 산천도 삶혀보고 음풍영월하여 넷 글  
귀도 싱각하니 경기풍월이 본시 무정지 물이라 정히 무류 심심하더니

눈을 드러 한 곳을 우연이 보라보니 별유턴지 그림속의 엇더한 일 미인이 춘흥을 못  
니기여 빅옥긋튼 고은 양즈 반분씩로 다스리고 호치단순 고은 얼굴 삼식도화미기봉이 하  
로밤 춘 니슬에 반만 켜 형용이오 청산긋튼 두 눈섭은 팔즈춘산 다스리고 흑운긋튼 허튼  
머리 반달긋튼 화룡소로 아조 살살 흘니 빗겨 전반긋치 넓게 썩아 옥농잠 금봉츠로 스양  
머리 쪽저논디 석우황 진주투심 산호가지 휘얼근 도토락당기 밋시 잇게 다라시니 천티산  
벽오지의 봉황의 꼬리로다 당모시 깎기적 삼 초록갑스 껌막기에 빅문항나 고장바지 분홍  
갑스 너른 바지 세류긋튼 가는 허리 촉나요디 놀너 썩고 룡문갑스 도홍치마 잔살 좁으  
썰쳐 넓고 몽고삼승 겹보선의 초록우단 슈운혜를 밋시 잇게 도도 신고 삼천주 산호슈 밀  
화불슈 옥나뿔며 진주월픽 청강석 직계향 비취향 오식당스 썩을 다라 양국디당 병부 츠  
듯 남북병스 동기 츠듯 각읍 통인 서랍 츠듯 휘느러지게 넉긋 츠고 방화슈류 츠즈 갈 제  
빅만교티흔고나 섬섬옥슈 훗날녀서 모란꽃도 부르질너 머리에도 꼬즈보고 척촉화도 부  
르질너 넓의도 담박 무 러보고 녹음슈양 버들넙도 주루룩 홀터다가 맑고 맑은 구곡슈의  
풍덩실 드리쳐도보며 도화류슈묘연거하니 점점낙화청계변의 죄악돌도 쥐여다가 양뉴상의  
썩꼬리도 위여 풀풀 날녀보고 청산영니녹음간의 그리저리 드러가서 당당치승 그늬줄을  
벽도화 느러진 가지의 휘휘춘춘 밋여논디 저 아희 거동보쇼 밍낭이도 어엿부다 섬섬옥슈  
드러다가 추천줄을 갈나 쥐고 쇼쇼로쳐 썩여올나 한 번 굴너 압히 눕고 두 번 굴너 뒤가  
눕하 빅능보선 두 발길노 소슈 굴너 눕히 츠니 뒤의 꼬즌 금봉츠와 압히 지 른 민줄절은  
반석상의 느러져서 잉그렁 덩그렁 하는 쇼릭 이도 썩흔 경이로다 비거비릭하는 거동 딴  
왕녀 난도 타고 옥경으로 향하는 듯 무산선녀 구름 타고 양디상의 느리는 듯

흔창 이리 노닐 적의 니도령이 바라보고 얼굴 달호이고 밋음이 취하여 정신이 산난  
안정이 몽농 의식 호탕 심신이 황홀하다

방즈야 저기 저 건너 운무중의 울긋불긋하고 들낙날낙하는 거시 스람이나 신선이냐

방즈놈 엇즈오디

어디 무어시 뵈느잇가 쇼인의 눈의는 아모것도 아니 뵈늬이다

니도령 말이 아니 뵈단 말이 언인 말이니 원시를 못하느냐 청흥을 모로느냐 나 보느  
디로 즈셔히 보아라 선녀가 하강하엿느보다

무산십이봉이 아니여든 선녀가 어이 이시리잇가

그리면 숙낭직냐

이화정이 아니녀든 숙낭직가 웬 말이오

그리면 셔시로다

오왕궁중 아니여든 서시라 호오릿가  
그리면 옥딘이로다  
장성던이 아니여든 양귀비가 왜 잇스오잇가  
그리면 옥이나 금이나  
영창녀슈 아니여든 금이 어이 예 이시며 형산곤강 아니여든 옥이 어이 이 곳의 이시  
리잇가

그리면 도해로다  
무릉도원 아니여든 도화가 웬 말이오  
그리면 히당화나  
명스십니 아니여든 히당화라 호오릿가  
그리면 귀신이나  
턴음우습 아니여든 귀신 이 어이 이시릿가  
그리면 혼백이나  
북망산천 아니여든 혼백이 웬 일이오  
그리면 일월이나  
부상덕택 아니여든 일월이 어이 이시리잇가  
니도령이 역정녀여 호는 말이

그리면 네 어미나 네 할미나 모도 휘모라 아니라 하니 눈망울이 쇼스느냐 동즈가 갓  
고로 섯느냐 원통 뵈는 거시 엇다 하니 허로증을 들녀느냐 나 보기의는 아마도 스람은  
아니로다 천년 묵은 불여호가 날 호리랴고 왓느보다.

방즈놈 옛즈오디

도련님 여러 말슴 그만 호오 저기 저 그녀 썬는 저 처녀를 무르시나 보마는 츠시 녹  
음방초승화시라 스부가 규슈가 추천하라 왓느보외 다

이 아회야 그러치 아니하다 그 처녀를 보와하니 청턴의 썬는 송골미도 갖고 석양의  
나는 물 찬 저비도 갖고 녹슈파란의 비오리도 갖고 말 잘호는 임무식도 갖고 회양횃썩  
별 진 잘 숙 하니 녀향 처녀가 그러키는 만무기리하니 너는 이곳의셔 싱어스 장어스 유  
어스 공어스 하여 모리당단 난든 집을 녀녀히 알듯하니 스람 죽깃다 바로 닐너라

방즈놈 옛즈오디

진정 그리 알고져 하시면 바른디로 고희리니 공식시가 잇셔야 하지 그러치 아니면 북  
극턴문의 발팔호고 옥데 금불이 명호셔도 바로 고치 못호기소

니도령 마음이 겹겹하여 되느디로 호는 말 이

그랴서 범연이 흥가보냐 너 서울 가거든 세간 밋천하라 호고 돈 오빅 냥 봉부동으로  
두어시니 너를 줄 거시오 장가 들거든 네물 주랴고 어루신니 평양셔운 가 계실 제 츠천  
슈식 당만호 것 두어시니 너를 줄 거시오 과가호거든 쓰라호고 창방제구 출혀든 거 이시  
니 너를 줄 거시오 모도 궁통 모라 휘쓰러다가 물슈이 너를 다 줄 거시니 제발 덕분 바  
로 닐너라

방지 웃고 그제야 호는 말이

저 아회는 귀신도 아니오 증싱도 아니라 본읍 기싱 월미 쌀 춘향이오 춘광은 이팔이  
오 인물은 일식이오 형실은 빅옥이오 직질은 소약난이오 풍월 은 설도오 가곡은 섬월이  
라 아직 서방 정치 아니코 이시나 성품이 미물호고 스직고 교만호고 도쓰기가 영소보던  
북극턴문의 턱 건 줄노 알외오

니도령 이 말 듯고

얼스 조홀시고

허동지동 헛튼 말노 흐는 말이

이 익 방즈야 우리 두리 의형데 흐즈 방즈 동싱아 날 살너라 제가 만일 창별진딴 흐  
번 구경 못 홀쇼냐 네가 밧비 불너오라

방즈놈 거동보쇼. 아조 필적 썬며 흐는 말이

이런 말슴 다시 마오 저를 브르라 흐면 밥풀 물고 식깃기 브르듯 아조 험스오나 만일  
이 말슴이 스또 귀우명으로 다름박질흐여 드리가량이면 도련님은 계관이 업거니와 방즈  
이놈은 팔즈업 시 늘기시니 그런 싱각과 이런 분부는 꿈의도 마옵쇼서

니도령 니른 말이

죽기 슬기는 십왕전의 미엿다 흐니 경망스레 구지 말고 저만 어서 불너오라 니일부터  
관청의 나느 거슬 도모지 험스러다가 닭피바로 즐슨즐슨 목거다가 방즈 형님딴으로 썬  
진상 알외오 흐고 모도 다 송일 거시니 다른 녀녀는 꿈의도 말고 어서 밧비 불너오라 제  
발 덕분 불너오라 니가 만일 병 곳 들면 신통시 상빅초흐여 일만병을 다 곳쳐도 이니 병  
은 홀 일 업고 요지에 천년반도 천티산의 별이용 만슈산 인삼과 삼신산 불스약이 거지  
두량이라도 이니 병은 속절업시 죽기시니 제 발 덕분 비느이다 날 슬니시오

속담의 니른 말이 빅주는 홍인면이오 황금은 흑스심이라 방즈놈의 마음이 녀초청 굴  
독이오 호두각 디청이라 주마흐는 말의 비위가 동흐여 흐 번 웃고 허락흐는 말이

도련님 말슴이 하 저려흐시니 불너는 오려니와 나종의 중병이 나면 그는 나의 알 비  
아니원다 또 계집 말 부르는 당단이나 아웁느잇가

니도령 디답흐디

세상 스람이 남는 것 흐나는 잇느니라 왈즈가 망흐여도 원다리길 흐나흔 남고 부즈가  
망흐여도 청동화로 흐느흔 남고 종가가 망흐여도 신주보 흐나 향노 향합은 남고 남산골  
싱원이 망 흐여도 거름짓는 보슈 흐나는 남고 노는 계집이 망흐여도 엉덩이 흔드는 당단  
흐나흔 남는다 흐니 경성의셔 싱당흔 니가 현마 계집 말 브를 줄이야 모로라 방즈형아  
쥬저님의 아들놈 쇼리 말고 나느디시 불너오라 편전긋치 불너오라

저 방즈놈 거동보쇼. 아리 멋습흔 도리참나무 즐슨동 부르질너 것구로 집고 녹양방초  
버든 길노 거드렁충청 우두덩탕탕 밧비 갈 제 흐 모롱 두 모롱 훨훨 지나 나느디시 건너  
가서 숨을 헐덕이며 쇼리를 우뢰긋치 지르고 손을 눈 우희 번적 드러

춘향아 춘향아 무엇흐느니

춘향이 째작 놀나 쥬천줄 에 썬여느려 명모를 홀니 쓰고 단순을 반기흐고 호치를 드  
러닉여 못는 말이

그 뉘라셔 그리 급히 브르느니

방즈놈 디답흐되

큰일 났다 칙방 도령님이 광한누의 구경와 거시다가 너를 보고 두 눈의 부체가 발등  
거리흐고 윈 몸의 힘줄이 용디긋 뒤줄이 되엿시니 어서 급히 가즈 잠간이나 지체흐면 모  
닥이 판날 거시니 얼느 밧비 가즈세라

저 계집 아히 거동보쇼. 빅만교티 썬그리고 독을 닮여 흐는 말이

요 방정맛고 요망스런 아희 년석아 스름을 그디지 놀느냐 니 쥬천을 흐던지 마던지  
너드려 디슈리 말 만코 익슬스레 분주다스흐게 뒤송뒤송스레 춘향이니 스향이니 침향이  
니 계향이니 강진향이니 광향이니 회향이니 정향이니 목향이니 네 어미니 네 할미니 갓

초갓초 경신년 글강외듯 다 일거 맞치라드나

방즈눔 흐는 말이

요년의 아희년아 너 말 듯거라 무슨 일노 욕은 더러더러하여 가느냐 었던 실업당의 아들놈이 남의 친환의 단지호는 셈으로 그런 말 하였단 말이나 도련님이 원악 아는 법이 모진 바람벽 쏘고 나오는 중방밋 컷도람의 즈석시오 쏘는 네가 잘못흔 거시 그닌지 고닌지 추천인지 투천인지 썬려거든 네 집 뒤동산도 조코 조용히 썬려하면 네 집 덕청 들보도 조코 정 은근이 썬려하면 네 집 방안히 헛덕목의나 밋고 썬지 요로툏 쪽비야진 언덕 의셔 점지 아닌 아희년이 들낙날락하며 별별 발겨갈 좇시 무슈하니 미당가전 아희놈이 눈썹이 아니 상홀쇼냐 즈셔히 드러보라 오날 마춤 본관 스쏘 즈제 도련님이 산천경기 구경하려 광한누의 올낫더니 녹음중의 추천호는 네 거동을 보고 성화긋치 불너오라 분뵈지엄하시니 뉘 분부라 아니 ㄹ고 뉘 령이라 거슬쇼냐 잔말 말고 어셔 가즈 바른덕로 말이지 도련님이 외입당이라라 곳 오미지상이오 초병 막기오 말게 초인 엉덩이오 돌의 초인 복성화썬오 산기암이 밋궁이오 경계쥬머니 아들일너라 네 만일 향기로온 말노 뵈시 잇게 식를 부려 초친 무림을 밋든 후의 향나 속것가리를 싱숭상숭 썬혀니여 아조 쏘쏘 마라드가 왼편 불기썬의 붓쳐시면 그 아니 묘리가 잇깃쇼냐 남원 거시 네 것시오 운향고 이 아릅치라 네 덕의 나도 관청고즈나 하여 거드러거려 호강 좀 하여보죠틸고나

춘향이 덕답하디

아니 가면 놀을 었지하나 날노 죽이나 싱으로 밋기나 비오는디 쇠소리쳐로 부디치지 말아 날 구즌 날 기삿기쳐로 지근지근이 구지 말고 말하기 슬흐니 어 셔 이거라

방즈눔 니른 말이

네가 요디지 보동썬고 단단하냐 양세고 슈세냐 아모커나 견디여보아라 잔속을 즈셔히 몰낫다 도련님이 눈가죽이 핑핑흔 거시 독살이 우히 업고 만일 슈의 틀니면 네 어미 월 미가지 싱급살을 먹을 거시니 네 아니 가면 그만 잇슬 듯 시부냐 되지 못홀 스양 말고 어셔 가즈

춘향이 홀 일 업셔 썬라온다. 치마소리 뒤가담을 에후루쳐 휘여다가 압홍당의 썬 부치고 옥보방신 완보홀 제 석경산노 험흔 곳과 횡심일경 밋긴 길노 한단시상의 슈릉의 거름으로 빅월총중의 서즈의 거름으로 빅모리밋히 금즈라 거름으로 양지마당의 썬암담의 거름으로 덕명던 덕들보의 명막의 거름으로 광풍의 나비 노듯 물속의 니어 노듯 가만가만 삼분삼분 거리와셔 광한누의 다드르니

방즈눔 었즈오디

춘향이 현신 알외오

흐니

이썬 니도령이 눈골이 다 틀니고 정신이 표탕하여 두 드리를 잔득 쏘고 스테무궁하여 기드리는 마음이 덕한칠년의 비 바라듯 한슈덕전의 살 바라듯 심신이 비월터니 이 쇼릭을 듯고 무망중의 흐는 말이

방즈야 하정이란 말이 될 말이며 현신이란 말이 위격이라 어셔 밋비 오르쇼 셔 었쥬 왜라

춘향이 홀 일 업셔 당상의 올나 절하여 뵈는 거동 서왕피 요지연의 쥬목왕피 뵈옵는 듯 서미인이 오왕궁중의 범쇼후피 뵈옵는 듯 작모형지 괴묘하고 붓그리는 옥모티되 절승흔지라 춘산아미 나죽하고 쥬슈명피 변혜하여 나죽이 나아가 아리썬이 절하니 니도령이 빅망중 니러 마즈 답네 후 좌를 정하고 즈셔히 삶혀보니 무릉도화 일천 점이 닛토아 불

엇는 듯 요지의 다람화 일만 가지 생기흔 듯 금분 모란이 담발하여 봄철을 즈랑흔 듯  
지당의 벽년일지 세우의 반기는 듯 벽월이 초싱 흘 제 점운이 무적하고 부용이 반기흔디  
서하가 방롱이라 원슈청연은 숙비의 총농하고 은하츄파는 미우의 영철이라 풍화설한흔디  
뉴시미교요 벽미정정흔디 천티요요로다 원포의 쇠연하고 춘산의 야미로다 일천 즈틱와  
일만 고으미 진짓 만고의 짝 엮는 천향국식이라 니도령이 혼 번 보미 정신이 황홀하고  
심신이 녹는듯하여 혼는 말이 남 호리게 숨졌다 남의 썩 썩히게 숨겨고나 남의 간장 녹  
이게 숨졌다 슈려찬난하여 너 눈을 어둡고 천연즈약하여 너 간장이 스는고나 화용월티  
향기로와 나의 정신 다 썩히고 양뉴괴질 섬세하여 집웃술 못 니기논고나

그라서 성명은 뒤라하며 나흔 언마나 혼노

춘향이 팔즈춘산 썩그리고 단순호치 잠간 여러 나죽이 엇즈오디

소녀의 성은 김이오 일흠은 춘향이오 나흔 이팔이로쇼이다

니도령 니른 말이

신통하다 네 나히 이팔이라 하니 나의 스스 십죽과 정동잡이로고나

또 무르디

싱월 싱시는 어넉 썩니

춘향이 디답흔디

하스월 초팔일 축시로쇼이다

어허 공교하다 눈 무섭다 방즈야 네가 앓가 슈군슈군하더니 너 나와 싱일을 다 일너  
밧쳤나 보고나 그러치 아니면 이럴 일이 이느냐 디져 신통 괴이하다 다 마져오다가 쪽  
시만 틀너지니 나 희산흘 제 불슈산을 급히 달혀 짓고로 먹엇더면 스쥬 동갑될 번하다  
엇지 반갑지 아니며 엇지 깃부지 아니리오 어와 네 인물 네 톱도는 세상의 무쌍이라 절  
묘하고 어엿부다 미화월미의 두루미도 갖고 줄의 안즌 조록제비도 갖고나 무한흔 너의  
인물 상쥬라도 혼 번 보면 소담기가 무식흘 거시오 하결이 너를 보면 미희도 흠기로다  
항왕이 너를 보면 우민인이 박식시오 녀포가 너를 보면 초선이도 쏘흔 돌이로다 당명왕  
이 너를 보면 양귀비도 한디 되고 딴후쥬가 너를 보면 당녀화가 용납하라 일월이 무광하  
고 빅해가 탈식이라 연분 이서 이러흔지 인연 이서 이러흔지 너 스라야 나도 슬고 나 슬  
아야 네 슬니라 네붓터 왕공도 경국하고 현지라도 함신훈다 일너지니 날긋흔 년쇼빅야  
일너 무슴홀가 우리 두리 인연미즈 벽년히로하려 하니 잡말 말고 날 섬겨라 신통 밍냥하  
고 쑤고 실 디 엮는 연분이라 하늘이 마련하고 귀신이 지시흔온 청정비필이라 나도 서울  
이실 썩의 삼월춘풍화류시와 구쥬황국단풍절의 화조월석 빈 날 업시 쥬스청누 일틀 삼아  
만춘향노 니취하고 절디가인 침익하여 청가묘무 회룡흘 제 무한 호강하여시면 연지분의  
취식하고 함교함티 고은 모양 혼나 둘이 아니로디 천만의외 너를 보니 녀중군지며 화중  
일식이라 탁문군의 거문고의 월노가승 미즈 두고 벽년괴약 우리 두리 정하리라

춘향이 이 말 듯고 츄파를 잠간 드러 니도령 읊혀보니 이 쏘흔 만고영결이라 광미디  
구에 활달디도 언어슈작흔는 거동 한손열지 괴상이오 당헌종의 풍신이라 명만일국 지상  
되어 보국안민흘 거시오 귀골풍 치 현양하여 니적선의 후신이라 두즈미의 취과낙양에 굴  
만거하던 풍신을 우을 거시오 적벽강상의 위군의 낙담하던 쥬량의 위풍을 압두홀지라

춘향이 너심의 탄복 흠션흔를 마지 아니하나 스식지 아니코 피석 디왈

쇼첩이 비록 창가 천기오 향곡의 무뎡 소견이나 마음인즉 북극턴문의 턱을 거러 결단  
코 남의 별실 가쇼하고 당화호접 불원이오니 말슴 간절하오시나 분부 시형 못하깃쇼

니도령 니른 말이

형미의혼의 늑네빅냥은 못흐나마 결친납땡에 빅년히로는 정영흐리니 이도 쏘흔 텃정  
연분이 라 스양지심은 네지단이나 잡말 말고 허락흐라

춘향이 쏘 엇즈오디

쇼첩의 쏘을 간디로 썩거 마음디로 인연을 못 밋스오리이다 첩의 원흐는 바는 데요도  
당시적 쇼부 허유 곱흔 스람이나 월나라 범소빅 곱흔 스람이나 그러치 아니면 한광무적  
엄즈릉 곱흔 니나 당나라 니광필 곱흔 스람 딴나라 샤안석 곱흔 니나 삼국적 쥬공근 곱  
흔 니나 송나라 문천상 곱흔 니나 이런 스람 아니오면 디원슈 인 빗기 츠고 금단의 늑히  
안즈 천병만마를 지휘간에 너허두고 좌죽진퇴흐옵시는 디당냥군이 원이오니 만일 그 러  
치 아니흐오면 빅골이 진퇴되여도 독숙공방흐오리이다.

니도령 니른 말이

너는 엇던 집 계집아희완디 당부의 간당을 다 녹이느니 네 쏘이 여츠흐면 날 곱흔 스  
람은 여허보지도 못홀쇼냐 그런 스람 의외로다 우리 두리 냥냥총각 노라보즈

춘향이 엇즈오디

쏘흔 진정의 말슴 흐오리다 도련님은 귀공지시고 쇼첩은 천기라 지금은 아직 욕심으  
로 그리저리 흐엿다가 스쏘 체귀흐신 후의 미당가전 도련님이 권실 아니흐오리가 권문세  
가와 진신거독에 뇨도숙녀 권귀흐여 금슬종고 즐기실 제 헌 신 곱치 바리시 면 속절업는  
나의 신세 가련이도 되거고나 독숙공방 찬 즈리의 계발 무려 더진드시 홀노 잇셔 삼춘가  
의 느즌 썩와 구쥬상풍 저문 날의 안진흐니 셔란괴오 슈다흐니 몽불성을 함전미화는 셔  
즈의 망혼이오 창외누슈는 이비의 원누로다 산당슈원 먼나쁜 디 심단소흔흐을 적의 늑  
바라고 슬나흐오 아모라도 이 분부 시형 못흐깃쇼

니도령이 심황신홀흐여 만단기유흐는 말이

상담의 니르기를 노류당화는 인지가절이오 산계야목은 가막능순이라 흐더니 너와 곱  
튼 정정열심은 고금턴지의 쏘 잇시라 얹전흐고 괴특흐다 아 모려나 그런 일은 조금도 넘  
너마라 인연을 밋즈도 아조 당가쳐로 밋고 스쏘 과만이 잇다가 되여도 너를 두고 엇지  
가리 조금치도 의심마라 면쥬적습 속즈락의 썩고간들 두고가며 당판교상 아두곱치 품고  
간들 두고가며 부왕투슈 늑슈부곱치 안고간들 두고가며 역조함디 순공곱치 업고간들 두  
고가며 험티산 초희곱치 썩여간들 두고가며 우리 디부인은 두고갈지라도 양반의 즈식 되  
고 일구이언흐단 말가 다려가되 향정즈의 비형흐여 피시리라

춘향이 이 말 듯고 옥치 찬연흐여 잠간 웃고 니르디

산 스람도 향정즈 타고 가오

앗츠 이젓고나 빵가 마의 피시리라

디부인 타실 거슬 엇지 타오릿가

디부인은 집안 어른이라 허물업는 터이니 위급흐면 샷갓가마는 못 타시라 잡말 말고  
허락흐라

춘향이 홀 일 업셔 엇즈오디

도련님 구든 쏘이 곱지 그러흐실진디 요마 쇼첩이 불승황공이라 엇지 봉승치 아니리  
잇고 다만 세스를 난측이오니 훗일 빙거지물이 업지 못홀지라 일당문서를 밋드라 쇼첩의  
막음을 실희옵쇼서

니도령이 허락 못 바들가 심갈초민터니 저의 말을 듯고 회부즈승 탕불즈억이라 천만  
다형흐여 열는 디답흐는 말이

괴 무어시 유란흐리

흥을 겨워 일복 화전식을 골나 두루루 마라 후루루 풀쳐 들고 룡미연의 먹을 가라 순  
황모 무심필을 반중동 흠석 프러 일필휘지 문불가점이라 필낙하니 경풍운이오 시성하니  
읍귀신이라

그 글의 하여시되 낙양과각이 산천경기 구경코져 우연이 광한누의 올랐더니 싱각밧  
턴연이 지중하여 삼세숙원 맛나오니 이 니른 텃싱비필이라 빅년괴약 텃세홀 제 텃지일월  
성신 후토십방세계 제불제턴 혼가지로 삶하시니 산천은 이번이나 츠심은 난변이라 천고  
가인 흥봉하여 동거동 혈 밋스오니 운간지명월이오 슈중지연해로다 약요지지괴해오 스양  
디지운우로다 랑신가절이오 천승호괴로다 관관져구는 직하지쥬오 뇨도숙녀는 군즈호괴로  
다 아욕서지평싱이오 금슬우지무궁이라 초무상중지괴로 금수월하지연이오니 괴위빅약지  
니리오 일일잡니가 슈운니격이나 빅년희로는 지유전괴로다 스슈은밀이나 이슈미인지쾌하  
오 아지거취는 역괴방즈지소원이라 동원춘화를 막지실낙지지시라 구우황도도 역즈유쇼지  
지쳐로다 즈아일견을 일각이 삼쥬로다 심지익경은 비타우결이오 스 지구쳐는 비여의소량  
이라 월혼이위괴즈 영중도이기로이오 역의즈믹하니 선보중시하고 슈물소려하여 이츠위  
신하라 모년 모월 모일 삼청동 니몽룡은 삼가 셔호노라 호엿더라

쓰기를 맛츠미 쫄쫄 마라 춘향의게 전하니 춘향이 바다보고 심중의 디회하여 이리 접  
침 저리 접침 접침접침 접어다가 가삼속의 품은 후의

여보 도련님 닌 말 듯소 무독지언이 원비천니라 하니 빠고빠 스향님도 난다 하니 이  
런 말이 누설하여 스또게서 아라시고 엄척중달호읍시면 츠작지얼 지 은 죄라 어디 가 발  
명홀가

니도령 니른 말이

오냐 그는 녀녀마라 닌 어려슬 썩 큰스랑의 가면 닌은녀 기싱들과 은근즈 숯보기 각  
집 통직이 오락가락 호더고나 만일 초라가 나거들낭 그 말 호고 방구호즈

이러트시 슈작하며 천금이나 어든드시 즐겁기도 괴지업고 깃부기도 측냥업다 셔거라  
보자 안거라 보즈 아장아장 건니거라 보자 이러트시 스랑하며 어루는 거동 흥문연의 범  
증이가 옥결을 즈조 드러 향장 불너 픽공을 죽이랴고 큰 칼 썩혀 들고 검무쥬어 어루는  
듯 구룡소 늙은 룡이 여의쥬를 어루는 듯 검각산 빅익호가 송풍나월 어루는 듯 머리도  
쓰다듬고 옥슈도 꺾여보며 등도 두드리며 어우화 닌 스랑이야 야우동창의 모란긋치 평퍼  
진 스랑 포도 다리 넷출긋치 휘휘춘춘 감긴 스랑 방당 봉닉 산세긋치 봉봉이 소슨 스랑  
동히 셔히 바다긋치 구뵈구뵈 깃흔 스랑 이 스랑 저 스랑 스랑 스랑 스랑겨워 스랑가호  
며 이러트시 노니더니

츠시 일낙셔령호고 월출동곡이라 춘향이 이러셔며 하직호는 말이

어닉날 뵈오리잇가

니도령이 썩썩흠 니긋지 못하여 옥슈를 잡고 못는 말이

네 집이 어디메니

춘향이 옥슈를 번 듯 드러 혼 곳을 ㄱㄹ치되

저 건너 석교상의 혼 골목 두 골목 지나 흥전문 드리드라 조방청 압으로서 디로천변  
올나가셔 향교를 브라보고 종단길 도라드러 모통이집 디암집 엽당이집 구석집 건넌편 군  
청골 셔턴골 남편작 들직 집 빅츠밧 압호로서 가라간 김니방집 압호로서 정좌슈집 지나  
박호장집 바라보고 최급당이 누의집 스이골 드러 스거리 지나셔 북작골 막다란 집이올시  
다

니도령 니른 말이

네 말이 하 뒤송뒤송하니 나는 식로 이너도 츠즈가기 어렵고 집 일키 쉽것다  
춘향이 답하되

그리 아니하여도 왕년의 각금 무려단니는 거시올시다 그리 말고 어딴만치 즈셔이 그  
르치라

춘향이 웃고 다시 니로되

저 건너 반송녹죽 깎흔 곳의 문전의 양뉴 심어 오륙쥬 버러 잇고 덕문 안의 오동 심  
어 입 뛰여 슈음지고 담 뒤히 홍도화 난만이 붉어 잇고 압쓸히 석가산 뒤뜰에 연못 파고  
전나무 그늘 속의 은은이 보이는 저 집이오니 황혼쎌 부디 오옵쇼셔

하직하고 썰치고 가는 형상 스람의 간장이 다 녹는다 금석긔치 상약하고 손을 난화  
쎌날 적의 한업는 정이로다

겨유구려 도라오니 월명정반이요 등명창외로다 정신이 산란하고 문견이 황홀하여 진  
정홀 길 바히 업다 익고 이거시 웬 일이고 밋친 놈이 되거고나 눈의 춘향의 녀시 올라  
엿는 보이는 거시 모도다 춘향이라 녹방아전 춘향 긔고 방즈 통인 춘향 긔고 관노스령 춘  
향 긔고 군노 급장 춘향 긔고 남원부스 춘향 긔고 대부인도 춘향 긔고 날짐싱도 춘향 긔  
고 궤짐싱도 춘향 긔고 모도 미리 보이는 거시 다 춘향이라

전역상을 물너노코 하는 말이

목이 매여 못 먹것다

방즈 불너 못는 말이

네 이 밥을 아는다

방즈놈 엿즈오되

아옵너다

안다 하니

엇지 하니

빨노 지은 거시 밥이올시다

어허 미혹흔 놈 밥이면 다 밥이나 밥을 지으되 즐도 되도 아니하고 고술고술흔 중에  
도 속의 썩가 업서 축축하여도 것물 도지 아니하여야 가위 잘 지은 밥이지 이 밥은 곳  
모리밥이로고나 이 상 물니여라 식불감하니 침불안이 쉬오리라 글이나 읽어보즈

천즈 유합 동몽선습 사약 통감 소학 덕학 레긔 춘쥬 시전 서전 밍즈 논어 마스 삼약  
너여노코 산유즈 칙상의 옥축의 불 밝히고 츠레로 입을 적의

하늘 천 짜 지 감을 현 누루 황 집 우 집 쥬 집 그르쳐 보든 양이 눈의 암암 귀의 정  
정 텃지디간 만물지중의 유인이 최귀흔 중의 더욱 귀타 텃황시는 이목덕으로 왕하야 세  
긔섭제하니 제 못 와도 너 가리라 이십삼년이라 초명 된대부 위스도적한건하여 혼가지로  
못 간 줄이 후회막급이라 원형이정은 텃도지상이요 인의례지는 인성지강이라 강보벗터  
못 본 줄이 한이로다 밍지 견양혜왕하신되 왕 왈 슈불원천나이리하시니 천니로다 천니로  
다 임 가신 되 천니로다 관관져구는 직하지쥬오 뇨도숙녀는 군즈호구로다 우리들을 니르  
미라 아모려도 못 읽것다. 도모지 훗비이고 춘향이만 보이는고나

칙장마다 춘향이요 글즈마다 춘향이라 혼 즈가 두 즈 되고 혼 줄이 두 줄이요 츠즈쥬  
줄이 다 춘향이라 이 아니 밍냥혼가 원 칙의 글즈드리 바로 보지 아니하네 천즈는 감지  
오 동몽선습 스습이요 스낙은 화약이요 통감은 곳감이요 소학은 북학이요 대학은 당학이  
오 밍즈는 비즈오 논어는 망어로다 시전은 판전이요 유합은 찬합이요 강목은 썩목이요  
춘쥬는 호쥬로다 하늘 텃즈 큰 되고 짜 지즈 못 지 되고 달 월즈 눈 목이요 손 슈즈

양 양이라 일천 천주 방픽 간이오 옷 상주 흑 토로다 옷 의주 밤 야주오 혼 일주 두 이 되고 쏘 츠주 그 기주라 집 주는 범 인인오 하 위주 말 므로다 근 근주 되 승 되고 돛 히주 집 가로다 밧 전주 납 신이오 두 냥주 비 우 되고 묘홀 묘주 이 주 보쇼 춘향 일시 분명하다

척상을 밀쳐노코 벽상 보검 색혀들고 스면을 두루면서 니미망냥 속거천니 춘향이만 보고지고 잠간 맛나 보고지고 즉금 맛나 보고지고 어둑흔 뵈 방안의 불 현듯시 보고지고 천니타향 고인 곳치 열는 만나 보고지고 구년지슈 희빛 곳치 흰출하게 보고지고 칠년디 한 빗발 곳치 식흰하게 보고지고 동창영월 달빛 곳치 반갑게 보고지고 서산의 낙도 곳치 쪽셔러져 보고지고 오미불망 보고지고 알드리도 보고지고 살드리도 보고지고 텅낭이도 보고지고 금죽이도 보고지고 조 곱 맛나 보고지고 잠간 어더 보고지고 보고지고 보고지고 쇼릭를 한것 질너노흐니 그 쇼릭 동헌까지 들너고나

이썸 스또 이 쇼릭를 듯고 째작 놀나고 고이히 녀여 통인 불너 분부호디

척방의셔 글쇼릭는 아니나고 무어술 보고지고 호는고 츠셔히 아라 오라

통인이 급히 가서 못주오디

거 무슴 쇼릭를 그디지 질너스오

니도령이 겁을 녀여 별안간의 싹판전호디

삼문 밧기셔 술주정 호는 쇼릭 듯고 날드려 무르니 니가 므호 만만하나

통인이 엇주오디

스또게셔 도련님 목쇼릭를 친히 듯고 아라오라 호옵시니다 혼 번만 더 썸히더면 될 거시로디 그놈의 외슈의 녀머 호는 말이 그라셔 쏙 드러계시단 말이나

호며 먹은 갑시 잇서 속으로 열는 꾸며 호는 말이

쇼년금방패명시라 미구의 과거 되면 장원급제 출신호여 빵기 썸여 보고지고 니 쇼원 이 이러키로 보고지고 호엿다고 엇주와라

통인이 드러가 그디로 알외오니 스또 고지듯고 척방 묘낭청드려 호는 말이

향주의 선산쇼 천장 호을 썸의 흥천 박싱원이 풍양고을 산쇼를 보고 덤허노코 니 말 디로 여기 쓰라 호며 문필봉이 두려시 안산이 되고 공명봉 이 병풍 두른듯호여 주산이 되여시니 즈순의 문당은 녀네업고 공명이 곳치지 아니호리라 호고 잡고 권호기의 그 말 디로 그 산쇼의 피섯더니 이제야 산음인 줄 향연이 썸닷기네 그 아희가 기특흔 줄이 혼 갓 남쳐로 호는 거시 아니라 잠 잘 줄 잇고 한스호고 글만 호려호니 아무려도 문당은 녀녀업셔

호며 못너 스랑호더라

이썸 척방의셔 방주놈이 엇주오디

강성을 낮초와 호오 못 치인 초라가 다 나기쇼

그럴스록 초조 번민호여 그렇저렇 밤을 식고 묘반 앓침 전폐호고 점심도 전 쥬호고 못는 거시 히 분이라

방주야 히가 얼마나 갓느니

히가 아직 아귀도 아니터쇼

익고 그 히가 어제는 뉘 부음편지를 가지고 가는드시 줄다름질호여 가더니 오날은 어 이 그리 완보장턴호는고 발바당의 종기가 낫는 가리토시가 곱기능가 삼버리줄 좁으믹고 스면 말독을 박아는가 디신 지가탈 잡히엿나 장승거름을 부려호나 어이 그리 더디 가노

방주야 히가 어디로 갓나 보아라

빅일이 도턴중혀여 오도가도 아니혀오  
 무정세월약뉴피라 혀더니 허황흔 글도 잇거고나 붓친드시 박힌 히를 어이혀여 다 보  
 닐고  
 방즈야 히가 엇지 되엿느니  
 셔산의 빗겨 종시 아니 넘어가오  
 관청빔 불너다가 기름을 만히 가져 셔산 피봉의 발나두라 밋그러워 넘어가게 혀여다  
 고 그리혀고 히 지거든 즉시 거러혀라  
 방즈놈 엇즈오디  
 셔산의 지는 히는 보름즈리 치노라고 눈을 쓰물쓰물 혀고 동녕의 돛는 달은 낚히 써  
 셔 오노라고 바스락 바스락 쇼리혀니 황혼일시 정녕혀다 가라혀오 말냐혀오  
 니도령의 거동보쇼. 심망의촉 조민혀여 전녁상도 허둥지둥 방즈 불너 분부혀되  
 네나 먹고 어서 가즈  
 저 방즈놈 거동보쇼. 전의 는 덕공술이나 어더 먹어 낫분양을 주리다가 요스이는 원통  
 모도 후무루 써이고 비가 붓긔혀니 비를 슬슬 만지면서 게트름혀며 혀는 말이  
 남은 아모리 되던지 나는 좃쇼 의 춘향이 열아문이 이시면 겹흥년인들 괴탄홀가  
 혀며 거드러거려 혀는 말이  
 가즈 쇼리 작작 혀오 스또 분부의 가라혀엿쇼 왜장이 나면 가기는 식로이 싱썸질이  
 날 거시니 폐문이나 혼 연후의 스또 취침 기드려셔 가거나 말거나 혀웁쇼셔  
 니도령 초조혀여 니른 말이  
 그러혀면 돈관이니 너여다가 문 닳는 놈 인정 주고 폐문 셴 하혀여 보즈  
 방지 엇즈오디  
 초경삼점 폐문인디 초흔폐문 웬 일이오 폐문 셴하흔단 말 듯도 보도 못혀엿쇼 제발  
 덕분 잠간만 참으시오  
 한창 이리홀 제 가즌취타 폐문흔다 방즈야 동헌의 퇴등흔 씬 보아라 이러트시 조민홀  
 제 동헌의 퇴등혀고 만너구적혀니 방지 엇즈오디  
 야심인적혀고 월빅풍청혀니 가라혀오 말냐혀오  
 니도령의 거동보쇼. 귀홍득의턴공활이라 조홀 조홀시고 가즈 가즈세라 님을 보라 가즈  
 세라 몸을 숨겨 월성혀여 가만가만 츠즈간다 방즈놈은 압홀 셔셔 양각 등의 불을 혀고  
 염성문 네거리 홍전문 세거리 이 모롱 저 모롱 감도라 풀도라 엄병덤병 슈루루 훨적 도  
 라드러 면면춘춘이 츠즈갈 제  
 방즈놈이 별안간의 혀는 말이  
 야반무례오 구식친구라 혀니 심심파적 혀량으로 골치기나 혀나식 혀며 가세  
 니도령이 어히엿셔 니르디  
 방즈야 상하체통 외즈혀고 발셔 통치 못흔 거시 니가 손을 썩져고나  
 방즈놈 덕답혀디  
 으라청청 이 맛 보게 피춘 평발 아희드리 야심중의 괴롱혀니 무어시 망발이며 즈닉  
 뒤히 낭반 두 즈 뼈 붓쳤나 말이 이러 혀니 체증일세 그리 말소 속담의 니르기를 시로써  
 가는 디 기 썩로기는 제격이라 혀려니와 즈닉 계집혀라 가는 디 나는 무슴 썩으로 썩라  
 가단 말인가  
 니도령 니른 말이  
 네 말이 모도 정의지언이로고나 담을 뺏고 벽을 쳐도 이 판의는 그리 아니혀느니라

너가 그리 싱소흐냐 네 비위의 아니 맛나보고나 익고 너 아들이야 오초의 빙드기는 외탁  
혀여 그러헿가 방즈 동싱아 어서 가즈

방즈눔 니도령을 속이라고 바른 길을 두고 스오츠를 둘너 가니 엇지 종을 알가보니  
기얌이 체박회 도듯 불알이 썸 이 쓰도록 도라오다가 흐는 말이

밤길이 붓는다 흐더니 어제 그르치던 어림보다가는 팔팔결노 먼니 향방을 어이 알니  
이는 아모려도 네 중병인가 흐노라

방즈눔이 설녕설녕 압셔 가서 춘향의 집 문 압히 다드라셔 도라보고 흐는 말이

두말 말고 이 집으로 그저 쑥 드러를 가오

여보와라 이 일이 분명 외슈로다 기침의 집이 이디도록 장녀홀가보냐 네가 날을 유인  
혀여 세가의 모라넛코 슈원 남문 밧긔셔 스는 정봉양의 아들을 밧들냐나 보고나

방즈 웃고 흐는 말이

넘너를 턱 바리고 드러 가만 보오

아모려도 의심 되니 네 몬져 압셔 드러가라

그리흐면 드러가다 슈쇄흔 후 나오리이다

다 슈쇄란 말이 웬 말이니 슈상흐고 밧낭흔 놈 흔가지로 드러가즈

저 방즈의 거동보쇼. 다든 문을 밧노 츅고 왈학 썸여 드러가며

이 익 춘향아 즈느냐 썸엿느냐 도련님 와 겨시니 밧비 나오너라

이썸 춘향이 분벽스창 구지 닛고 축하의 혼즈 안져 벽오동 거문고를 술상의 빗기 안  
고 즈탄즈가혀여 섬섬옥슈로 흘니 탈 제 디인난 디인난 흐니 계삼창야오경이라 팔잉동징  
팔잉동 흥청 출문망 출문망 흐니 청산은 만둥이오 녹슈 는 천회로다 팔잉당중 팔잉지렁  
당둥둥 청청 이러트시 기드릴 제

춘향어미 닛드라 방즈눔을 꾸지즈며

네가 향교 방직냐 밤중의 웨 와서 야단흐는다 밧길 년의 벳드리를 둘너 메고 나온 년  
석 곳트니 관속년석 썸을 츅아 보기 슬터라

방즈눔이 어히 업셔 춘향보고 흐는 말이

이 익 춘향아 이거시 병이로다 그 말을 너의 어머니다려 아니 흐엿나 보고나 여보 마  
노라 남의 말을 듯고 말을 흐시오 뉘 아드눔이 잘못흐엿나 드러보시오 지나간 장날 아츰  
의 칙방 도련님이 별안간의 광한누 구경가즈 흐기 되시고 갓더니 고뵈의 인슌이오 계란  
의 유골이오 기침의 직칙기오 마디의 웅이로 저 아희가 마조 뵈는 언덕의셔 그녀를 썸여  
도련님의 눈의 들킨지라 무어시냐 못기에 엇지흐나 보즈흐고 아기시라 흐다가 종시 괴일  
길 업셔 바른디로 흐엿더니 도련님이 밧치게 불너오라 흐시니 하인의 도리 거역지 못  
혀 불너다가 두리 만나보고 슈운 엉긔드시 엉그러져 둘이 다 홋니불을 빼 온갓 이삭 단  
니흐며 빅년긔약 언약흐고 오날 전녁 오마고 썸집의 산병 마최듯 스긔전의 종즈굽 마최  
듯 서로 밧최여 두고 날드려 흔가지로 가즈 흐시기로 되시고 온 일이지 뉘 제 할미홀 놈  
이 잘못흐엿소 그 웨 공연이 욱을 더럭더럭 흐여 가시오

춘향어미 이 말 듯고 날근 거시 별안간의 싱판전 흐는 말이

목쇼리를 드르니 네로고나 나는 넌 줄은 아지 못흐고 잘못흐엿다 즈라가는 아희드른  
몰나보게 되엿고나 노화 말라 너의 어머니흐고 나고 정동갑일다 이 익 춘향아 칙방 도련  
님 와 계시단다 밧비 나와 잘 되시라 이 곳의셔 힝낙흔들 어니 뉘가 괘시흐리

옥창의 유성터니 춘향이 영접 한다. 저 춘향의 거동보쇼. 치마꼬리 뷔여잡고 등문 밧  
긔 닛다라셔 반겨 마즈 드러갈 제 춘향어미 식를 부려 별안간의 찜작 놀나 흐는 말이

이거시 웬 일이오 만일 스또 아르시면 스람을 모도다 상흐랴고 이런 일도 흐단 말가  
어서 밧비 도라가오  
니도령 디답이 엇지된고 하회를 석남흐라  
세갑즈 하늬월 망간 필셔

○ 남원고스 권지이

화설 이썩 니도령이 춘향어미 거동 보고 니른 말이

일이 잇던지 업던지 아른 체 홀 비 아니니 녀녀 말고 그만 잇소

춘향어미 잔도리 치는 말이

임의 와 겨시니 말업시 단녀가오 공형으로 도라가면 제 마음도 썩썩홀 듯 흐고 도련님도 무류홀 듯 하니 슈어나 험다가 가시오 제가 실노 미물하여 친구 왕너 업습더니 도련님이 나와 계시니 잠간 노다가 드러가오

니도령의 거동보쇼. 춘향의 손목 드립더 덤석 마조 잡고 가슴이 도근도근 제두리썩가 식근식근 한 손으로 엇기 잡고 희 낙낙 드러갈 제 좌우편 삶해보니 집치레도 활홀하다.

딴문작 좌우편의 울지경덕 딴속보오 둥문에는 위징선싱 스면활작 늙흔 집을 입 구즈로 지었는디 상방 삼간 빵벽장의 협방 이간 딴청 늑간 월방 스간 부억 삼간 고왕 오간 둥집 스간 너외분합 물님퇴의 슬미살창 가로다지 구을도리 선즈 춘혀 바리밧침 부연 다라셔 땀시 잇게 지었는디 동편의는 고왕이오 서편의는 마구로다 양지에 방아 걸고 음지에 우물 파고 문전의 학중선싱 긴 버들 휘느러진 장송 광풍의 흥을 겨워 우습 춤을 추고 압쓸의 기를 노코 뒤쓸의 닭을 치고 딴 심어 울을 흐고 술 심어 정직로다 썩 심어 누에 치고 울 밋히 벌 안치고 울 밧기 원두 노코 썩 아리 연정 지어 죽정으로 면을 밧쳐 네모 반듯 꺾야는디 못 가온디 석가산을 일층 이층 삼스층의 절묘하게 무어 노코 비오리 빵빵 증경이 늙흔 딴접긋흔 금부어는 못 꺾온디 노니는디 온갖 화초 다 피엿다

동의는 벽오동 서의는 빅미화 남의 흥모란 북의는 금스오죽 한가하다 한가온디 황학녕 월계 스계 종녀 파초 즈약 영산홍 왜척죽 연포 도화 국화 미화를 여긋저긋 심어 두고 잉무 공작 청도 흰 빵 소식을 맞져두고 합환초 연니지의 비익도 다정하다 오동춘양 춘혀 마다 옥풍경을 다라시니 청풍 건듯 불적마다 잉그렁 징그렁 쇼리 요량하다 비치흔 것 도라보니 빅능화로 도비하고 당유지 굽도리의 청능화 썩를 썩고 동서남북 계견스호 문 우희 십당싱 지계문의 남극선웅 벽화를 붓쳐는디

동벽을 바라보니 송단의 상산스호 바독판을 둘러 안즈 흑빅이 난만하디 낙즈 정정 그려 잇고 늑녀화상 성진이 가 춘풍 석교상의 팔선녀를 만나보고 집허던 늑환당을 빅운간의 훗터지고 합당하여 뵈는 형상 녀녀히 그려 잇고

서벽을 바라보니 딴쳐스 도연명이 핑퉁녕 마다하고 빅학을 몬져 노코 오두미를 후리치고 추강산 비를 썩여 청풍명월 홀니 저어 쇼상으로 가는 경을 두렷시 그려 잇고 부춘산 엄즈릉이 간의티우 마다하고 빅구로 밧을 숨고 원학으로 이웃하여 동강상 칠니탄의 낙시딴를 더진 거동 상연이 그려 잇고

남벽을 바라보니 삼국풍진 요란하디 한중실 뉴황숙이 거 름 조흔 적노마를 두덕 구벽 밧비 모라 남양초당 풍설중의 와룡선싱 보려하고 지성으로 가는 경을 완연이 그려 잇고 시중턴즈 니티빅이 포도주를 취케 먹고 어선의 밧기 안즈 물밋히 밧썩 달을 스랑하여 잡으랴고 두 손목 물에 너흔 거동 선명하게 그려 잇고

북벽을 바라보니 위슈 어웅 강티공은 선팔십 궁곤하여 달샷갓 숙이 쓰고 삼십늑조 곳은 낙시 츠레로 드리오고 낙딴를 거두칠 제 잠든 빅구 놀나는 경 조딴상의 안긋다가 슈문왕을 만기 만나 안거스마 로 가는 경도 한가하게 그려 잇고

영천한슈 흐르는 물의 소부는 귀를 뵈고 허유는 귀 뵈슨 물 소 먹을가 쇠곡비를 거스리고 괴상으로 가는 경도 청아하게 그려 잇고 유상곡슈 귀거티스 죽님칠현 어초문답 만

경창과 세류강의 어변성룡 그려 잇고 면장에도 입술지쥬 칠월기망야의 소즈침이 적벽강의 범주하여 노는 경도 신기로이 그려 잇고 부벽서로 불작시면 왕즈안의 등왕각서 도연명의 귀거릭스 니티빅의 죽지스 쇼즈침의 적벽부 님춘서로 불작시면 원득삼산불노초하여 비현고당빅발친을 북귤은광은 회슈접이오 남산가괴계현영을 작소치봉함서지하니 금일턴 관스복니라

문작의는 국티민안 가급인족 문신호령 가금불상 문우희는 춘도문전증부귀라 귀머리가 지 붓쳐시니 만벽서화 더욱 조타 니도령 니른 말이

너가 우연이 든 장가가 빨고리의 닭이로다

춘향의 엇기 집고 덕청의 올라 방안으로 드러가니 침향늬도 황홀하다

방치레를 불작시면 각당장판의 당유지 굽도리 빅능화 도빅하고 쇼란반즈 혼턴도의 세간기명 불작시면 농장 봉장 제두리척상 갑계슈리 들미장 작기함농 반다지 면경 체경 왜경덕며 쇄금 들미 삼층장 계즈다리 옷거리며 농두머리 장북비 빵농 그린 빗접고비 벽상의 거리 노코 왜상 벼로집 화류셔안 교즈상 덕청의는 귀목두지 농충향과 칠박 귀박 두리박 학슬반 즈기반을 층층이 언저 노코 산유즈 즈리상의 선단뇨의 덕단니블 원앙금침 잣벼기를 반즈갓치 빠하 노코 은침갓튼 가즌 열쇠 주황스 썬을 다라 본돈 셋거 켜여달고 청동화로 전디야며 빅통 유경 늦축디 식별갓튼 요강 타구 짓셔리 등물 빵빵이 더져 노코 인물병 산슈병의 공작병도 둘너치고 오동복관 거문고를 식 줄 다라 세워두고 양금 신허금 당구 여긔저긔 노화 두고 녹목 팔목 빵늬 골픽 당기 바독 좌우의 버려 잇고 가즌 즈믄 세간 치레 황홀이도 버려고나 얼스 조홀시고

춘향의 거동보쇼. 농두머리 당북비를 섬섬옥슈로 나리워 이리저리 쓰리치고 흥전흔썰 썰쳐 깔고

도련님 이리 안즈시오

치마 압홀 비여 안고 은침갓튼 열쇠 늬여 금거북 잠을쇠를 썰걱 열고 각식 초 다 늬여올 제

평안도 성천초 강원도 금강초 전나도 진안초 양덕 삼 등초 다 늬여 노코 경기도 삼십 칠관중 남한산성초 혼 디 쪽 켜여 늬여 쫄물의 훌훌 썸어 왜간죽 부산디의 너홀지게 담아 들고 단순호치에 담썸 무려 청동화로 빅탄불의 잠간 덕혀 붓쳐늬여 치마꼬리 휘여다가 물썰리 써서 둘너 잡아 들고 나죽이 나아와

도련님 잡슈시오

니도령 황갑지갑 감지덕지 두손으로 바다들고 타락송아지 젓부리 무드시 덤석 물고 모기불 띄오드시 띄오면서 흐는 말이

만고영웅 호걸들도 술 업시는 무맛시라 여츠량야 이 노름의 술 업시는 못흐리니 술을 밧 비 가져오라

춘향이 상단이 불너 마노라님께 나가보라

이썸 춘향어미 스람의 썸을 썸히랴고 위선 주효진지 갓출 적의 팔모접은 디모반의 통영소반 안성유기 왜화기 당화기 산호반 순금전은 각식 기명 버려노코 가즌 술병 겹드렀다. 첩피괴옥 죽절병 엽낙금정 오동병 야화 그린 왜화병 금정슈복 당화병 조선 보화 천은병 중원 보화 뉴리병 벽희슈상 산호병 문치 조흔 디모병 목 긴 항식병 목 움초라진 즈라병

각식 술을 다 드렸다 도쳐스의 국화쥬 니한님의 포도쥬 산님 은스 죽엽쥬 마고선녀의 연엽쥬 안괴싱의 즈하쥬 감홍노 계당쥬 빅화쥬 두견쥬 니강고 죽녁고

안주상을 도라보니 덕양푼의 가리썸 쇼양푼의 제육초 양지머리 츄돌박이 어두봉미 노화 잇고 염통산적 양복기며 신설노의 전골이오 싱치다리 전체슈며 연계썸을 겹드리고 송강노어 꿩을 치고 각관포육 편포로다 문어 전복 봉삭이고 밀양 싱을 짝가 노코 함창 건시 접어 노코 청실늑며 황실늑며 뉴즈 석뉴 겹드리고 두 귀 발족 송편이며 보기 조흔 빅설기 먹기 조흔 쏠설기 맛 조흔 두텃썸 경첩흔 화전 산승 송기 조악 가즌 웃기 괴야노코 민강스탕 오화당 농안예지 당디초며 동정 금굴이 더욱 조타 청동화로 빅탄숯히 다리쇠를 거리 노코 평양숙통 징갑이의 능허쥬를 불한불열 더혀 노코 노즈작 잉무비의 그득부어들고 빅만교푼 권홀 적의

도련님 이 술 한 잔 잡슈시오

니도령 덕답헛디

술이란 거시 권쥬가 업시면 무맛시니 아모라도 그저는 못 먹으리라

춘향이 홀 일 업서 권쥬가 헛여 술 권홀 제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 잔 잡으시오 이 술 한 잔 잡으시면 슈부다남헛오리라 이 술이 술이 아니오라 한무데 승노반의 니술 바든 거시오니 쓰나 다나 잡으시오 인간영육 해아리니 묘창히지일속이라 술이나 먹고 노스이다 딴시황 한무데도 당싱불스 못헛여서 녀산무릉 송빅중의 일부황토 괴 아닌가 술만 먹고 노스이다. 인간칠십고리희라 칠순희낙 이 덧업도다 아니 놀고 무엇헛리 녹산포럼 걸슈라도 이 술 한 잔 스라실 적 분이로다 쏘출 썸거 슈를 노코 무진무궁 먹스이다 우리 흥번 도라가면 뉘라 흥 잔 먹즈헛리 종정옥 빅부족귀오 단원당취불원성 을 구십춘광일척발이 화하박슈창산기라 지상화기능기일이나 세상인간능기시오 술이나 먹고 노스이다. 작도화종금도화오 명도화락슈츄취라 화전인시 거년시오 거년인비금년쇠라 금일화기우일지헛니 명도늑관지시슈라 아니 취코 무슴헛리

니도령이 헛는 말이

손 덕접헛노라고 혼즈 슈고헛는고나 쉬염쉬염 밤식도록 흥진토록 놀고 노즈

부어 쥬는딴로 바다 먹고 혀바닥이 축축헛니 연헛여 십여빅를 천연이 밍음헛고 춘향드려 니른 말이

남아의 위방불입은 청 누를 일너지니 우리 두리 침익헛여 이러트시 노닐 적의 엇더헛 실업장의 아들놈이 덕님이헛여 드려와서 요간돌출 작난헛면 의관을 열파헛고 너 몸을 망신헛면 아닌 밤의 도망헛여 칙방으로 가려니와 아모라도 관심난다마는 쥬판지세 홀 일업다 앓가 고 쏴으로 가스 헛나 더 헛여라

춘향이 함소헛고 가스헛다.

빅구야 펄펄 나지 마라 너 잡을 너 아니로다 성상이 바리시니 너를 조츠 예 왓노라 오류춘광 경 조흔 덕 빅마금편 화류가즈 운심벽계 화홍류 록헛디 만학천봉비천식라 호중턴디 별건곤이 여기로다 고봉만당청계록헛디 녹죽창송이 놓기를 닷토왔다 명스십니 희당화는 다 띄여서 모진 광풍의 썸썸 썸러져 아조 펄펄 훗날니니 얼스 조타 경이로다

가스를 맞치미 니도령 니른 말이

청청소의 술 보고 못 먹으면 머리털이 센다 헛니 저 병 술도 먹어보즈

연헛여 부을 적의 니도령의 쥬량이 너른지라 무한 먹어준다

쏰쏰 부어라 풍풍 부어라 쉬지 말고 부어라 노지 말고 부어라 바스락 바스락 부어라 윈 병 의 치운 술이 뉴령이가 먹고 간지 반병일시 적실헛다 마즈 부어라 먹즈고나

양의 넘도록 흠석 먹어 노흐니 망세간지갑즈헛고 취호리지건곤이라 오장늑부 윈 빅속이 만경창과 오리 쓰듯 옥산이 즈도비인퇴라 무한 쥬정헛는 말이

네 인물도 묘커니와 가즌 직조 절승하니 너고 나고 텃정비필일시 정녕하다 너는 어이  
인제 나고 나는 어이 인제 낫노 정에 겨워 못 견디겠다 너는 너 짚노 정하리라

춘향이 웃고 대답하되

스람의게 삼강오륜이 분명하니 삼강의 부위부강이오 오륜의 부부유별이니 이거 시 무  
삼 말씀이오

아셔라 물너거라 세상의 스람 되고 삼강오륜 모를쇼냐 서울은 한강이오 평양 덕동강  
공쥬 금강이 삼강이라 일넷고 서울 벼슬에 한성부 판윤 좌윤 우윤 경상도 경쥬 부윤 평  
안도 의쥬 부윤 이거시 오륜이니 너 엇지 모를쇼냐 너 쫄 되기 원통커든 너가 네 아들이  
되갓고나

횡설수설 주언부언하여 온 가지로 힐난타가 눈을 드러 거문고 세운 거슬 보고 니른  
말이

저 웃둑 섰는 거시 빠기질군이나

대답하되

스람이 아니라 거문고오

거문고라 하니 웃칠흔 괴냐 먹칠흔 괴냐

거문 거시 아니라 타는 거시오

타는 거시라 하니 잘 타면 하로 몇 니나 가느냐

그러케 타는 거시 아니라 쓰는 거시오

종일 잘 쓰드면 몇 조각이나 쓰느니

그러케 쓰는 거시 아니라 손으로 줄을 희롱하면 풍뉴쇼리 난다 하오

정녕이 그러하면 한번 드를만하구나

춘향의 거동보쇼. 칠현금 나리워 슬상의 노코 손을 썩혀 줄 고르고 섬섬옥슈로 덕현을  
타니 노룡의 쇼리오 소현을 타니 청학의 우름이라 팔잉동흥청청 이러트시 타며 노리 켜  
거 부르니 그 노리에 하여시되

인간이 쇼쇄커늘 세스를 빠리치고 흥 진망 썩여나서 정처업슨 이니 몸이 산이야 구름  
이야 천니만니 드러가니 천회벽계와 만첩운산은 가지록 식롭고나 층암절벽의 구분 늙은  
당송 청풍에 흥을 겨워 날 보고 우쭈우쭈 구룡소 늙은 룡이 여의쥬를 엇노라고 구뵤를  
반만 너여 벽파슈를 뒤치는 듯 현이표도는 구름의 연하엿고 녹림홍화는 춘풍의 분별 잇  
고 조화의 교탁 겨워 간디마다 구십소광 자랑하니 운림만경 즐거오미 괴지업다 무정세월  
은 물 흐르듯 흐느고나 산중의 드러오니 날 츠츠 리 뉘 이시리 어화 즐겁고나 이 거시  
어디넨고 청풍명월은 갑슬 쥬라 스랴마는 날과 유정흔지 간디마다 좇니는가 넷 스람 니  
른 말이 퍽불쳐인이면 언득지라 하니 식거한쳐를 이곳지야 홀디로다 밭서 못 온 줄을 금  
일이야 씨닷패라 이왕을 불간하고 당너를 가축하즈 손홍공의 산쥬부를 목너여 맑게 읊고  
이제야 허리 퍼즈 이 아니 즐거오냐 너 몸을 지하리라 일간초옥을 암혈의 엮어미여 구름  
덥혀 더져두고 청산은 스벽이오 빅운은 기초로다 돌솟히 밥을 짓고 단이의 칩지하니 이  
리와 한가키도 역턴지명이로다 산둥의 드러안즈 일월이 하 오리니 금턴즈성테는 아뢰곤  
줄 너 몰너라 화기로 지룬하고 엽낙으로 지쥬로다 산중의 칩녀 업서 절 가는 줄 너 몰너  
라 망세간지갑하즈 취호리지건곤하즈 토상의 면폭하니 현 누비 너 분이오 와준의 천감  
하니 두죽이 식로왜라 마의 초좌하니 일신이 안정하다 모첩의 듀정하고 계슈의 풍청이라  
갈건포의로 청녀당 힘을 숨아 유흥을 못 니기여 송하의 구분 길노 양공당소하여 임의로  
도라가서 청산 어니 골의 석경으로 도라오니 단이만첩의 청풍이 진을 하고 검각천니 에

빅운이 깃허도다 지는 히 여른 빗치 서왕모 요덕상의 산슈병 들너는 듯 프르거든 회지  
 말고 회거든 불지 마쇼 프른 거슨 청산이오 흰 거슨 빅운이오 붉은 거슨 낙도로다 송목  
 의 지혀서서 원산을 바라보니 거문고 가진 아히 주괴를 늦게 메고 구름 속의 날 츠즈 니  
 적송즈 오단말가 림화정이 아니면 소부와 허유로다 이 밧기 제 뉘 와서 날 츠즈리 머리  
 를 두루혀서 술 속으로 여허 보니 산중의 늙은 어른 오건을 젓게 쓰고 청의 님은 아희드  
 리 압뒤로 돌너 서서 잡거니 밀거니 두세번지 오는 고나 석단의 마조 나와 팔미러 읊레  
 하고 술가지 손조 썩거 청티를 뿌리치고 년츠로 안츠면서 깃기는 듯 반기는 듯 즐거오미  
 기지업다 와준의 소요주를 박잔의 가득 부어 잡거니 권허거니 취토록 먹은 후의 령령칠  
 현금을 정중의서 드리이니 의의흔 산슈곡을 녀녀히 알니로다 인간의 먹은 귀가 오날이야  
 녀녀고나 어와 지괴로다 종괴를 괴우히니 주유슈이하참하라 산중의 뜻이 깃허 세스를 니  
 저시니 고량의 여원 술이 취줄기의 다 지거다 단익의 월빅하고 계슈의 풍청 하니 빅운심  
 처의 즈논 학 슬피 운다 텃고지형하니 각우주지무궁이오 흥진비리하니 식영허지유슈로다  
 예도 조커니와 쏘 조흔 티 잇느니라 괴약하고 가스이다 봉너 방당 영주산에 모리로 가스  
 이다 곤륜산 북녀희 서왕모 찻습기 란하파로 가스이다 당공 구만니란 거북 타고 가스이  
 다 망망우주간의 정쳐업시 바린 몸이 취하여 공산의 지니 텃지가 화당이오 송빅이 금침  
 이로다 두어라 만학산두의 주인될가 호노미라

타기를 마츠미 니도령이 흥을 너여 호는 말이

너 혼즈 노리하니 나는 듯기 조커 니와 울며 부르는 경성쇼리 너도 더러 드러보라 천  
 즈푸리 호마

즈시에 싱턴하여 광티무스부하니 호호탕탕 하늘 텃 특시에 싱디하여 오형을 맛타이서  
 만물창싱 썩 디 춘풍세우 호시절의 현도남남 감을 현 금목슈화토 오형 중의 중궁을 맛타  
 시니 토지정식 누루 황 금풍삽이석괴하니 옥우정영 집 우 안득광한천만간의 살기 조흔  
 집 주 구년지슈 어이 호리 하우턴디 넘블 흥 세상만스 밋지 마라 황당하다 거출 황 요간  
 부상삼빅척의 번듯 도드니 날 일 일낙함디 날 저물고 월 출동녕 달 월 동원도리편시춘의  
 낙화분분 출 영 미식 불너 술 부어라 넘쳐간다 기울 칙 하도낙서 잠간 보고 일월성신 별  
 진 원앙침 비취금의 월적 벗고 잘 숙 냥각 번듯 츠혀 들고 스양 말고 벌 열 두 손목 덤  
 석 마조 잡고 온갖 정담 베풀 당 설만궁향 어너 썩나 덕한 쇼한 찰 한 어화 그날 참도  
 찰스 어서 오느라 올 너 동지썩달 차다 마쇼 녹월넘턴 더울 셔 정든 님이 언제 오리 괴  
 약 두고 갈 왕 금풍이 소슬흔디 엽낙오동 가을 츠 님이 손슈 지은 농스 뉘 손 덕여 거들  
 슈 춘하츄동 다 보니고 낙목 한턴 겨으 동 그리는 님 언제 올고 온갖 의복 감출 장 관산  
 원노 망견하니 천니만니 나물 여 이 몸 훨훨 나라가서 천스만스 일울 성 춘하츄절 다 보  
 니고 송구영신 히 세 안히 밧기 못호느니 덕전통편 법즉 올 네 빅 트고 선유홀 제 두 귀  
 잡고 법즉 너 나 부는 싱황 쇼리 거문고로 화답하라 두리 서로 노는 거동 세상의 장관이  
 라

춘향이 니른 말이

그 노리 듯지 못하던 노리요 쏘 무슨 쇼리 호라호오

노리 말고 벌 희한흔 쇼리 호디 아조 이상흔 십상쇼리 호마 그칠 제마다 거문고로 녹  
 게 맛초와 주면 잘 호 러니와 그러치 아니하면 호다가도 그만두느니라

그거시 무슨 쇼리오

다른 쇼리 아니라 넷적 문당 영웅 호걸 통신 열스 일식드를 모도 모아 바리가호는 쇼  
 리라

참으로 듯지 못하던 별 쇼리오 어서 호오 듯스이다

니도령이 바리가 혼다

황성의 허도벽산월이오 고목이 진입창오운이라 호던 니티빅으로 혼 싹 치고 삼년적니  
관산월이오 만국병전초목풍이라 호던 두즈미로 혼 싹 치고 낙하는 여고목제비호고 추슈  
는 공당턴일식이라 호던 왕즈안으로 웃짐 쳐서 빅노는 횡강호고 슈광은 접턴이라 호던  
소동파로 말 물녀라 동덩 좌무슈이 종일호고 탁청턴이 즈결이라 호던 한퇴지로 혼 싹 치  
고 심입악양인불식호니 낭음비과동정호라 호던 녀동빈으로 혼 싹 치고 유상곡슈의 혜풍  
이 화창이라 호던 왕희지로 웃짐 쳐서 부광은 약금호고 정녕은 침벽이라 호던 범중엄으  
로 말 물녀라 동덩 어양비는 동지너호니 경파예상우의곡이라 호던 빅낙천으로 혼 꼭 치  
고 분슈탈상증호니 평싱일편심이라 호던 밍호연으로 혼 꼭 치고 청산슈첩의 벽계일곡이  
라 호던 도연명으로 웃짐 쳐서 통만고지득실호고 감데왕지흥망이라 호던 스마천으로 말  
물녀라 동덩 위천어부로서 주천팔빅년 괴업을 창기호던 강티공으로 혼 꼭 치고 운주유악  
지증호여 결승천니지의호던 당즈방으로 혼 꼭 치고 티몽을 슈선각고 평싱을 아즈지라 호  
던 제갈공명으로 웃짐 쳐서 빅일공스는 니양의 일조오 연환묘산은 적벽의 슈공이라 와룡  
으로 제명호던 방스원으로 말 물녀라 동덩 농성오치 망기호고 옥결을 즈로 드던 범아부  
로 혼 꼭 치고 빅 등의 희위호고 녹출 기계호던 딘평으로 혼 꼭 치고 팔십일주 슈륙군  
딘도독으로 적벽오병호던 주공근으로 웃짐 쳐서 강남의 기가 불너 금능으로 도라드던 도  
빈으로 말 물녀라 빅슈변정의 탕소요진호던 마원으로 혼 꼭 치고 광초구군호여 망스보국  
호던 괴신으로 혼 꼭 치고 미보국은호고 공스절의호던 당슌으로 웃짐 쳐서 신스슈절호여  
통관빅일호던 허원으로 말 물녀라 동덩 영빅만지스호여 전필승 공필취호던 한신으로 혼  
꼭 치고 두발이 양지호고 목지진열호던 변쾌로 혼 꼭 치고 남궁운딘 에 중홍공신 이십팔  
당둥 제일공 되던 등우로 웃짐 쳐서 통의정성이 양관빅일호던 괄즈의로 말 물녀라 동덩  
발산너지세기는 초픽왕의 버금이오 추상절널일통은 오즈서의 우희로다 봉금괘인호고 독  
형천니호읍시던 관공으로 혼 꼭 치고 장관괴상의 퇴병빅만호던 당익덕으로 혼 꼭 치고  
당판파구아두의 일신이 도시담이라 호던 도즈룡으로 웃짐 쳐서 서량명당으로 보전녹당호  
던 마링기로 말 물녀라 동덩 오호의 편주 타고 범소빅 썩라가던 서시로 혼 꼭 치고 회두  
일소빅 미싱의 녹궁분딘무안식이라 호던 양옥진으로 혼 꼭 치고 만월영옥장하의 추파의  
눈물지던 우미인으로 웃짐 쳐서 영웅의 당쳐근지를 일도의 이간호던 초선으로 말 물녀라  
동덩 스마상여 봉황곡의 썩다라 드러가던 정경파로 한 꼭 치고 춘심궁익빅화변호딘 영작  
이 비티보희언이라 호던 니소하로 혼 꼭 치고 안소부딘남비거호니 삼오성의정지동이라  
호던 진치봉으로 웃짐 쳐서 위주충심은 보보상주부잠식라 위선위귀호던 가춘운으로 말  
물녀라 동덩 월둥단계를 슈선 절이나 금딘문당즈유인이라 읊던 계섬월노 혼 꼭 치고 하  
북명창으로 삼절식천명호던 적경홍으로 혼 꼭 치고 복파영둥의 월영이 정류호고 옥문관  
외의 춘식이 이회라 호던 심요연으로 웃짐 쳐서 청슈담의 슈절호여 음곡의 싱춘이라 호  
던 빅능파로 말 물녀라 동덩 동정 추월긋고 녹파 부용긋호 춘향으로 혼 꼭 치고 낙양과  
직 풍뉴호스 니도령으로 한 꼭 치고 종기를 괴우호니 주류슈이하참호던 거문고로 웃짐  
쳐서 화란춘성의 만화방창홀 제 월 하승 되던 방즈놈으로 말 물녀라 동덩 동덩실 얼스  
도홀시고

이 익 춘향아

여츠량야의 불음은 하오

남은 술 잇거든 마즈 부어라

춘향이 덕답히덕

약주는 부으려니와 그 쇼릭 참 별 쇼릭오 하나만 더호오

니도령이 쏘 덕즈 운 다라 쇼릭한다. 땡냥히게 호것다.

세상 스람 삼겨나서 덕 업시는 못히리라 천황시 목덕이오 지황시 화덕이오 인황시 슈  
덕이오 교인화식 슈인시덕 용병간과 현원시덕 상빅초는 신통시덕 착산통도 하우시덕 시  
획팔과 복희시덕 당티중의 울지경덕 서량 명당 방덕이오 삼국 명당 당익덕 활달 덕도 뉴  
현덕 난세 간웅 도밍덕 우순풍조 하느님 덕 국티민안 님군의 덕 봉우유신 벗의 덕 말년  
영화 즈손의 덕 몸슬 놈의 비은망덕 좌편놈의 흠의덕 우편 놈의 원두덕 단단흔 목덕이오  
물녕물녕흔 썩덕 이 덕 저 덕 다 후루치고 벌덕벌덕 먹으리라

스오 비를 거후르고 취흥이 도도히여 춘향의 가는 허리 허험벅 트러안고 입 혼 번 쪽  
등 혼 번 등덩

어허 어허 닉 스랑이야 아마도 네로고나 월침침 야습경의 어서 벗고 잠을 자즈 다정  
히니 쌍홍합이오 유의히니 냥각기라 동 요는 유아스녀니와 심천은 임군지라 족무습경월  
이오 금싱일진풍이라 낙월은 공산숙이오 한계는 노슈정이라 하상견지만만야오 니빅이여  
이로 동스생을 춘몽이 다정커든 양왕운우 불월쇼냐 그는 그러히거니와 야심인적히고 만  
뇌구적히니 놀기는 닉일이 닉무진이라 어서 벗고 잠을 자즈

춘향이 거문고를 물니치고 적무인 임중문의 분벽스창 고요하다 원앙금침 잣버기를 축  
하의 포설히고 설부화용 드러히여 춘정을 즈아히니 아릿답고 징그럽다

도련님 문져 버스시오

나 문져 버스 후의 너 는 아니 버스랴나 보다 잡말 말고 너부터 버셔라

춘향이 문져 버스 후의 니도령도 마즈 벗고 에후루쳐 허험석 안고 두 몸이 혼 몸 되  
엮고나.

네 몸이 닉 몸이오 네 살이 닉 살이라 호탕히고 무루 녹아 녀산폭포의 돌 구으듯 데  
굴데굴 구을면서 비점가로 화답한다

우리 두리 맞나시니 만날 봉즈 비점이오 빅년가약 미즈시니 미질 결즈 비점이오 우리  
두리 누어시니 누을 와즈 비점이오 우리 두리 버셔시니 버슬 탈즈 비점이오 우리 두리  
덥히시니 덥힐 부즈 비점이오 금일침상 즐겨시니 즐길 낙즈 비점이오 우리 두리 입 맛초  
니 법즈 녀즈 비점이오 우리 두리 빅 다히니 빅 복즈가 비점이오 네 아티 구버보니 오목  
요즈 비점이오 닉 아티 구버보니 닉밀 철즈 비점이오 두 몸이 혼 몸 되니 모들 합즈 비  
점이오 나아갈 진 물너갈 퇴즈 줄 빈즈 비점이오 조홀 호즈 실 산즈 물 슈즈 다 비점이  
라

이러트시 농창히니 남티문이 계궁기오 인정이 미방울이오 선혜청이 오 훈이오 호조가  
셔 훈이오 하늘이 돈짜만히고 썩히 미암돈다 취흔 흥을 니기지 못히여 춘향드려 호는 말  
이

우리 두리 인연이 지똥히여 이러트시 만나 시니 인즈타령 히여보즈

인즈를 다라 땡냥이도 호는고나

님하하중견일인 월명고루유여인 금일번성이고인 비입궁당불견인 천니타향봉고인 양뉴  
청청도슈인 불견낙교인 풍설야귀인 귀인 명인 병인 절인 노인 쇼인 등 인으로 인연히여  
냥인이 혼인히니 증인되니 즐겁기도 괴지업다

춘향이 니른 말이

도련님은 인즈를 다라시니 나는 연즈를 다라 보스이다

호고 연즈를 다라시니

우락중분미빅년 호괴당구오륙년 인노증무깁소년 빵빈명도우일년 적막강산금빅년 함양  
유협다쇼년 경세우경년 한진부지년 일년 십년 빅년 천년 거년 금년 우리 두리 우연이 결  
연호여 빅년을 인연호니 빅년이 천년이라

니도령이 듯고 호는 말이

이 익 네 쇼릭 참 별 쇼리로다

호며 두리 이러트시 이삭단니호고 노더니 효계창효호고 성두이경이라 금침을 추혀 덩  
고 원앙이 녹슈의 노듯 봉황이 연니지의 길드리듯 날 곳 식 먼 칙방이오 히 곳 지면 도  
라와서 가금으로 달야호고 주식으로 연낙홀 제 닉관의 처가 출입호듯 저의 집 건넌방 왕  
닉호듯 길을 아라 단니면서 무한 농창 호광혼다 냥인이 서로 만나 곳 보면 녹슈의 원앙  
이오 화간의 접무로다 춘화류 하청풍 추월명 동설경의 아모도 업시 단 두리 만나 놀 제  
회두일소빅미싱이라 빅화명월도 무안식일다 빅만교티 웃는 모양 우음 속의 쫓치 띄고 단  
순호치 슈작홀 제 말 가온디 향닉난다 안거라 보즈 서거라 보즈 유리긋흔 각장당판의 고  
은 발은 외씨 긋 다 삼분 회썩 거러올 제 회목단죽 치랑이면 제가 절노 안기인다 안고  
썰고 존저리치고 몸서리치고 소름 듯칠 제 인간지낙이 이 분인가 호노미라 부지광음약뉴  
슈라

이러트시 노니더니 흥진비릭호고 호스다마는 즈고상식라 녹니광음이 물 흐르듯 지나  
가니 슈삼 춘추 되엿고나

남원부스 치민선정으로 묘당이 공논호여 공묘참의 승차호니 승일상닉 올라갈 제

니도령의 거동보쇼. 불의금즈 당흔 일이 마른 하늘 급흔 비의 된벼락이 나리는 듯 모  
진 광풍의 시석이 날니는 듯 정신이 어즐호고 마음이 쓸는듯호여 죽을밧기 홀 일 업다.  
두 주먹을 불근 쥐여 가슴을 쿵쿵 두드리며 이를 어이 호즌 말고 옥 긋흔 나의 춘향 싱  
니별을 호단 말가 스람 못 술 시운이라 닉직승츠는 무슴 일고 공묘참의 호지 말고 이 고  
을 좌슈로나 주저안저더면 닉게는 퇴판 조홀 거술 익고 이를 엇지홀고 가슴 답답 나 죽  
깃다.

허동지동 춘향의 집 츠즈가니 저는 아직 몰나고나 반겨 왈학 닉다르며 드립더 허리를  
덤석 안고 칠보잠의 금나뽀 긋치 일신을 바드드 썩는고나

니도령의 거동보쇼. 슈심이 첩첩호여 함비낙누 호는 말이

말을 호랴 호니 괴가 막혀 죽기엿다 네가 나지를 마라거나 닉가 너를 몰나거나 부지  
다언호고 죽을밧기 홀 일 업다

춘향이 움죽 놀나 못는 말이

이거시 무슴 말숨이오 어제날 나오실 제 회식이 만면호여 날을 보고 반기실 제 회당  
화의 범나뽀 긋치 너홀너홀 노르시더니 오날은 별안간의 슈식이 만안호고 말숨조츠 이리  
밍냥하오 안전의 꾸중을 무로왓소 몸이 어디가 불평호오 엇지흔 곡절인지 츠셔히 아옵시  
다

니도령 울며 되답호되

썩러젓단다 썩러져

춘향이 놀나 되답호되

어디가 낙성을 호엿단 말이오 그라셔 되단이나 닳치지 아니호엿쇼

뉘 아들놈이 닉가 썩러젓다드냐 어루신닉가 골앗단다 골아

익고 골다니 스쫓 같니셨나 보오

그러탄다

그리오

이고 그리면 웨 울기는 더 조치오 너직으로 조흔 벼슬 승츠하시거나 외직으로 호읍셔  
도 광나쥬 목스 곱튼 것 영변영유 곱튼 디로 가시면 작히 조홀가 나눈 너 세간 다 가지  
고 샷갓가마 타고 도련님 뒤홀 썩라가지오

니도령이 두 스미로 낫출 뵈고 목이 메여 호는 말이

잘 썩라오느라 잘 썩라와 그리홀 터 곱하면 뉘 아들놈이 괴탄하라

춘향 의 거동보쇼. 실식하여 호는 말이

이고 이 말이 웬 말이오 니별말이 웬 말이오

섬섬옥슈 불근 쥐여 분통곶튼 제 가슴을 범고중의 범고 치듯 아조 황황 두드리며 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습단곶흔 제 머리를 홍제원 나무장스 잔썩불희 쫓듯 바드덩 바드덩  
쥐여쓰드며

이고 이고 설운지고 죽을밧기 홀 일 업니 날 속이라고 이리호나 조를라고 괴롱호나  
깁슈건을 글너니여 호 썩츠란 남게 밧고 썩 호 쓰츠란 목에 밧고 썩 썩러져 죽고지고 청  
청소의 풍덩 썩져 세상을 잇고지고 아모려도 못 슬기네 잡말 말고 나도 가옵시다. 썩썩  
프드덕 장끼 갈 제 아로롱 갓토리 썩라가듯 녹슈 갈 제 원앙 가고 청슈피 갈 제 씨암닭  
가고 청기고리 갈 제 실비암 가고 운중농 풍중호호고 구름 갈 제 비 가고 바늘 갈 제 실  
이 가고 봉이 갈 제 황이 가고 송별낭군 도련님 갈 제 청춘쇼첩 나도 가세 빵교는 과호  
니 말고 독교는 슬호니 말고 가마를 꾸미되 가마썩지는 왜쥬홍칠호고 가마썩경은 궁초로  
뵈고 가마청장디는 먹감나무로 호고 가마발은 순담양 드러가셔 왕디를 버혀다가 철궁기  
썩바니여 당쥬홍칠하여 식 고은 청면스로 거북문으로 엮어니여 당말익실노 금전지 달 고  
휘당은 빅설이 풀풀 훗날닐 제 돈피로 두르고 가마엮기는 싱면쥬로 치고 가마치고는 놈  
이라도 썩뒤는 세 썩이오 현거흔 건장흔 놈으로 조흔 전넙 천은영즈 넙은 썩을 다라 쓰  
고 외울망건 당스썩의 적디모 골회관즈 냥귀 밧히 썩 붓치고 즈지슈 한단절구 통적고리  
톤면쥬 당바지 습승으로 물겉웃 지어 압즈락을 제쳐다가 뒤호로 밧고 삼승보선에 조희총  
메토리 낙복지로 곱거러 들메이고 팔디의 힘을 울너 곱거두어 뒤치를 썩놀 적의 월으렁  
썩청 것논 말게 반부담하여 썩덩 그러케 날 드러가오 그럴 터이 못 되거든 다 홀적 썩더  
리고 녀복을 호지 말고 남복을 호되 보라동웃 당바지의 다님 밧고 횡전 치고 갈미를 짓  
게 드러 긴 옷술 지어 넙고 머리 썩하 궁초당기 석우황의 뒤호로 출녕 느리치고 당츠런  
썩를 썩고 겹웃즈락을 겹어다가 어숙비숙 썩즌 후의 두 푼즈리 쇠썩집신 단단이 들멘 후  
의 올흔손으로 치를 들고 왼손으로 것마 드러 도련님 올라가실 적의 나귀 것마나 들고  
가세

니도령 니른 말이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제발 덕분 우지 마라 네 우름 쇼릭 당부의 일촌 간당이 다 녹는  
다 이리 익를

쓰고 엇지호리 널낭 죽어 물이 되되 텃샹의 은하슈 디하의 폭포슈 동희슈 서희슈 일디  
당강슈 다 후루쳐 더져 두고 음양슈란 물이 되고 날낭 죽어 식가 되여도 난봉공작 두견  
접동 다 후루쳐 더져 두고 원앙도란 식가 되여 그 식가 그 물을 보고 반겨라고 풍덩실  
썩져 잇셔 듀야당턴 헤지 말고 어화동실 썩 잇고져 그러치 못호거든 널낭 죽어 방아학이  
되고 날낭 죽어 방아공이 되여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강틱공의 조작쳐로 스시당  
턴 불계호고 썩구덩 썩엿고져 그러치 못호거든 널낭 죽어 암돌적귀 되 고 날낭 죽어 썩

돌적귀 되어 분벽스창 열 제마다 제 궁계 제 쇠가 박혀 춘하추동 스시 업시 싸드덕 싸드  
 덕 흐얏고져 그러치 못흐거든 널낭 죽어 강능 삼척 드러가서 오리목 되어 서고 날낭 죽  
 어 삼스월 늙너출 되어 한업시 버러갈 제 즈 닻 마른 닻 갈회지 말고 들 건너 벌 건너  
 서부령섭적 건너가서 그 나무 밋브터 쫓가지 휘추리마다 낙거의 나뭇 감듯 외오 풀쳐 올  
 우 감고 올우 풀쳐 외오 감아 나무 쫓쫓드리 휘휘춘춘 감겨 잇서 삼춘이 다 진토록 써나  
 스지 마즈터니 인간에 일이 만코 조물조춘 식음발나 신정이 미흡 혼디 익달를손 니별이  
 야 만금궂흔 너를 만나 빅년히로 흐짖더니 금일 니별 어이 흐리 너를 두고 가즌 말가 나  
 는 아마도 못 살깃다 너 마음의논 어루신너 공도참의 승춘 말고 이 고을 풍헌만 흐시더  
 면 이런 니별 아닐 거슬 싱눈 나을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 흐짖 말고 귀신이 회를 짓고  
 조물이 식기흐니 놀을 한탄흐즈느니 속절 춘향 바히 업다 네 말이 다 못될 말이니 아모  
 커나 잘 잇거라

춘향이 답하되

우리 당초 광한누셔 만날 적의 너가 몬져 도련님드려 스즈 흐얏소 도련님이 몬져 날  
 드려 흐신 말씀 다 니져 계시오 이 런 일이 잇깃기로 당초 마다아니흐엿소 우리 당년 금  
 석상약 오늘날의 다 허시오세 이리구려 분명 못 다려가기쇼 진정 못 다려가깃소 쓰게질  
 노 이리 흐오 종너 아니 다려가시랴 흐오 정 아니 다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그러  
 치 아니면 광한누셔 날 호리랴고 명문하여 준 것 이시니 쇼지 지어 가지고 본관 원님께  
 이 스연으로 원정 빅활흐깃소 원님이 만일 당신의 귀공주 역슬 드러 낙송시기거든 그 소  
 지 첩년하여 원정 지어 가지고 전쥬감영 올라가서 순스또게 의송하면 도련님은 낭반인  
 고로 편지 흐 당만 붓치면 순스또라도 동시 낭반편을 드러 또 날을 낙송시기거든 그 제  
 스 또 첩년하여 가지고 한양성등 드러가서 형한낭스 비국가지 정흐오면 도련님은 스티우  
 로 좌청우축 결년 잇서 또 송스를 지우거든 그 제스 모도 첩련하여 쫓쫓 마라 품의 품고  
 팔만당안 억만가호로 촌촌결식 단니다가 돈 흐 품식 비러 어더 동의전의 드러가서 바리  
 쑤에 흐나 스고 지전으로 드러가서 장지 흐 당 스가지고 언문으로 상언쁘되 심등의 먹은  
 썬을 세세 성문하여가지고 이월이나 팔월이나 동교로나 서교로나 능형거동하실 썬에 문  
 밧그로 니다라셔 만인 총등 셋겨다가 놓디기 지나치고 험년 자기창 드러서고 홍낭산이  
 써나오며 가교의나 마상의나 헌거로이 지나실 제 왈학 썬여 니다라셔 바리쑤에 손의 들  
 고 눕히 드러 썬썬 흐고 세 번만 쳐서 걱정가지흐오리다 익고 익고 설운지고 그리하  
 여 또 못 되거든 익빠 말나 초조하여 죽은 후의 녀시라도 삼슈갑산 제비 되어 도련님 계신  
 첩하 기슭에 집을 종종 지어두고 밤등만 집으로 드는 체하고 도련님 품으로 드러볼가 니  
 별말이 웬 말이오 니별 니즈 너든 스람 날과 빅년 원슈로다 진시황 분시셔홀 제 니별 두  
 즈 이젓던가 그 썬에나 살나더면 이 니별이 이실쇼냐 방낭스중 쓰고 남은 털퇴 텃하장스  
 향우 주어 힘가지 두려 메여 썬치고져 니별 두 즈 영소보던에 소스 올라 옥황상데기 빅  
 활하여 별락상좌 나리와셔 썬리과져 니별 두 즈 호지의 모즈 니별 남북의 군신 니별 정  
 노의 부부 니별 운산의 봉우 니별 니정의 엽정비하니 형데 니별 스라 싱니별 죽어 영니  
 별 이 니별 저 니별 니별마다 썬거마는 이 니별은 싱초목의 불이 붓너 스랑도 처음이오  
 니별도 처음이라 옥당이 바아지고 금심이 녹아온다 익고 답답 설운지고 이를 엇지 흐짖  
 말고

니도령 니른 말이

업다 춘향아 말 듯거라 익고 춘향아 말 듯거라 모든 간장이 다 녹는다 일시 니별 썬  
 거먹는 언마 되리 두고가는 나의 모양 어이구려 그음흐리 혼가지로 갈 먹음이 불현드시

잇것마는 경성으로 올라가면 긴치 아닌 친척드리 공연스레 공논호되 아회놈이 작첩호여  
학업 전폐혼다 호고 호적밧기 도리광이홀 거시니 여츠 고로 쫓과 갓지 못호고나 잘슨 참  
아 슈삼년만 견디여라 밤낫으로 공부호여 입신양명호 연후의 너를 츠즈 올 거시니 부디  
부디 잘 잇거라 구구팔십 일광노는 녀동빈을 썩 라가고 팔구칠십 니적선은 칙석강에 완  
월호고 칠구육십 삼노공은 한티조를 츠세호고 육구오십 스호선싱 상산의셔 바둑 두고 오  
구스십 오즈셔는 동문의 눈을 걸고 스구삼십 육손이는 팔진도의 빗혀 잇고 습구이십 칠  
성단의 제갈제풍 호엿 잇고 이구십 팔선녀는 성진이가 희롱호고 일구 굴원이는 떡나슈의  
빳져시니 너도 녀녀 되라거든 삼강슈의나 썩지여라 너 말을낭 다시 마라 당부일언이 등  
천금이라 텃지기벽호고 산천이 졸변호들 금석긋튼 너 마음이 현마 너를 니즐소나

춘향이 홀 일 업서 니별쥬 부어 들고 눈물 흘녀 권홀 적의

도련님 말이 그러호니 호 번만 더 속아보옵시다 날 싱각은 아조 말고 글공부나 힘써  
하여 쇼년등과호신 후의 부당의 영화 뵈고 요요숙녀 비합호고 성군 맛나 일신 영귀호신  
후의 그적의나 잇지 마오 필운쇼격 탕춘디와 낭한강정 경 조흔 디 비반이 낭즈호고 풍악  
이 능능호디 유정친구 절디가인 일슈고인 명창드리 구름긋치 웅위호여 주야잠심 노닐 적  
의 이 술 호 잔 싱각호오 익고 설운지고 썩날 리즈 슬허 마오 보닐 송즈 나도 잇고 보닐  
송즈 슬허 마라 도라갈 귀즈 어이 호리 도라갈 귀즈 슬허 마오 슬플 익즈 익연호오

슬플 익즈 슬허 마라 옥긋튼 너를 두고 경성으로 올라가서 적막강산 홀노 안즈 싱각  
스즈 어이호리

춘향이 츠아 손을 난호지 못호고 익연호를 니끼지 못호여 왈

도련님이 이제 가시면 언제나 오시라 호오 틈산중악만강봉이 모진 광풍의 찢히지거든  
오라시오 괴암절벽천층석이 눈비 마즈 석어지거든 오라시오 농마 갈기 두 스이의 썩 나  
거든 오라시오 십니스당 세모리가 정맛거든 오라시오 금강산 상양봉이 물 미러 비가 등  
등 썩여 평지 되거든 오라시오 병풍의 그린 황계 두 나릿를 등딩 치고 스오경 느즌 후이  
날 식라고 꼬찌요 울거든 오라시오 층암절벽의 진쥬 심어 썩 나거든 오라시오 아모려도  
못 뉿잇네 함경도로 드리가서 마운령 마천령 함관령을 다 썩다가 도련님 가시는 길을 막  
으 노호면 가다가 못 가고 도로 오시게 홀 거시오 그러치 못호거든 울산바다 나쥬목 안  
흥목 손돌목 강화목 바다를 모도 다 휘여다가 도련님 가시는 길의 가로져 노코 일엽선도  
업시호면 가다가도 못 가고 도로 오시게 호오리다 익고 익고 설운지고 이 니별을 엿지홀  
고 두고가는 도련님은 설옹남관의 마부전 썩이어니와 보너지 잇는 너 마음은 방초년년의  
한무궁이오 환절세세의 슈난설이라 엿지 견디여 살나호오

니도령 위로호디

너모 슬허 우지 마라 당부 간장이 다 녹는다 방즈 불너 칙방의 도라가셔 디 호 분 가  
져다가 나의 춘향 쥬어다고 오동야우 잠썩 후와 호접춘풍 긴긴 밤의 날 싱각나거들낭 날  
본드시 두고 보라

춘향이 니른 말이

빅초를 다 심어도 디는 아니 심은다 호오 살디는 가고 져디는 울고 그리느니 붓디로  
다 울고 가고 그리는 디를 긋트여 어이 심으 라 호오

네가 어이 알가보니 취죽창송은 천고절이라 동턴의도 프룻룻고 눈속의도 순 나니 계  
집의 절형이 이 디의 본을 바다 정성으로 심어두라

남디단 두리썩치 주황당스 썩을 글너 화류집 스과경을 집어닉여 춘향 쥬며 니른 말이  
디당부의 굿은 마음 석경 빗과 긋홀지라 진토중의 뭇쳐이셔 천빅 년이 지나간들 석경

빗치 쇠홀쇼냐 일노 신을 숨아 두라

춘향이 바다 손의 쥐고

이거시 평싱 신물이라 쏘한 덕봉이 업스리잇가

흐고 보라덕단 속적고리 밍즈고름 어로만져 옥지환을 끌어너여 니도령 주며 흐는 말이

너즈의 슈헝흐미 옥환 빗과 갓홀지라 송죽갓치 곳은 마음 이 옥갓치 단정흐며 일월갓치 맑은 뜻은 이 옥갓치 청벽흐니 상전이 벽히 되고 벽히가 상전 된들 변홀 비 업스리니 반첩여의 적막흐든 효측홀지언정 진유즈의 첩 되기는 원치 아니 흐오리니 일노 신을 숨으쇼셔

니도령이 지환 바다 짝고 짝서 깎히 너코 니별조 하나 불을 적의

간다 잘 잇거라 조히 다시 보즈 조히 잇거라 간들 아조 가며 아조 간들 니즐쇼냐 잠씩여 것히 업스니 그를 슬허 흐노 므라

춘향이 화답흐디

올며 잡는 스미를 썰더리고 가지 마오 도련님은 당부라 도라가면 니즈려니와 쇼첩은 아녀진 고로 못 니즐가 흐노미라 산첩첩 슈둥둥흐디 부디 평안이 가오 가다가 긴 한숨 나거든 님줄 아오

니러트시 니별홀 제 춤아 엇지 써나오리 마조 잡고 서로 올 제 칙방 방직 달너드려 성화갓치 직촉흐디

스또 분부너의 도련님 계신 곳을 아라 성화갓치 되셔오라 셔셔 기다리시니 편전갓치 가옵시다

두리 다 잠죽 놀나 흐는 말이

너는 병환의 가마피오 혼인의 트레바리로고나 너는 스람 너 잘 맞는 빈디즈석 붓터 낫느냐 금즉금즉이 직촉 마라 소하 죽은 후신이나 만날 제도 네 덕이오 니별홀 제도 이리흐니 익고 답답 나 죽기다

홀 일 업시 도라올 제 춘향은 즈진흐여 느러지고 니도령은 신체만 도라오니

스또 불너 니른 말이

나는 미진 공스나 다 타고 둥기 마감 후에 슈일간 써날 거시니 너는 즉금으로 길을 출혀 명일 스당 되시고 일즉 써나게 흐라

니도령이 그 말은 녀산풍경에 현 족박이라 춘향 싱각만 골슈의 박혀 만당이나 설운 우름 줄디가지 춤앗다가 입을 열 제 혼마디 쇼릭 툇 터지며 악바회골 모진 범이 절고쑹이로 빵쥬뢰를 틀니고 인왕산 기슭으로 가는 쇼릭쳐로 동헌을 허는드시 북밧쳐 우니

스또 달너여 흐는 말이

용넬흐다 우지 마라 남원부스를 나만 흐라 슈삼일간 올라갈 거시니 그디지 우도록흐라 그리 말고 관심흐라

니도령이 그러흐 체흐고 동헌부터 칙방가지 올며 나와 식음을 전폐흐고 쏜눈으로 밤을 식와 평명시의 길 써날 제 스당 너헝 다 되시고 비헝흐여 올라간다

가노라 남원쌍아 다시 보즈 잘 잇거라 광한누야 엄누샤남원흐고 함비향경노홀 제 신정 이 미흡흐여 옥인을 니별흐니 눈을 써도 춘향이오 감아도 춘향이라 길의 가는 헝인드리 다 춘향인 듯 쏘갓튼 고은 얼굴 눈 압히 암암흐고 낭낭흐 말쇼릭는 니변의 징징흐니 너 마음 쇠돌이 아니여든 이리 흐고 어이 흐리 가직거름이 절노 난다 먼산만 바라보고 초창흐여 올라갈 제

한 모퉁을 지나거다 십니정을 다드라셔 문득 드르니 절절함원 슬픈 우름쇼리 반공의  
스몯치니 모골이 송연호고 심담이 구열이라 정신이 어즐호고 썩썩치 저러오니 마부다려  
못는 말이

쳐량흔 저 우름을 뉘가 이 리 숲히 우리 나의 심스를 산란케 호느뇨  
마부놈 칙를 드리 혼 곳을 가르치디 저 건너 송림간의 엇더흔 녀인이 우느이다  
니도령 싱각호디

우리 춘향이가 날을 보라 둥노의 와서 기드리나 보다 마부야 말 잡아라 뒤를 잠간 보  
고가즈

우름쇼리를 츠즈갈 제 점점 곱히 드러가니 마부놈 엇즈오디  
여기서 뒤보시지 어디로 드러가오  
니도령 도라보며 꾸지즈되

빅발잇눔 네로고나 아모디셔 보던지 네 아랑곳치나  
호며 불게호고 드러가서 자세히 보니 네로고나 춘향이 마조 잡고 그저 테굴테굴 함  
부로 탕탕 부딪지며

너고 나고 예셔 독즈 너는 엇지호여 여기 잇느니  
도련님 가시는 길의 전별호려 왔스오니 마즈막 니별비를 잡으시오  
술을 부어 권홀 적의 당부의 심당이 다 상흔다 옥슈를 즈로 드리 눈물을 꺾여 뿌리면  
셔

턴디인간 니별중의 날 곱호니 쏘 잇는가 익고 도련님 닉 말 듯소 춤아 설워 못 슬깃  
네 오동야지명월이오 양뉴춘지청풍시의 그리워 엇지 살나호오

니도령 위로호디

네 속이나 닉 속이나 간장이야 다들쇼냐 석벽의 양 견디듯 슈삼년만 기다려라  
셔로 잡고 우 름울 제 마부놈 달녀드리

도련님 어셔 니러나오 디부인 마노라님이 압츰의셔 도련님을 츠즈신다 호고 관노놈이  
왔스오니 어셔 밧비 니러나오

니도령 니른 말이

너도 목석이 아니라 이 형상을 내가 보니 춤아 엇지 썩나리오 돈을 만히 후히 줘마  
흔 말만 잠간 더호고 가즈

마부놈 엇즈오디

천니를 가나 십니를 가나 혼적 니별은 불가귀오니 제발 덕분 니러나오

홀 일 업시 썩나오니 둘희 간장이 다 스라진다. 저 춘향의 거동보쇼. 녹느드시 우름울  
며

도련님 부딪 평안이 가오 썩나는 회포는 측냥 업거니와 날긋흔 천첩은 조금도 싱각  
마르시고 셔울 올라가셔 학업이나 힘써 여영득의호신 후의 부딪 부딪 날 츠즈오시오 머  
리 우희 손을 얻고 기드릴 제 바라는 눈이 뿌러지지 아니케 호옵쇼셔

니도령 니른 말이

오냐 부딪 잘 잇거라

연연호를 니끼지 못호여 춤아 손을 놓치 못호고 스미를 드리 눈물을 썩스면서 당부호  
는 말이

나의 일은 넘너 말고 몸을 삼가고 신의를 직회여 나의 도라오기를 고디호라

호고 썩날 줄을 니저더니 셔산의 희는 느껴가고 직촉이 성화긋흔지라 마지 못호 여

손을 노코 말기 올라 도라셔니 혼 거름의 도라보고 두 거름의 기가 막혀 갈 길이 어둑히  
다 목이 뒹쳐

연속부절 잘 잇거라

부딪 평안이 가오

이러트시 목원 소리로 니별홀 제 길히 점점 머리간다 혼 산 너머 오리 되고 혼 물 건  
너 십니로다 다만 들희 넘만 병긋병긋히 음성은 아니 들니는고나 속절업시 썬날 적의  
이전의는 쓰게 짓던 말조츠 오날은 어이 그리 직게 가노 춘교의 우는 식는 간장을 바아  
는 듯 당제에 프른 버들 무정어도 프르렀다 형영조츠 묘연히니 익고 답답 가슴 이야 욕  
망이 난망이오 불스이 즈스르다 보고지고 보고지고 나의 춘향 보고지고 어린 양즈 쇠옥  
성을 잠간 드러 보고지고 뉴리잔의 술 부어들고 잡슈시오 잡슈시오 권흔 양 즉금 만나  
보고지고 천니당정 만나문 디 너를 잇고 어이 가리 속절 춘향 전혀 업다

이놈 마부야 말이나 천천이 모라가즈 송문니의 퇴눈 박이키다 저 안젓던 뒹봉이나 보  
고가즈고나

마부놈 디답히디

쇼인도 혼 번 츠모 귀덕이를 어더 신경이 혼창 미흡히디 니방아전이 장을 두고 쇼인  
의 츠레 아닌 길을 보니오니 손을 잡고 썬나올 제 무 지흔 간장도 봄눈 스듯 마음이 산  
난흔와 서울 녹벽오십니를 혼참의 드리노코 너일 혼것 내려가오려 급흔 마음 살긋스와  
말을 빗비 모느이다. 그러히오나 도련님이 하 민망히여 하시니 천천이 뒹시리이다 다만  
길 가기 심심히고 도련님 마음도 하 산난히여 하시니 위로 곁히여 그 노던 이야기나 하  
며 가스이다 우리 귀덕이도 묘히원다.

니도령 디답히디

그 일홈 더럽다 인물은 엇더히게 묘히더냐

마부놈 디답히디

머리 압흔 숙 붓터 두 눈썹이 다하 잇고 두 눈은 왕방울만히고 코는 바람벽의 말나  
붓튼 빈디갓고 입은 두 귀 밋가지 도라오고 가슴은 두리기동긋터여 젓통이란 말은 아조  
업스오니 요런 묘흔 겨집이 쏘 어디 잇스오잇가

니도령 웃고 니른 말이

그것도 스람이란 말이나 너는 무어술 취히느니 흥히고 금즉히다

마뉘 왈

도련님이 계집 묘리를 모로시는 말숨이올시다 머리 압 숙붓기는 겨울의 돈 아니 드린  
붓박이 휘항 긴히웁고 계집의 눈 큰 거슨 셔방이 꾸지져도 겹을 너여 공순히고 코 업기  
는 입 다힐 제 거칠 거시 업스오니 더 긴히웁고 입 큰 거슨 뺏분 뺏의 급 히 맛출 제 아  
모디를 디여도 영낙업스오니 긴히웁고 젓통이 업는 거슨 단야의 곤흔 잠 자다가도 부로  
통흔 거시 만치이면 즈연 마음이 동히여 버무레나 썬히고 혼가음이나 쓰오니 젓통이 업  
스오면 원밤을 성히 주고 나오면 녹용 혼 그릇 먹은 햄이오니 요런 계집은 곳 보비원다  
도련님 슈청은 엇더히웁더니잇가

어허 이놈 드러보아라 우리 춘향이야 어엿부더니라 인물이 탁월히여 당부 심당을 놀  
리고 빅티가 구비히며 직덕이 겸전히고 품질이 절승히더니라 익고 익고 설 운지고 저고  
나고 두리 만나 춘하추동 스시 업시 주야당턴 즐겨 놀 제 즈미잇는 잔속이야 놀다려 다  
홀쇼냐 익고 익고 설운지고 동군이 신필 되여 춘향조츠 그려닌가 향아를 너치신가 직너  
를 적강흔가 너는 어힌 아히완디 강산정귀를 혼즈 타셔 나의 간장 석이느니 혼이라도 너

를 찾고 꿈이라도 너를 츠즈리라 슬드리 그릴 적의 꿈이나 만나보즈 익고 답답 설음이야  
이러듯 탄식하며 경성으로 올라가니라

이썩 춘향이는 니도령 썩나갈 제 가는 디를 보라 호고 갱상일층누 호여 옥궁천니목호  
니 천니로다 천니로다 님 가신 디 천니로다 기가 막혀 우름울 제 길이 츠츠 머러가니 형  
용이 점점 적어뵈다 셔너슬 먹은 아희 강아지 타고 가느니 만호더니 스월팔일의 동즈등  
만호여 뵈고 산구뵈를 도라가니 아물아물 아조 업다 익고 이를 엇지홀고 기진토록 종일  
울고 집으로 도라와셔 방안을 삶혀보니 무거쳐지 망망이라 익고 익고 이거시 웬 일인고  
극목턴이호니 한고안지실녀오 회모양상호니 선빵연지동소로다 옥창잔월추야당의 님을 그  
려 엇지 살니 가련 호다 나의 신세 일촌 간장 봄 눈 스듯 익고 이를 어이홀고

디비정속 면천호고 스절 빈직 두문호고 의복단장 전폐호고 식음을 물니치고 헛튼 머  
리 썩무든 옷세 탈신호여 디를 노코 누어시니 인간 형낙이 덧업도다 가련이도 되엇고나  
익고 익고 설운지고 이 설움을 엇지홀고 춘하추동 스시절의 님을 그리워 어이 슬니 나리  
듯친 학이 되여 훨훨 나라가셔 보고지고 영두에 구름 되여 놓히 썩셔 보고지고 창희의  
달이 되여 빗최어나 보고지고 우든 눈물 바다니면 비도 타고 가련마는 만첩상스 그려 님  
들 흔 붓스로 다 그리랴 류야당혜 김도 길스 천니상스 덕옥 썩다 상스호든 도련님을 꿈  
의 만나 보건마는 잠 곳 썩면 허식로다 구회간장 만곡슈를 담을 디가 전혀 업니 인싱 빅  
년이 언미완디 각직동셔 그리노고 공방미인독상스는 날을 두고 니르미라 익고 답답 설음  
이야 이를 어이 호жат 말고 정화는 작작호고 두견은 난만호디 즈규야 우지 마라 울거든  
네나 우지 잠든 날을 썩와니여 갓득한 님 니별의 여른 간장 다 석이느 니 니별이 비록  
어려오나 니별 후가 더 어렵도다 동지야 긴긴 밤과 하지일 긴긴 날의 썩마다 상식로다  
약슈삼천니 못 건넌다 일너지나 님 계신 디 약슈로다 익고 익고 설운지고 이 몸이 숨길  
실 제 님을 조츠 숨겨시니 삼싱의 연분이며 하늘 마칠 일로다 나 호나 쇼년이오 님 하  
나 날 괴실 제 이 마음 이 스랑은 견줄 디 전혀 업다 평싱에 원호오디 혼디 예즈 호엇더  
니 그 덧세 어이호여 각직동셔 그리노고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년의 올낫더니 그 덧세  
무슴 일노 하계의 내려온고 올 적의 비슨 머리 허트런지 오리도다 연지분도 잇건마는 늘  
위호여 고이 홀 고 마음의 미친 시름 첩첩히 빠혀세라 지이느니 한심이오 흘니느니 눈물  
이라 인싱이 유한호디 슈심이 기지업다 무정호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거다 념량은 썩를  
아라 가느덧 도라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흠도 홀스 동풍이 건듯 브러 적설을 헛  
치는 듯 옥창의 심은 미화 두세 가지 꿰엿세라 갓득에 님담호디 암담은 무슴 일고 황혼  
의 명월조츠 침변의 조요호니 갓기는 듯 반기는 듯 그리노 님 마조 본 듯 이 미화 호가  
지로 님 계신 디 보닉고져 님이 너를 보면 무어시라 호실넌고 썩 지즈 식넌 나 즈 녹음  
이 어린 적의 나유는 적막호고 슈막이 뵈여세라 부용당 거러두고 공작병 둘너지니 갓득  
에 시름호디 히는 어이 기도던고 원앙금침 썩쳐니여 삼식실 푸러니여 금척의 견조와셔  
님의 옷슬 지어니니 슈품도 조커니와 제도도 꺾홀시고 황함의 담아두고 님 계신 디 바라  
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흠도 머홀시고 옥누의 혼즈 안즈 슈정렴 거든 날의 동영에 달  
듯고 북극의 별이 뵈니 님 본 듯 반가오미 눈물이 절노 난다 청광을 주어니여 봉황누의  
거러두고 팔황의 다 빗최니 심산궁곡 빗 최고져 건곤은 폐식호고 빅일이 혼빔친디 스람  
은 커니와 날시도 쓰쳐도다 소상남방도 치우미 이러커든 옥누고쳐야 일너 무삼호리 양춘  
을 붓쳐니여 님 계신 디 보닉고져 모침의 빔첸 히를 옥누의 올니고져 홍상을 거두치고  
취슈를 반반 거더 일모창산원의 험가림도 흠도 홀스 저른 히 겨요 지고 긴 밤을 고초 안  
즈 청 등을 겹히 노코 적은덧 잠을 드니 꿈이나 님을 보려 텍 밧고 지혀시니 원앙금도

참도 찰스 이 밤이 언제 실고 하로도 열두시오 한달도 삼십일에 할나 나 니저 잇셔 시름  
을 프즈흐니 마음의 믹친 시름 골슈의 박혀시니 편작이 열이 오나 이너 병 어이흐리 어  
와 이너 병이여 이 님의 탓시로다 출하리 슬혀져셔 뵤나뵤나 되오리라 쫓 지즈 식넙 나  
즈 녹음이 어룬 적의 쫓마다 단니다가 님의 옷식 안즈리라 님은 날인 줄 모로셔도 나  
님을 조츠 단니리라 이러트시 시름으로 무정세월 보너더라

세갑즈 뉴월 념오 필셔

○ 남원고스 권지삼

이제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은 내려올 제 신관스또는 남촌 호박골 변악도집이라 천만  
뜻밖기 결련 덕으로 산정의 말망낙점호엿는지라 호던 날부터 남원 춘향이 명기란 쇼문을  
드룬 지 오린지라 싱각이 전혀 여기만 잇서 밤나으로 기다리는 말이

남원이 몇 니나 되느고

신연하인드리 스홀이나 되도록 괴척이 업서 하 고이호 일이로고

호며 성화긋치 기드릴 제 잔득 줄나 열스홀만의 신연관속드리 올라와 슈청 불너 거릭  
호고 현신호라 드리울 제 신연뉴리 녹방 아전 통인 급장 군노 스령 츠레로 현신 알외오  
신관이 밤나으로 기드리다가 이러툇 만시호여 온 것 보니 골이 호것 나셔 흠석 부어 한  
마디 호령의 종놈 불너 분부호디

네 저놈들 모도 모라 너치라 호령이 추상긋튼지라

썩뒤가 세 썸식호 주먹 건디드리 벌제긋치 달너드러 일시의 썩뒤질너 모라 너칠 제  
디문밧그로 너치는 거시 아니라 호기가 되느디로 나셔 영의 썸이여 남산골 네거리가지  
모라 나와셔 그섬에 당악원가지 활작 나리모라 호숨의 각전 시정 난전 모듯 구리기 병문  
가지 모 라 너씨리고 오니 신관이 골킴의 다 모라 너치고 다시 싱각호즉 모양도 아니 되  
고 제일 그 곳 쇼문을 무를 길이 업느지라

청직이 불너 못는 말이

여보와라 남원 하인 하나토 업느냐 나가 보와라

홀 제 맞춤 길방즈 호 놈이 발병이 나셔 낙후호여 드러오니 모라너는 통의도 춤네 못  
호 놈이 저촉저촉 호고 드러오는 놈의 형상이 아조 허술호 등 엷고 겹고 호 눈 곳고 흥  
악히 추호 놈이 드러와셔 신관스또딕이나 못고 신연관속드를 좇거늘 아모커나 불너드려  
현신시긴 후의 신관이 보고 반기여 싱 으로 치슬니는 말이

업다 그놈 잘도 낫다 외모가 심히 순박호 거시 괴특호 놈이로다 네 고을 일을 즈셔히  
아는다

방즈놈 엿즈오디

쇼인이 십여디를 그곳의셔 싱장호온지라 터럭썩만호 일이라도 쇼인 모록는 일이 업스  
외다

어허 식환하다 아딘지 모르던지 위선 관원의 비위를 맞초와 디답호는 거시 괴특하다  
네 구실이 일년의 언마나 먹고 단니느니

알외웁기 황송호오디 쇼인의 구실 원응식이라 호웁는 거시 일년의 황도 녀 섬 분이올  
시다 그러호웁기 이런 썸 흥츠 를 피시라 오오나 관가 구실노 서울 왕니를 호오나 노즈  
호는 법이 즈당호웁기로 길히셔 탄막의 외상 먹고 단니웁거나 여복호면 굶고 단닐 적이  
만스웁고 그러호웁기 변지변니지니 호여주는 경주인의 빚지 무슈호웁고 환상도 미양 밧  
칠 길 업스와 불기를 흰썸 맛듯 호웁니다

불상하다 네 고을에 관속등 제일 먹는 방임이 언마나 쓰느니

디답호디 슈삼천금 쓰는 방임이 셔너 즈리나 되웁느이다

너가 도입호거든 그 방임 셔너 즈리를 모도 다 너를 시기리라

황송호외다 상 덕이올시다

여보와라 그는 그러호거니와 네 고을에 저 무어시 잇다 호더고나 업다 유명호 별 것  
잇다 호더고나

젓스오디

무어시온지 모양만 하문흐옵시면 아라 밧치오리이다  
 신관이 풀갓낀 뒤집지고 건닐면서  
 엇다 이런 정신이 어딴 잇시리 고약흔 정신이로고나 그시의 싱각흐엿더니 고스이의  
 깜박 니저고나 정신이 이러하고 무어슬 흐리 도입 후의 슈다흔 공스의 성화홀 밧기 익고  
 무슨 양이라 흐더고나 므슨 양이 이느냐 아조 논란엿시 절묘흐다더고나  
 양이라 흐옵시니 무슨 양이오닛가  
 허 허 그놈 그 거슬 모른단 말이나 너 나무라 무엇흐리 그는 내려가 종츠 알너니와  
 네 고을이 서울서 밧 니나 되느냐  
 서울서 본관 읍늬가 녹뵝오십니로소이다  
 그러면 너일 일즉 내려가면 적녁춤의 드러다하랴  
 젓스오디  
 너일 숙비나 흐옵시고 조정의 하직이나 흐옵시고 각스 서경이나 도읍시고 우명일 혼  
 것즘 썬나옵시면 즈연 날 구즌 날 씨이옵고 가읍시다가 감영의 연명이나 흐옵시고 혹 구  
 경쳐의나 노리 흐옵시고 열노각읍의 혹 연일유숙이나 되읍시고 천천이 느려가읍노라 흐  
 오면 혼 보름이나 흐여야 도입흐옵시리이다  
 어허 이놈 고이흔 놈 보름이라니 어허 주리를 혼 놈 보름이라니 그놈이 곳 구어다힐  
 놈이로고나 네 이놈 앓가 시긴 셔너 즈리 방임 다 모도 제명하라  
 그놈 좃츠 너치고 청직이 불너 신연하인의게 너 분부로 제잡담하고 길 밧비 출히라  
 하고 성화갓치 내려갈 제  
 기구범절 불작시면 빵고 독고 벌연이라 좌우청장 넘노랏다 급마하송 호호탕탕이 내려  
 갈 제 평지에는 벌연이오 산곡의는 좌미로다 남딕문을 밧비 나셔 칠퍽 팔퍽 돌모로 동적  
 니를 얼끗 지나 신슈원 숙소하고 상뉴천 하뉴천 죽밧 오피를 밧비 지나 딴위읍늬 중화하  
 고 칠원 성환 비토 리 천안삼거리 숙소하고 진계역 밧비 지나 덕평 인주원 광정 물원 공  
 궐감영 등화하고 느티 정천 노성 숙소하고 은진 닥다리 녀산 능기울 삼네를 얼느 지나  
 전주 드러 등화하고 노고바회 임실을 얼끗 지나 남원 오리정의 다다르니  
 기복청 드러 혈소하고 삼번관속 녹방아전 지경딕후 영접홀 제 연봉늬각 조홀시고 딕  
 당 청도되라 청도 혼 빵 홍문 혼 빵 주작 남동각 남서각 홍초 남문 혼 빵 청봉 동남각  
 서남각 남초 황문 혼 빵 등스 순시 혼 빵 황초 빅문 혼 빵 빅초 동북각 서북각 빅초 흑  
 문 혼 빵 현무 북동각 북서각 흑초 관 원슈 마원슈 왕영관 은원슈 도현관 표미기 금고  
 혼 빵 호통 혼 빵 나 혼 빵 정 혼 빵 나발 혼 빵 바라 혼 빵 세악 두 빵 고 두 빵 발 혼  
 빵 적 혼 빵 순시 혼 빵 영기 두 빵 중스명 좌관이 우영전 집스 혼 빵 기궤관 두 빵 군  
 노 직렬 두 빵 주라 나발 호적 형고 딕평소 텃하성 소리 텃디 진동흔딕 기치검극은 추상  
 궂고 살기는 텃툰이라 일산의 길로마며 권마성이 더욱 조타 집스당관 형렬흔딕 그밧기  
 벌딕마병 인신통인 관노급장 다모방즈 도훈도라 아회 기싱 록의홍상 얼운 기싱 착전넙의  
 늑은 기싱 영술하고 녹각으로 취타하고 삼면으로 전비홀 제 좌슈 별감 현알하고 제당교  
 군례 밧고 녹방아전 현신훈고 기싱 통인 문안흔 후 신연유리 불너 분부흔딕  
 네 고을 딕쇼스느 네 응당 알 거시니 바른딕로 알외여라  
 신연유리 분부 듯고 환상 민폐 전결 복슈 죄슈 도안 딕쇼읍스 딕강딕강 고과흔니 신  
 관이 골을 너여 다시 분부흔는 말이  
 네 고을에 유명흔 것 드런지 오릭거든 여기 아니잇느냐 무슨 양이라 흐더고나  
 니방이 막지기고하여 겁결의 딕답흔딕

창고의 군량ियो 육고의 우양ियो 공고의 잘양ियो 마고의 외양ियो 감스 정빅 귀양  
ियो 기싱 관비 속양ियो 불가의 공양ियो 여 염집의 괴양ियो 청빅흔 놉 스양ियो 슈쥬  
분 놉 겸양ियो 시너가의 슈양ियो 이결은 펴양ियो 스정의 한냥ियो 흥흔 놉의 불양이  
오 히 다 져다 석양ियो 남녀간의 음양ियो 엄동철한 휘양ियो 허다흔 양이 무슈흔온디  
딕장 이러흐외다

엎다 엎다 아니로다

젓스오디

스람 못된 거슬 잘양이라 흐읍너다

그도 아니라

좌슈 듯기 민망흐여 꾸러안즈 엇즈오디

알외웁기 황송흐오나 민의 고을의 쇼산으로 물 만흔 식양이 만스외다

신관이 증을 너여 흐는 말이

뉴리라 흐는 거시 관장의 니목이라 변통부부지간이기로 뉴리와 흐는 말을 디슈리 참  
네흐여 부딕치노 어더온 고초당의 비부놈 참네흐듯 다 속은 바즈툼의 노랑기 쥬동이긋치  
말깃시 고이흐고

통인 불너 좌슈 구출흐란 후의

여보와라 삼번관속드리 날을 지경흐노라고 몬지를 쓰이고 밧부게 드러와시니 다른 점  
고는 다 제폐흐고 그 편의 잇는 기싱 하나토 색지지 말고 점고츠로 다령흐라 네 고을이  
딕무관 식향이라 하니 기싱이 모도 몇 마리나 되느니

니방이 알외되

원기와 이속 비속 공비 디비 합이게지흐오면 합이 오십슈 되웁느이다

어허 밋오 맛득흐다 기싱 위명흔 거슨 하나토 유루치 말고 툅툅 썬러 점고의 다 현신  
흐게 흐라

니방이 청녕흐고 나와서 모든 기싱 지위흐고 슈근슈근 공논흐디

이 스또 아라보깃다 스또가 아니오 빅설이 풀풀 훗날닐 제 깔고 안는 잘양의 아들놈  
이로다

공논이 분분흐고 창빋아전은 겸형방이라 슈로 불너 기싱 도안 드러노코 츠레로 점고  
홀 제 남원 명기 다 모헛다

신관이 츠레로 딕간 품흐고 형방아전 강성 눕혀 호명홀 제

중쥬팔월 십오야의 광명 조타 쥬월이 나오

분벽스창 요적흔 디 한가흐다 향심이 나오

오동복판 거문고를 타고나니 탄금이 나오

스마상여 줄쇼리의 탁문군의 춘정이라 오동월하 봉금이 나오

남전의 미옥이라 낭국보빅 금옥이 나오

도원심쳐 츠즈가니 무릉춘식 담도로다 녹양이월 삼월춘흐니 만화방창 춘단이 나오

동방스창 빗썬 달을 억조창싱 스랑흐니 익월이 나오

강남치련금이피라 슈중옥녀 부용이 나오

원앙금니춘몽난흐니 네가 일정 영익로다 어서 어서 나오너라 옥토도약 항공의 빗겨  
섯는 계월이 나오

천향국식 너를 보니 설부화용 승옥이

너도 저마치 서거라

영명스를 츠즈가니 명스십니 느즌 봄의 설 도긋흔 히당춘이 나오  
 낙빈왕의 완월인가 동녕초싱 명월이 나오  
 춘하츄동 스시절의 명식 조타 월식이 나오  
 세우동풍향난간흐니 화등부귀 모란이 나오  
 상업이 흥어이월화흐니 부귀강산춘 외춘이 나오  
 낙낙당송군즈절흐니 스시당청 송절이 나오  
 송하의 문동즈흐니 치약부지 운심이 나오  
 도화뉴슈묘연거흐니 별유턴디 선월이 나오  
 서정강상월이 두렷시 밝아논디 동각의 설중미 나오  
 은하슈변오작교의 칠월칠석 강선이 나오  
 요하의 처인 환도 색혀들고나니 천금이 나오 너라  
 반야삼경옥인디흐니 합니춘광 미화로다 나오너라  
 주황당스 별미들을 츠고나니 금낭이 나오  
 양금 란초 거문고의 청가묘무 해란이 나오 화용월티 고은 양즈 빙호일편 명심이 나오  
 나는 솟출 저기 츠니 화당춘풍 연연이 면면만만 유정흐다 녹슈심쳐 잉잉이 나오  
 삼월동풍 난만흔디 만강홍우 금강이 화향월식 조흔 곳의 강남녹슈 연엽이 나오  
 막첩청산 뻑 드러가니 어뵈업다 범덕이 나오  
 안고름의 향난이 갓고름의 부전이 비에 털네 비에 썩네 어셔 어셔 나오너라  
 흔창 이리 점고홀 제 스또 참지 못흐여  
 아셔라 점고 그만흐여라 조긋 조 디강이 일곱지 셋는 조 년 나히 몇 술이니  
 설흔 한 술이올시다  
 아셔라 계집이 삼십이 넘으면 단물이 다 나느니라 너도 저만치 밧줄노 셔 잇거라 저  
 기 얼굴 허연 저 년은 일흠이 무어시니  
 영익올시다 나흔 몇 술이니  
 영익 싱각흐디  
 설흔 흔 술을 단물이 닳다고 퇴흐여시니 날낭은 밧삭 주려보리라 흐고 스십이나 거의  
 된 년이 염치업시  
 열세 살이올시다  
 스또 호령흐디  
 조 년 뽀치라  
 영익 겁너여 또 알외오디  
 쇼인이 디강 몬져 알원 나히올시다  
 그리면 원통 나 흔 언마나 되느니  
 겁결의 과히 늘치와 알외오디 원세 살이올시다  
 스또 골을 너여 흐는 말이  
 흔셔부터 주리를 홀 년들 더병머리 당긋 치레흐듯 파려흔 강아지 쏹지 치레흐듯 쏴어  
 즈러운 것드리 일흠은 무어시니 무어시니 나오너라 나오너라 거 원 무엇들이니 하나토  
 뵈 거시 업고나 앓가 영익 긴 영즈 스랑 익즈 어허 구어다힐 년 곳트니 니마 압 짓는다  
 고 뒤썩썩가져 뒤버스러지게 머리를 싱으로 다 색히고 밀기름 바른다고 청어굽는 디 된  
 장 칠흐듯 흐고 연지를 뒤벌거게 윈 뽀의다 칠흐고 분칠은 회 시흐는 놈의 회칠흐듯 흐  
 고 눈썹 지엿다고 양편의 쪽 셋식만 남기고 어허 주리알머리를 썩을 년 곳트니 뉘 쇠를

먹으라고 열 세 살이오 눈꼬알하고 닭도적년 곱트니 이년 목을 휘여다힐 년들 모도 다  
모라 너치라 원기라 하는 거시 그 쏘이나

형방이 눈척 알고 디여 부르디

전비 춘향이 쉬오

스또 역정너여 하는 말이

올타 춘향이란 말 반갑고나 어이하여 이제야 부르느니 춘향이가 썩네 아리란 말이나  
젓스오디

아직 나히 어린 고로 그러하외다

그리면 무엇무엇 여려슬 부르지 말고 것구로 그 하나만 불넛더면 그만 썩판이로고나  
그러나 그는 왜 나오 말이 업고 쉬오 하니 웬 일인고

알외옵기 황송하오디 기싱중 디비정속하고 면천하여 기싱안의 업느이다

스또 정신이 쇠락하여 하는 말이

너가 서울서부터 드르니 향명이 아조 유명하시더고나 이스이 평안하시나 쏘 그 디부  
인 월미씨라든지 그도 평안하시나

네 아직 무고하신 줄노 알외오

스또 연하여 나그어 안즈며

이러듯 경계의 반반하게 인스흔 후의 다시 분부하디

춘향을 일시라도 지체 말고 속히 불너 디령하라

형방이 엇즈오디

제 몸은 무병 하오디 구관 스또 도입시에 칙방 도련님과 빅년히로 귀약하여 디비정속  
하고 지금 슈절하느이다

신관이 이 말 듯고 놀나 하는 말이

어허 세상의 변괴로다 구상유취 아히드리 첩 첩 첩이라니 쏘 본디 기싱년이 슈절 말  
이 가쇼롭다 가마피 학이 되며 각관 기싱 열녀되라 이제로 밧비 불너 현신시기라

형방이 청녕하고 관속 불너 분부하니 관속드리 분부 듯고 한거름의 밧비 나와 춘향이  
부르라 갈 제 춘향이 본디 스치고 도고하여 밧물하고 도쁜지라 관속드리 혐의터니 팔척  
당신 군노스령 활적 썩여 나가는 거동보쇼. 산 슈털 병거지 청니광단 안을 올너 총증즈  
굴독상모 눈 고은 공작미를 당스실노 역거 달고 성성전 증도리 밀화긔돈 은영즈 너분 썩  
의 날너 용즈 썩 붓치고 환도스슬 거러 츠고 화류당도 썩을 다라 흥복통 밧기 츠고 탄탄  
디로로 독불이지 밧비 가며 이를 갈고 버르면서 서로 의논하는 말이

여보와라 여숙아 너가 틀닌 말이 잇거든 아모리 동관이라도 곱 옥을 하여라 아히년이  
도령하고

흔창 이러타 홀 제 하로는 도령아희 보라 드러오는 썩에 너가 마춤 문을 보다가

이 익 춘향아 너모 그리 마라 도령님 보고 나오는 길에 비장청의 드러가셔 셔초 조금  
어더가지고 오려무나 언제라 언제니 네 덕의 밧강담비 맛 조금 보죗고나 이리하엿지 어  
너 시럽장의 아들이 틀닌 말 하엿기느냐 그 아히년이 말하는 거슬 지방귀로 알고 우리를  
도모지 터진 썩아리로 아라 눈을 거뜰더도 보지 아니하고 흠치고 감치고 디치고 뒤치고  
썩당그르치고 드러가니 말흔 너 썩 엿지 되얏느니 네면 엿더케 분하깃느니 고이하고 흰  
말일다마는 흔다하는 토포형슈 병방군관 녹방아전 삼번관속이라도 상히는 저의게 설설  
긔는 체 하거니와 무슨 일이 숙혐의 잇느 니는 양심을 잔 썩 먹고 잇다가 집당 곱 하량  
이면 엄지가락을 진썩 놀너 속으로 곱케 엉덩이를 쓴느 슈가 잇거든 허믈며 젓즈음이 어

허 절통이 숨긴 년 곳트니 그 말 곳 허라하면 녀시 오르더라 제 니도령이란 거시 무어시  
니 강늑석 부전이라 우리네는 미양이지 이번의 불너다가 만일 미가 느리거들낭 너도 스  
정 두는 놈은 너 아들놈이니라

허고 춘향의 집 드리간다 이놈의 심술들은 연화천병의 화승테 쏘이듯하고 동풍 안기  
속의 슈슈넵 쏘이듯하며 망건 뒤히 부등깃시 벗지 아니하고 슈의 틀니면 츠시루를 써서  
노코 밤낮 보름을 비러도 니가 아니 드는 놈드리라 성화긋치 달녀드러 덕문 등문 박츠면  
서 벌세긋치 썩여드러 춘향이 부르기를 반공둥의 쓰게 불너 원근산천이 썩드러다 호통하  
며 드리올 제

일이 낫다 일이 낫다 이 놈의 죄에 저 놈이 죽고 저 놈의 죄에 이 놈이 죽고 네 죄에  
나 죽고 너 죄에 너 죽어 못죽음이 나깃고나

허며 모진 범이 월양의 달녀들며 주린 기 미역죽의 다라들 듯 우뢰 진동하는 듯 허더  
라

이제 춘향이는 니도령만 심각하고 춘풍도리화기야와 추우오동엽낙시의 눈물 셋거 한  
심 지고 식물감 침불안하니 옥빈홍안이 초체하고 즈연의 덕완하니 초당의 견월상심식이  
오 야우문영단장성이라 빅스의 뜻이 업고 만스의 경이 업서 옥부방신을 바라 침석의 더  
져 두고 일편단심 임 생각이 죽어지라 원을 하고 싱세지락이 전혀 업서 당탄단우 일을  
숨아 스라질드시 정신을 일코 녹는드시 잠연하여 시름업시 주야당턴 금침의 뻗혀 만스를  
후리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조 산송장이 되여 한양만 브라고 주야축슈홀 분이러니 금일  
도 북편을 창망하고 슬픈 눈물을 금치 못하고 누엇더니 이 쇼릭에 째작 놀나 벌덕 니러  
안즈 유리굽그로 여어보니 직전의 혐의 잇는 놈이 모도 골나 나왔고나 므음의 숨숨 헤아  
리니 분명 관가의 무슴 중병이 낫나보다 엇지하여야 올탄 말고 밭서 일이 이리 되여시니  
익결이나 허여보즈 훨적 썩여 니다르며 단순호치 반기하고 함쇼함티 순벽치고

익고나 저 손님 보완지고 반갑기도 괴지업고 깃부기도 칭냥업니 최픽두 오라버니 그  
스이 평안하고 니픽두 아즈버니 요스이 안령하고 형님네들과 아즈머니 티평하시고 집안  
에도 연고 업시 지덕오 어린 아히들도 잘 즈라고 데시네도 안강하고 종시네도 잘 단니오  
구실이 나 다스치 아니하고 이번 신연 피시라 서울은 평안이 단녀와서 노독이나 아니 낫  
쇼 그정 우리게서 가져간 강아지 요스이는 미오 컷지오 그스이 엇지하여 혼 번도 못 오  
시든가 구실에 다스하여 못 오던가 지날 길이 업서 놀면서도 못 오던가 스람들도 무정홀  
스 엇지 그디지 밭을 끈노 너 몸 하나 병이 드러 적막강산 누어시니 와병하면 인스절이  
라 혼 번이나 와 보더면 무슨 하늘에 별악칠가 세상의 야속들도 하고 니픽두 아즈버니  
너 말 드러보오 혼 번 그 썩에 아제 문 불 제 날다려 셔초 말하기에 덕답도 아니하고 드  
러갓더니 필 경 날을 야속히 아라 게시지오 그 바로 전에 나하고 마조 서서 말흔 스람을  
뒤염문하여다가 뒤덕청 좌기 은근이 하고 비밀이 잡으드려 흥흥 악형하는 거슬 목도하여  
기로 아제도 그러케 히로울가 하여 반가운 손님을 보와도 인스도 변변이 못하는 터이기  
로 드를만하고 드러갓더니 그 썩에 그런 잔속은 모로고 응당 엇더이 아라지오 마음먹고  
드러가서 도련님 보고 나오는 길에 비당청의 드러가서 셔초 어더 휴지에 박서 허리춤의  
너코 아제를 주즈하고 삼문간의 나와 보니 아제는 어딤 가고 다른 픽두 문 보기로 바로  
집으로 가서 보고 이런 말습이나 하고 드리즈 허엿더니 도련님이 뒤를 쏘라 어닌 스이  
나오기로 바로 집으로 와서 그리저리 틈이 업서 우리 어마니다려 부탁하디 아제 집의 가  
서 보고 그 스연하여 달나 허엿더니 어마니도 건망징이 이셔 진작 가지 못허엿고 도련님  
올나가신 후 어닌날 조용하기 한 번 가니 아즈머니 혼즈 게서 아제는 서울 갔다 허기의

섬섬히 도라와서 그렇저렇 이썩가지 혼 번도 못 맛나서 이런 정답 못했네

섬섬옥슈 느히여서 니픽두의 손을 잡고 방안으로 드러가며 혼는 말이

하 오리게야 맛나시니 술이 나 먹고 노스이다 관령 뵈온 일노 왓나 심심하여 날 츠즈  
라 왓나 무슴 바람이 부러 왓노 너가 꿈을 꾸나 그리든 정을 오날이야 퍼깃네 반가울스  
귀흔 직이 오날 왓네 스람 그리워 못 살깃네

이러트시 익용으로 스람의 간당을 농낙하니 저 픽두놈 거동보쇼. 이전 일 싱각하니 오  
날 일이 의외로다 이전의 추보기를 도술궁 선네러니 오날날 추는 줄을 가작인 줄 정녕이  
알건마는 분길긋튼 고은 손으로 복두갈고리긋튼 저의 손을 잡은지라 고기를 싸지우고 나  
려다 보니 제두리썩가 식근식근 돌갓치 긋든 마음 춘풍강상의 살어름 긋치 늑천 골절이  
다 녹는다. 저의 둘이 서로 보며

이 익 여숙아 스람의 므음이 물갓다니룬지라 이 아희 형상을 잠간 보니 너 마음은 간  
딕업다

여숙이 딕답하딕

그런 줄 몰랐더니 너는 므오 모질고나

니픽두 니룬 말이

네 말은 엇지흔 말이니

최픽두 혼는 말이

나는 그 형상 보기 전의 이 익 일만 싱각하여도 므음이 아즐아즐하고 바아지는 듯 혼  
더니 앓가 이 집으로 드러오니 잔 썩는 다 녹고 굴근 썩는 다 초친 무림의 아들이 되고  
공연이 원몸이 절절 저러오니 도모지 니러니 저러니 말하기 슬터라마는 앓가 네가 날다  
려 혼든 말을 아셔라 마라라 혼기는 동관의 정을 썩는듯하여 말을 아니하고 드를만했  
다마는 도모지 그 일이 딕단치 아닌 일의 험하여 혼잘것도 업고 쏘 혼밤 잔 원슈 업다  
하니 발서 언제흔 일을 잇썩가지 미안이 아는 거시 우리가 도로혀 격지못흔 모양 긋고  
쏘 제 말을 드르니 정녕이 잔숙이 그러흔 일이 영낙 아니면 속낙인 줄 아느냐 그스이 우  
리가 혼 번도 저를 츠즈 문병치 못흔 거시 첫지는 우리가 잘못했는지라 저의 다정흔  
썩과 갓지 못흔 줄이 후회로다.

니픽두 딕답하딕

여보와라 우리네가 고히흔 말 갓 다마는 악하려 하면 악하고 선하려 하면 선하거든  
그만 일노 영스연정 저를 험히 안단 말이 되는 말이나 혼번 말하고 파의하준 말이지 엇  
지 저를 험의하리오

이러트시 슈작하며 방안으로 드러가니 춘향이 삼등초 혼 딕 썩혀니여 빅통딕의 답아  
붓쳐 니픽두 쥬고 쏘 혼 딕 붓쳐다가 최픽두 쥬며 혼 냥 돈 집어니여 아희놈 쥬며

이 건너 김풍헌 집 밧비 가서 황소쥬의 썩을 타고 양지머리 츠돌박이 어셔 밧비 스오  
너라

쥬안상을 출혀 노코 술을 부어 권힐 적의 혼 잔 두 잔 셔너 잔의 스오비를 거후르니  
아조 마 음이 되는딕로 풀니여 혼는 말이

이 익 무숙아 우리가 저 아희와 스핀 정분이 우히 잇느냐 엇지 츠마 저를 잡으거든  
말이니 이만 일을 애들너 목쥬머니를 못 민드단 말이나 발서 죽어 영장하고 제 노모만  
이셔 츠마 설워 우더라 하면 아모 일이 업술가 혼노라

여숙이 딕답하딕

저를 보니 그 일이 잔잉도 하고 익를 썩셔 저 모양이 되엿는 거슬 그리 성화하여 구

지 잡아가줄 거슨 업스되 만일 염아리가 나서 날나리가 나는 판의 우리게 죄 나리는 거  
슨 시들부들하다마는 붓석 줍으드리라 하면 네 어미나 덕신 밧 치라느냐

춘향이 못는 말이

덕져 이거시 어인 곡절인가 쇼관식나 알고 가식

니픽두 니른 말이

통인의 윤득이가 방정맛고 입바른 줄 너도 즈셔히 알거니와 네 말을 툅툅 썩러다가  
스또 귀곰귀 달고질을 하엿고 또 스또라도 아는 법이 모진 바람벽 쏴고 나온 중방 밋꿇  
도람의 아들이라 서울서부터 네 쇼문을 원통으로 녀녀히 즈셔히 다 알고 내려와서 기싱  
점고홀 제 형방집니가 슈쇄하러다가 못하여 기혀히 불너드리라 만하고 한스하니 우리 타  
슨 팔결이라 우리는 조금도 녀녀 마라

춘향이 이 말 드르미

슈청 면키 어렵도 다 익고 이를 엇지홀고

하며 필경 이런 일이 이셔 도하고 원정지어 두엇더니라

하고 녀여 품의 품고 돈 닷 냥 녀여다가 픽두 줘며 하는 말이

이거시 약쇼하나 청중의 동관님네 일시 주빅나 지닉시오

여숙이 원손으로 바다 츠며 하는 말이

아니 밧는 거슨 네 정을 막는 거시기 밧기는 바드나 쏘흔 실노 바닷가야 나는 일 푼  
간섭 업다마는 네게 무엇 밧는 거시 얼굴이 쏘쏘하다 엇더하던지 우리네가 잘 꾸며 볼  
거시니 아모커나 그만 잇거라

하고 두 놈이 덕취하여 서로 마조 잇글고 관정의 드러갈 제 밋오 정신을 출히나 아조  
이 취하여 겨 유 드러가 고관홀 제 말을 되치지 못하여

춘향이 잡으라 갓던 픽두 연지알외오

스또 분부하디

춘향이 불너 덕령혼다

두 놈이 썸박썸박하며 알외디

춘향ियो 죽어오 엇지하여 죽어오

이놈 엇지하여 죽었다고

하더니

그리하리오 뉘가 그리하라드니 글세올시다 춘향이가 술잔인지 먹이웁고 또 돈 닷 냥  
인지 줘면서 그리하리오

니픽두 겹지르며

썬 이놈아 그 말은 왜 알외느니

최픽뒤 쏘 알외디

여보옵시오 이놈 보옵시오 그 말을 알외오지 말나 하고 역구리를 콕콕 지르웁니다

스또 분부하디

이놈 너는 무슴 말을 말나고 그놈을 지 르느니

니픽두 알외디 아니올시다 급히 단녀 드러오웁노라고 등의 썸이 나서 가렵습기의 글  
노라 하오니 팔노 그놈을 근더려습니다

스또 골을 녀여 호령하디

네 그놈드를 모도 다 모라닉치고 기증 영니혼 스령놈 부르라

뇌정긋치 분부하디

네 이제로 밧비 잡으 디령허라  
 긴 디답 혼 마디의 군노스령 청녕허고 성화긋치 밧비 나와 춘향의 집에 니르러서 호  
 흡이 천축허여 허는 말이  
 스람 죽깃엇다 밧비 가즈  
 춘향이 디답허디  
 이고 이거시 웬 말인고 말이나 즈셔히 아옵시다  
 말이나 절이나 가면서 허랑으 로 어셔 슈히 나셔거라  
 나눈 식도 움죽여야 나눈 술이나 먹고 가스이다  
 관술이나 오술이나 가다가 먹으랑으로 어셔 급히 나오너라  
 춘향이 홀 일 업서 돈 닷 냥 닌여다가 스령 주며 허는 말이  
 츠물이 스쇼허나 일시 주츠나 보티시오 군노스령 돈 바다 츠며 허는 말이  
 네 정을 막는 거슨 의가 아닌 고로 바다는 가거니와 마음의 겹연허다  
 춘향이를 압세오고 스령관노 뒤를 썩라 직사 압흐로 도라올 제 저 춘향의 거동보쇼.  
 허튼 머리 집어 쏏고 썩무든 현 적고리 다 썩러진 도랑초마 허리 우회 놀너미고 집신썩  
 을 감발허고 바람마즌 병인쳐로 죽으라 가는 양의 거름으로 원포석양냥냥비의 썩 일흔  
 원앙이오 일난춘풍화초간의 썩 일흔 나뉘로다 십오야 붉은 달이 흑운간의 썩허는 듯 금  
 분의 고은 썩치 모진 광풍의 썩넛는 듯 슈심이 첩첩허고 익뤼 만안허여 정신업시 도라올  
 제 관문 앓홀 바라보니 구름긋흔 군노스령 거동보쇼. 안기긋치 모헛다가 밧비 오라 직축  
 쇼리 성화긋치 지르거늘 뒤히 오든 군노스령 손을 드러 허는 말이  
 디먹쥬를 말시겠다 요란스레 구지 마라  
 군노스령 이 말 듯고  
 이 익 만일 그러 허면 중병으란 닌 당허마 스람 너모 모지 마라 히가 아직 머러시니  
 히 전의만 드러오면 엇더튼지 그만일다  
 이러특시 지저괴더라  
 군노스령 드러가 알외디  
 춘향을 디령허엿쇼  
 스쑤 반겨  
 밧비 불너드리라  
 군노스령 청녕허디  
 춘향이 현신 알외오  
 스쑤 나그어 안즈 얼굴 형상 즈셔히 보니 형산빅옥이 진토의 못챌는 듯 추파부용이  
 취우의 썩넛는 듯 옥안성모의 근심허는 빗출 썩엿고 원산아미의 시름허는 톱도를 먹음어  
 시니 원허는 듯 늦기는 듯 익연흔 형용이 스람의 일촌 간장을 다 녹이느니라 신관이 이  
 를 보미 먹음이 더욱 착급허고 의식 가장 황홀허나 그라도 먹은 감시 잇셔 남의 말을 드  
 를랴고 칩방 니낭청드려 못는 말이  
 이 스람 니낭청 춘향의 쇼문은 그리 고명허더니 지금 보미는 유명무실이로세  
 이 니낭청 즈는 서울셔부터 긴흔지라 디쇼스를 니낭청과 의논허면 콩을 가져 팻치라  
 허여도 곳지듯는 터이오 쑤 디답이 니현령 비현령허여 평싱 스면춘풍 두루마리라  
 이썩에도 혼가지로 잇더니 디답허디  
 글세 그러허오마는 바히 유명무실이라 홀 길도 업고 쑤 이제 유명무실 아니라 홀 길  
 도 업소이다

이 스람 혼 갓 외모의 추홀 분아니라 모모이 쓰더보와도 혼 곳 별노 취홀 더 업니  
 글세 그러호외다  
 이러트시 슈작홀 제 통인의 윤득이 알외오디  
 의복이 남루호고 단당을 폐호여 그러호옵지 의복단당 선명이 꾸미오면 쪽이 업는 일  
 식이오니 용스치 마옵쇼셔  
 신관이 이 말 듯고 쏘다시 녀넉히 보는 체호더니 호는 말이  
 과연 듯던 말과 갓다 이 스람 니낭청 저런 흥창호는 것드리 썩뭇고 바라지고 간악호  
 고 요괴롭고 예스롭지 아니컨마는 이거시야 진짓 녀염스리홀 지어미 될 듯 호외  
 글세 그러호오마는 녀염스리홀 지어미 되리라 홀 길도 업 고 쏘 정녕이 녀염스리 못  
 홀 지어미라 홀 길도 업소  
 이 스람 제 의복은 비록 허술호나 형산빅옥을 다듬지 아니호고 중추명이 흑운을 벗지  
 못흔 듯 호외  
 아모리 일식이라도 눈 각각 코 각각 쓰더보면 혼 곳 험은 잇것마는 이거슨 아모리 보  
 와도 편편금ियो 천향국식으로세 앓가 삼문간 드러올 제 잠간 쌍긋홀 마디의 나도 썰니  
 는 보앗지 닛속이 선슈박씨를 주홍당스로 조롱조롱 역거 주홍정반에 세운 듯호고 두 눈  
 섭은 슈나뵈가 마조 안즈 너홀너홀 노니는 듯 호더고만 제가 날을 속이라고 의복 형상  
 남루호게 호고 얼굴 단당 허술호게 호엿나보외 그거시 더욱 조커든 오리알의 제 쫘 무든  
 것 갓호여 어슈룩흔 줄 아는가  
 글세 그러호오마는 보기에는 어슈룩호다 홀 길도 업고 쏘 바히 어슈룩지 아니타 홀  
 길도 업소  
 이 스람 즈넉 말디답은 평싱 너출지게 둥글게 물에 물 타니 술에 술 타니 갓치 뒤숨  
 뒤숨이 호니 엇지호 말인고 허 답답흔 스름이로고  
 호며 춘향 불너 니른 말이  
 네가 춘향이라 호느냐 봄 춘즈 향긋 향즈 일홈이 위션 묘호고나 네 나히 몇 술이니  
 춘향이 동문서답 판전으로 디답호디  
 너일 몇츨키야 원두한의 집으로 디령호올지오  
 어허 니낭청 요 산드러진 맛 보게 그 말 더욱 조회  
 다시 분부호디  
 네 본디 창가천인이오 본읍 기싱으로서 너 도입시의 방즈히 현신도 아니호고 언연이  
 집의 잇서 불너야 오단 말이나 너가 이 곳의 목민지당으로 내려왔더니 너를 보니 췌 견  
 딜만호기로 금일부터 슈청으로 작정호는 거시니 빗비 나가 쇼세호고 방슈 츠로 디령호라  
 춘향이 엇즈오디  
 일신의 병이 드러 말슴으로 못호옵고 원정으로 알외오니 스연을 보옵시면 곡절 통촉  
 호시리니 의원시형 적이시면 화봉인의 본 을 바다 빅세축슈호외리다  
 어허 고이호다 어넉 스이 무슨 원정이니 너게 정호는 거슨 조마거동의 걱정이라 동서  
 간 처결이야 아니호라 형방이 고과홀 제 강성을 논혀 본읍 기싱 춘향의 빅활이라  
 우근진정유스단은 쇼네 본시 창가지엿ियो 요마천네나 강믹산죽지심빙옥결하지의로  
 춘불기츨불낙이옵더니 년전 리등좌정시의 여스또즈데로 일견광한누호여 빅년동쥬지의로  
 이슈금석지문호고 질정허신호야 우금삼지의 언연부부지의가 여산약호오 금번 체등시의  
 불득술거는 세고즈연이라 일편단심이 오미불망ियो 남북상리의 심담이 구렬이라 일구월  
 심의 단당소흔호니 여츰빙심을 슈스난별이라 빅골이 성진호고 혼빅이 미산전은 만무실절

이오 평심미망이오니 슈위쇼녀지약언이나 진정쇼회라 산활슈회라도 불릉즈탈이오며 금일  
스또 주미지천견인고로 망녕도이 존령을 위월이라 금일 분부는 성시상식이나 하정이 여  
초고로 부득봉승이온 바 동시스부지체모오 변동당부지심렬이라 심스동반지의리하고

통촉스정지간측이온즉 경무여초하문지리오며 우황면천에 이속디비이온 줄노 즈감양소  
어일월명덩지하호오니 복걸참상이시후의 특위방송을 천만망냥호술 기위형하향교시스 스  
또쥬 처분이라 모월 모일 쇼지라 호엿더라

형방이 취둥이라 고과 후 소지 노코 필흥 닉여 제스호디

건곤이 불노월당지호니 적막강산금빅년이라

쓰기를 맛고 춘향 불너

제스 스연 듯즈왜라

고성호여 읍흘 적의 신관이 이 모양 보고 목아지를 길게 섹혀 항시쳐로 비틀면서 괴  
가 막혀 쇼리 질너 호는 말이

니낭청 저놈의 형스보쇼 저놈을 싱으로 발길가 원통으로 주뢰를 홀가 세상턴디간의  
저런 놈도 쏘 잇는가

샹토 쏘가지 골을 닉여 디강이를 흔들면서 벽넉긋치 쇼리지르니

니낭청 디답호디

세상턴디간에 저런 놈이 어디 잇슬가 보온잇가마는 바른디로 말슴이지 세상에 저런  
놈이 바히 엽다홀 길힌들 잇스오리잇가

뇌정긋치 성닌 스또 벽넉긋치 호령호디

이놈으란 밧비 줍으 둥게 아리 나리오라

벌세긋튼 스령드리 성화긋치 달녀드러 갓 벗겨 후리치고 동당이쳐로 쓰어나려 둥게  
아리 쏘니거늘 스또 방울긋튼 눈망울을 선슈박 구을니듯 호며 여성호령호디

그놈을 혼 믱의 쳐죽이라

형방이 취둥이나 혼불부체 알외오디

쇼인의 죄가 무슨 죄온지 죄명이나 알고 죽어지이다

스또 분부호디

명정기죄호여 스무원심호라 이쇼지단은 여타즈별호여 별노제스홀디 관당이 기구전의  
즈단쳐결이 요마쇼리의 만스무석지죄라

좌우나줄 엄포호디

분부 듯즈와라

형방이 능갈이라 언정니순 알외오디

춘향의 원정스연 듯즈오니 지스위한호와 불변취죽지절이웁기의 상의를 봉승호와 낭상  
화미오 선악상반흔 제식오니 열네즈 쏘을 알외오리이다 건즈는 하늘 건지니 스또는 건이  
되웁고 곤즈는 썩 곤지니 춘향이는 곤이 되여 늙지 말고 혼곳의셔 달과 긋치 기러 잇서  
적막강산 집을 짓고 이제부터 빅년까지 히로호준 쏘이오니 스또 호제호웁시나 막과어초  
호웁시리이다

스또 이 말 듯고 스리를 숨숨 헤으리니 과약기언이오 여합부절이라 근본은 짹짹호여  
믹음 곳 들냥이면 앓기는 거시 엽는지라

다시 분부호디

저 아전 아직 분간호고 관청밧 부르라 목 포는 각 일 필 빅미 일 석이오 전문 니 낭  
남초 셔 근 당지 세 권 이디로 초하호라 괴특호다 괴야 방가위지 아전이로다

먹음의 상쾌하여 풀갓친 뒤집지고 덕청의 건니면서

춘향아 너 그 제스스연 드런느다 불긴흔 원정이라 혼변이면이야 고이하라 다시는 잔  
말 말고 밧비 올라 슈청하라 관청으로 의논하면 네 집 찬당 될 거시오 운량고는 네 고이  
오 목전고도 네 고 되고 일읍 주관이 네 당둥이라 이런 씨판 쏘 잇느냐

춘향이 엇즈오디

원정의 알원 말씀 분간이 업습고 다시 분부 이러호오시니 디비정속호 온 후는 관기가  
아니웁고 도련님 가신 후로 두문불출 슈절호와 만분지일이라도 널너의 본을 밧고져 먹음  
의 삭여스오니 분부거힘은 못호기쇼

신관이 니낭청 불너 호는 말이

계집의 혼두번 티도는 응당 절네판인 줄 아는다 업스면 무맛시니

글세 그러호외다

스또 춘향드려 달너는 말이

네가 그씨에 아희들기리 맛나 살고 쏘올기 맛 보듯 호야 식큰흔 맛세 그리호나 보다  
마는 하로 비들기가 직를 넘느냐 그러호기로 저런 서름을 보논고나 네 어른의 우거지국  
의 쇠옹도리째 너흔 듯흔 웅심흔 맛술 보아 무궁흔 즈미를 알양이면 째박 반호리라 이  
스람 니낭청 너가 평양서운 갈실 제 금절이년 슈청드려 삼천 냥 횡하호고 그외의 전후기  
싱 준 거슨 불가승원 줄 아는가 나는 엇지흔 성품인지 기싱드를 그리 주고 시부데

니낭청 디답호디

글세 그러호외다. 스또게서 디동출방 갓실 제 관비 혼 년 다리고 주고 그 년의 빈허가  
지 썩앳고 돈 혼 폰 아니 주엇지오 쏘 운산현감 갓실 제 슈급이 혼 년석 다리고 석달이  
나 슈청드리고 쇠천 혼 폰 아니 주고 도로혀 저의 은가락지 취식하여 주마호고 서울 보  
너엿지오 언제 평양서운 영변부 스 가서 기싱 횡하를 그리 후히 호야쇼

신관이 귀가 막혀 놓쳐 호는 말이

이 스름 괴롱 마쇼 저런 아희들 고지듯네 여보와라 저 말 고지듯지 마라 그럴 리가  
잇느냐 날을 스괴여만 보와라 아라듯느냐 싱각하여 보아라 노류당화는 인기가절이라 천  
만의외 너만 년이 정절 슈절 성절 덕절하니 그런 잔절을 말고 큼죽흔 희쥬신광절이나 호  
여라 네가 슈절을 호랑이면 우리 대부인은 썩 괴절을 호시라 요망흔 말 다시 말고 밧비  
올라 슈청하라

춘향이 엇즈오디

즈고로 열네하디무지리오 양구조어 엄즈릉도 간의티후 마다호고 즈릉디의 피우호고  
슈절의스 빅이숙제 불식듀속 호라호고 슈양산의 치미가를 노리호고 텃하진인 딘도람도  
화산석실 슈도호고 디순이비 향아녀영 혈누뉴황 썩라 잇고 뉴한님의 스부인도 슈월암의  
엄적호고 낙양의녀 계섬월도 천진누의 글을 읊혀 평싱 슈절호엿다가 양쇼유를 썩라가고  
티원썩 흥불기도 난세에 썩을 세워 만니당정 종군하여 니정을 썩라시니 몸은 비록 천호  
오나 절기는 막는 법이 업스오니 물밧히 밧친 달은 줍으너여 보려니와 쇼녀의 정흔 썩은  
촉싱의 앳지 못호오리이다 일단혈심 통촉 공익호읍서 방송호읍쇼서

이 스람 니낭청 요스이 횡창흔 계집이 오르라 호기 무섭지 어엿부지 아니흔 것드리  
어엿분 체호고 분 바르고 연지 썩고 궁둥이를 뒤흔들면서 장마기고리 호박넙히 썩여오르  
듯 신발 신은 치 마련업시 덤벅덤벅 오르것마는 이거슨 제법 반반흔 계집의 경계로세

니낭청 디답호디

나 보기에는 썩 드러줍은 경계 반반흔 계집이라 홀 길도 업술 듯호고 쏘 이제 바른

말씀이지 하 그리 경계업단 말흘 길도 업쇼

이 스름 즈네 말디답이 혼골스로 흐는 일이 업고 흑각 가로박 이로 거기둥혀여 몽그  
러지게 하니 그 어이흔 말디답인고 고이흔 인스로세

니낭청 디밧쳐 디답히디

또 이제 바히 고이흔 인스 아니라 흘 길도 업고 또 고이흔 인스라 흘 길도 업쇼

스또 눈슬집흐리고 흐는 말이

즈네는 웨 이리 씨양이질흐노 허허 고이흔 손이로고

골김의 우루저혀 짐짓 호령히디

요년 춘향이라 흐는 년의 쫄년아 오르라 하면 썩 오를 거시지 무슨 잔말을 고디지 즈  
리감스러이 흐노 티라도 혼 번 두 번이지 언마 므즈면 슬흘고 어셔 오르고지고

저 계집아희 싱각히디 저 거동을 보아하니 방송홀 니 만무하다 제 아모 리 저리흔들  
빙옥긋튼 너 마음과 금석긋튼 구든 뜻지 빅골이 진퇴된들 꿰절홀 니 만무하다 일이 밋서  
이 지경에 니르러시니 현마 엇지히리 죽을 밋기 흘 일 업다

악을 뼈셔 흐는 말이

일광노 갓튼 우리 도련님을 일조의 니별하고 일신의 미친 익한 일구일심 스라지니 일  
척단검 명을 밋쳐 일빅번 죽스와도 일심의 정흔 마음 일정 변치아니리이다 이슈등분빅노  
쥬라 니별낭군 썩난 후의 이군불스 본을 바다 이부불경하랴하고 이 마음을 곱게 먹어 이  
세상을 하직하여 이비의 절을 쓰라 이월한 식기즈쥬의 녁슬 위로호오리다 삼광은 텃상이  
라 삼싱의 곱은 인연 삼춘긋치 기러시니 삼흔칠빅 훗터저도 삼청동 니승지딕 삼한갑독  
우리 도련님을 삼천니 약슈라도 건너가서 삼신산 삼강슈로 오며가며 호오리다 스또라도  
스딕가서 다 보시고 스시당춘 외와 넓어 스빅년 동방례의를 스기둥의 박앗거늘 스고업시  
스또 손의 밋치런들 스딕턴왕 엄위라도 스면팔방 널니 보고 스시당천 곱은 마음 스지를  
씨즈셔도 스역불변호오리다 오류헿실 직헿 날을 오히려 모르시니 오월비상 나의 함원 오  
즈셔의 동문 결목긋치 오미의 스못치니 오형을 곱초와셔 오츠의 밋기거나 오리 오리 오  
리시오 오군문의 늣히 다라 오국강산 오히려긋치 오강의 썩우셔도 오히려 정흔 뜻은 일치  
아니호오리라 녹출기산하던 제갈무후라도 녹일산 못 죽이고 녹출기계 진평이도 녹가의  
말을 드러시며 녹상산 진도람도 녹정녹갑 못 부렸고 녹슈부의 부왕투슈 녹신도 성호엿고  
녹월념턴 더운 썩의 녹시를 흘지라도 녹도삼싱에 녹지긋튼 나의 밋세 녹신에 밋쳐시니  
녹니청산의 헿분부 마르시오 칠칠가기오작교의 칠십즈긋튼 우리 낭 군 칠탄긋치 만난 후  
의 칠거지악 죄도 업고 칠원산의 니별 업시 칠산바다 김흔 정을 칠년디한 비 바라듯 칠  
성단의 바람 비듯 칠월칠일 무인야의 칠현금 거문고로 칠성님께 칠칠슈로 비렷더니 칠신  
위나 예양인가 칠종칠금 밋학인가 칠야원한 무슨 일고 칠빅니 동정호의 초흔도나 되오리  
라 팔원팔기 어니 썩며 팔디금강 어디 간고 팔진도 진을 치고 팔공산의 팔환초목으로 팔  
과화쥬의 팔년팔일 스로시오 팔천제즈 강동호걸 팔년풍진 요란하다 팔션긋튼 나의 팔즈  
팔황으로 도 라간들 이리 박명호을손가 팔원츠를 흘니 티와 팔진국으로 보너시오 팔디긋  
튼 위력으로 팔팔걸이나 틀닌 말을 두 번 하지 마오 구회간장 스라지니 구절낭장 헿흔  
길노 구의산을 츀즈리라 구룡쇼 늣은 룡이 구뵈를 못 펼치니 구름긋흔 나의 신세 구슈긋  
치 스랸고나 구천의 스못친 원이 구원의 밋츠리라 구관 스또 선정비에 본을 바다 구구흔  
나의 구든 뜻을 구호쇼셔 구츠흔 이너 신세 구십소광 경을 쓰라 구관 즈제 언제 만나 구  
류촌의 춘송긋치 엿혀볼가 구곡슈를 구뵈구뵈 휘여다가 구름 비를 타고 갈가 구쥬를 도  
라 구명도싱 하랴하고 구턴선녀 명을 바다 구구팔십일 천축에 왕니하던 구계선의 렬절긋

치 구든 정을 구전지의 세세 성문호여 구둥궁궐에 살와볼가 십악되죄를 범호엿나 십니강  
산에 십면미복을 맞나고나 십월광풍 낙엽궤고 십니당정 뉴스궤튼 이 인싱 십년 성취 월  
왕궤치 십싱구스홀지라도 십지섬슈로 곱아가며 십왕전의 빅활이나 호오리라 십삼싱에 주  
류호고 십팔관에 회시호나 십칠년을 기른 뜻이 십방으로 도라간들 변홀 길이 바히 업너  
영천 한슈 휘여다가 나의 귀를 씻고지고 스또계셔는 국녹지신 되야나서 출당입상호시다  
가 파류불형 란세 오면 귀호 일명 슬나호고 도적의게 투항호여 두 님군을 섬기랴호오 통  
불사이군이오 렬불경이부여늘 불경이부 죄라 호고 위력으로 겁탈호니 스또의 통절유무를  
일노조촉 알니로다 녀심 품은 스또 압히 무슴 말슴 호오릿가 쇼녀를 범상죄로 이제 밋비  
죽이시오 그러호나 윈티로나 죽여주오 습진령을 노호시고 동방의는 청기 쫓고 서방의는  
빅기 쫓고 남방의는 홍기 쫓고 북방의는 흑기 쫓고 동양의는 황신기를 등두렷시 너여  
쫓고 숙정궤를 거러노코 좌독기를 두루다가 거궤촉누 농천검 드는 칼노 스또 친히 버히  
시되 별티마병 평균 치듯 빅송고리 싱치 츠듯 범아부의 옥두 치듯 텡그렁 버히시고 신체  
낭은 너여주고 목을낭은 드러다가 웅진소곰의 뜯게 저려 목함 속의 너흔 후에 다홍보로  
뜯서 두엇다가 한양가지 올녀다가 스또 조상 제지닐 제 제물노나 쓰읍쇼서

저 스또의 거동보쇼. 밍호갓치 성을 강변의 덴 소 췌듯 목을 쫓텍 움치면서 벽넉궤치  
쇼리호여 좌 우나줄 업포호디

조 년 밋비 나리오라

벌세궤튼 스령 나줄 왈학 췌여 달녀드러 춘향의 머리치를 선전시정 비단 감듯 상전시  
정 연줄 감듯 당도리 스공 닷줄 감듯 감쳐 풀쳐 풀쳐 감쳐 길 남은 둥게 아리 동당이쳐  
로 쓰러나려 형틀 우회 올녀 먹고 형방이 다짐 쓴다

살동녀의신이 본시창녀지빅여늘 불고스체호고 슈절명절이 하이위지곡절이며 우둥신정  
지초의 관령을 거역분더러 관정발악의 능욕관당호니 스극히연이 막츠위심시오 죄당만식  
라 업형둥치호읍시는 다짐이니 빅즈 아리 슈촌 두라 좌우나줄 업포홀 제 춘향의 여룬 간  
장이 봄눈 스듯 다 녹는다

올녀 미얏쇼

가즌 미 디령호라

집당뇌즈 거동 볼죽시면 키궤튼 곤당 길 남은 슈당이라 형당 티당 혼아름을 안아다가  
좌우의 팔으룩 쏘다노코

가즌 미 디령호얏쇼

스또 분부호디

만일 저년을 스정두는 패 이시면 너희를 곤당모호로 압정강이를 필 거시니 각별이 미  
오 치라

청녕집스 압히 셔셔 미오 치라

집당뇌즈 거동보쇼. 형틀 압히 뺨 나셔며 춘향을 내려다 보니 마음이 녹는 듯 뼈가 저  
리고 두 팔이 무괴호여 저 혼즈 호는 말이

이 거형은 못호깃다 구슬 티거홀지라도 춤아 못홀 거형이라

이리 주저호는 츠의 밋비 치라 호령쇼리 북풍한설 된서리라 혼 뇌즈놈 달녀드러 두  
팔을 췌너면서 형당 골라 손의 쥐고 형틀 압히 뺨 나셔서

스또 분부 이러트시 업호신디 저를 엇지 앓기릿가 혼 미의 죽이릿다

두 눈을 부릅쓰고 형당을 놓히 드러 검당소리 발마쇼아 번기궤치 후루치니 하우스 제  
강홀 제 부주호던 저 황농이 구뵤를 펼쳐다가 벽회를 쏘리는 듯 여름날 급흔 비의 벽넉

치는 소리보다 빅옥긋흔 고은 다리 쇠골하여 갈나지니 홍혈이 소스나서 좌우에 빗발치듯 뿌리는지라 춘향이 일신을 모진 광풍의 스시나무쳐로 발발 썰며 독을 너여 하는 말이

죽여주오 죽여주오 어서 빗비 죽여주오 열는 닝큼 죽이시면 죽은 혼이라 나다가서 한 양성등 드러가서 우리 도련님 츠즈리니 그는 스쏜의 덕택이올시다 슈절을 죄라하면 시칼 형문을 치웁쇼셔 고기를 썩지오고 눈을 감으니 옥결빙심과 난초괴질 부용화택 일각의 변하여 춘 지 되고 살점이 느러지고 빅골이 드러나며 뭇운이 쓰쳐지니 살기를 바랄쇼냐

좌우의 관광인이 가슴이 타는 듯 모다 눈물을 먹이고 덕신 맛고져하 리 만하 닻토아 드러가려홀 제

스쏜의 마음인즉 뒤가 물너 이 형상을 보고 인물을 아조 구귀이고 혀를 츠며 속으로 하는 말이

아모리 무지흔 시골놈인들 주뢰로 죽일 놈이로다 저리 고은 계집을 그리 몹시 박아칠 심술이 불양흔 망난의 아들놈이 쏘 어덕 이시리오 속이 부적부적 조야 못 보깃다 인물이 조만하니 마음인들 구드라마는 고덕지 아득하여 썩닷지 못하는가 이러듯 앗기면서 삼십도 텅 당하니 말이 못된 경이로다

이 스람 니랑청 고 년이 그런 줄 몰랐더니 밋기가 곳 고초로세 종시 풀이 아니죽네 그러나 너가 신정지초의 살인하기는 엇더하지

글세 그러하외다

이 스람 무어술 글세 그러하다 하노

옥스장이 불너 분부하디

저 년을 갖다가 가도되 다른 죄슈는 하나토 두지 말고 저 하나만 쏙 가도와 착실이 엄슈하라

옥스당이 분부 듯고 밋오 착실이 뵈려하고 덕답하디

저를 칼 썩워서 쇼인이 혼가지로 내려가 쇼인의 집의 괴별하여 밥을 하여다가 먹고 안즈나 누으나 한 착고의셔 밤낮으로 맛붓들고 상직만 하 오리다

이놈 너는 옷간의셔 직희되 바로 보지도 말고 도라안즈셔 각별이 슈직하라

옥스당이 분부 듯고 크나흔 전목칼을 춘향의 가는 목의 선봉디당 두고 쓰듯 허협석 쓰인 후의 칼머리의 인을 치고 거멸못스로 슈쇄하고 옥둥으로 내려갈 제 연연약질 저 춘향이 밍당삼십 마즈시니 제가 어이 징긋하리 겨유구러 부지하여 관문 밋기 나올 적의 혼 거름의 엇더지고 두 거름의 쓰러진다 거름마다 스슬 소리 연흔 간장 다 녹는다.

칼머리를 손의 들고 울며 하는 말이

나의 죄가 무슨 죄고 국곡투식하였던가 엄형등치 무 슴 일고 살인죄인 아니여든 항시 독쇄 웬 일이고 익고 익고 설운지고 이를 어이 하잔 말고 죄가 잇고 이러흔가 죄가 업고 이러흔가 유유창턴 증인 되여 한 말씀만 하여주오

이러트시 울며 관문 밋기 덕드르니 춘향어미 거동보쇼. 센 머리를 퍼바리고 두 손뼉을 척척 치며

익고 이거시 웬 일이고 신관 스쏜 내려와서 치민선정 아니하고 싱스람 죽이라 왓네 싱금긋튼 나의 딸을 무슨 죄로 저리 쳇노 무남독녀 외딸노서 춘 즈리 마른 즈리 갈희여서 쥘면 썩질가 불면 날가 썩 거스 너가 먹고 단 거스 저를 먹여 고은 의복 조흔 음식 듀야업시 고히하여 불둥싱남둥싱녀로 길너닐 제 이런 곡경 몽둥의나 싱각하며 의스에나 먹어시라 익고 답답 설음이야 이를 어이 하잔 말고

칼머리를 바다들고 데굴데굴 구을면서

익고 익고 설운지고 남을 어이 원망하리 이거시 다 네 탓시라 네 아모리 그리흔들 닭  
의 샷기 봉이 되며 각관 기싱 열녀 되라 스또 분부 드렸더면 이런 밋도 아니 맛고 작히  
쪼흔 썩판이라 돈 뵈 디 돈을 쓰고 뵈 뵈 디 뵈을 쓰고 쫄병 기름 염석어를 늙은 어미  
잘 먹이지 이 진정쇼 송구영신 기싱 되고 아니하랴 나 도 절머셔 친구 볼 제 치치면 감  
병슈스 나리치면 각읍 슈령 무슈히 것글 적의 돈 곳 만히 주량이면 일싱 잊지 못홀네라  
심난하다 슈절 슈절 남절이 슈절이나 훗날 만일 또 못거든 잔말 말고 슈청드러 실살귀나  
하려무나 너 죽으면 나도 죽즈 바라느니 너뿐일다

벌떡벌떡 갓바지며 하늘하늘 쉼놀 적의

이제 남원 스십팔면 왈즈드리 춘향의 밋마즌 말 풍편의 어더 듯고 구름갓치 모힐 적  
의 누고 누고 모혔던고 한숙이 틱숙이 무숙이 틱평이 결보 세둥이 도질이 부디치기 군집  
이 펄풍헌 준반이 회 근이축 등물이 그져 몽게몽게 모혀드러 겹겹이 둘러싸고 스면으로  
저희 각각 인스하며 위로홀 제 그둥 혼 스람이 드러다가 보고 밋비 쉼여 활터호로 단총  
올나가서 여러 한량보고 슈을 아쵸 혈덕이며 늦겨가며 목이 메여 혼는 말이

업다 마즈거든

한량드리 혼는 말이

네가 뉘게 마쵸단 말이나 디단이나 밋지 아냐느냐

디답하디

네가 마즈시면 뉘 아들 늬이 괴탄하랴 업다 곳 몹시 마즈거든 업다

제 어미홀 아회 금즉이 비밀하다 뉘가 마쵸단 말이니 네 어미가 마즈느냐 네 할미가  
마즈느냐 너의 년 석드른 움속의 잇더냐 마쵸 줄도 모르고 누구니 누구니 스람 성화하깃  
다

글세 무어시 마쵸단 말이니

허허 녀편네가 마쵸단다 녀편네가 마즈

한량드리 혼는

말이 짐작이 반이라니 그만하면 알깃다

신관 스또가 춘향 불너 슈청드린다 하더니 그 아회가 엇지하여 마즈나 보고나

디답하디 영낙 아니면 속낙이라

모든 한량 디경하여 서로 부르며 벌세갓치 노력올 제

이 익 운빈아 불상하다 성빈아 어셔 가즈 우리네가 아니 가면 뉘가 가리 갓 메여라  
옷 넘어라

편전갓치 노력와셔 한 모홀 헤치고 우당통탕 달너 드러 일변으로 붓치질하며 일변으  
로 칼머리도 들며

업다 이 아회들 좀 물너셔거라 스람 괴막히깃다

혼 왈즈 니다르며 부치질혼는 왈즈 칙망하디

이 즈식아 네가 군칠의 집 더부스리 술 제 산적 굶던 붓치질노 스람을 괴가 막히게  
붓치느냐

그리면 너는 부치질을 엇지하느니

그 왈즈 붓체 퍼들고 모호로 가마니 올나가서 가마니 내려오며 혼는 말이

즈 보쇼 춘향의 머리털 하나하나 찢딛하느냐

혼 왈즈 니드르며 혼는 말이

이 익들아 춘향의 얼굴을 보니 눈청이 써지고 낭협에 청괴 도니 아마도 막혀 나보다

이제로서 돈 가지고 한다름의 구리기 병문 드리가서 복춘다리 너머서며 남편작 셋지 디  
암 약계 웃모통이 건넌편 박주부 약국의 식로 지은 청심환 한 기만 나눈드시 가서 스오  
나라 동변강죽에 타먹여보즈

흔 왈즈 너드르며

업다 이런 즈식들 쇼견 보아라 언제 구리기를 가서 스오기느니 너가 고이흔 말일다마  
는 청심환 기나 이시니 먼저 쓰즈

흔 왈자 흐는 말이

네게 주저넘은 청심환이 어딴서 낫느니

그 왈즈 디답흐디

제 것 업는 즈식드리 직촉이야

흐고 주머니를 글너 청심환 흔 기를 너여노코 흐는 말이

나의 청심환 었던 이야기를 흔 거시니 드리보아라 간밤의 어루신너가 급작시레 정능  
곽난에 막혀 만분 위둥흐시기의 너가 몽촌의 들면 이부치의 단니기 거북흔지라 아직가지  
는 스르시게 흐즈는 본정이기의 아닌 밤둥에 약국의 가서 너 손씨로 었지 호통을 흐엿던  
지 약계 봉스가 혼이 써서 겹결의 청심환 두 기를 주거늘 검칙칙흔 마음의 슬며시 열는  
바다가지고 오며 싱각흐니 어루신너에서 더흐 닌들 갑 세치외에야 더먹이는 거슨 의가  
아니기로 흔 기를 몽퉁흐여 두엇 던 거시니 요런 썩에는 고뵈의 인숨이오 계란의 유골이  
오 마디의 웅이오 기침의 직칙이오 하픽음의 달각질이오 업친 디 뒤치고 직친 디 덩치는  
험이로다 이 즈식들 잡말 말고 어셔 어셔 갈아라 업다 입으로 말흐고 손으로 가는고나  
즈 보아라 오고가는 슈 밧긔 더 급히 었지 가느니

흔창 이리 가라가지고

즈 춘향아 정신출혀 마셔라

흐고 입의 다히니 발닥발닥 쏘로록 잘 마셨다

누고 입가식음홀 것 가졌느냐

흔 왈즈 너다르며

오냐 민강스탕 굴병 예 잇다 이번 북경짐의 식로 나온 것 품이 죠터라

다른 왈즈 흐는 말이

아서라 뵈 속의 단 것 먹으면 회성홀나

흔 왈즈

이것 먹여라

그거시 무어시니

전복일다

아서라

이 아희가 송곳니를 방석니가 되도록 가라서 니썰희가 다 쇼스느디 그거슬 씹기느냐

흔 왈지

이것 먹여라

그거슨 무어시니

홍합일다

아서라 홍합은 제계도 잇다

흔 왈지

이것 먹여라

이거슨 무어시니  
 석유로다  
 아셔라 석뉴당은 주지 마라 쉰 거스로 병이 낫다  
 혼 왈지  
 이것 먹여라  
 그거슨 무어시니  
 그 왈지 스미 속을 드러다 보며  
 이런 제 어미를 흘 것 어디로 갓노  
 흐고 성화긋치 발광하여 찾거늘  
 그거시 무어시니  
 어제 전녁의 이 넘어 도당곳 보라갓다가 도리씩 혼 죠각 어더 너흔 거슬 엇지들 알고  
 녀여 먹었느니 먹을 덕 드룬 귀신일다  
 혼 왈지 윈 스미의 물이 쭉쭉 듯고 김이 무릉무릉 나는 거슬 축 쳐지오고 드러오며  
 즈 에여라 치여라  
 흐거늘  
 그거슨 무어시니  
 제 어미를 흘 지식들 썩 흐면 왈학들 달너드느 꼴 보기 슬터라  
 혼 왈지 억지로 잡고 드리미러 보더니 앙턴디쇼흐는 말이  
 이런 좃들고 발길 망신했 즈식 보았느냐 뉘 집 마구의 가서 말구종 업슬 썩에 말쑹  
 살문 거슬 도적하 여 오논고나  
 그 왈지 성을 녀여 흐는 말이  
 너희들 눈을 혼디 못거셔 쏘아 드러다 보려무나 말쑹인 놈의 할미를 흐깃다 십상 메  
 주쑹이란다 네 어미를 붓틀 즈식들 아지 못흐고 아는 체가 웬 일이니  
 이러트시 닷토면서 여러 한량 왈즈드리 칼머리를 바다들고 구름긋치 웅위하여 옥둥으  
 로 내려갈 제 칼 멘 왈즈 선쇼릭 혼다  
 열닐네화 남문 열고 파루 쳃다 계명성이 도다오네 선후축이 썩져가니 발등거리 불 밝  
 혀라 열닐네화 열닐네화 요령은 징징 셔쇼문이오 만장은 표표 모화관을 치 마바회 도라  
 갈 제 담제군이 발브룅고 흥즈곡비 목이 멘다 열닐네화 열닐네화  
 혼 왈즈 너다르며 뽀닥귀를 썩 붓치거늘  
 옛구 이거시 웬 일이니  
 옛구라니 요 방정의 아들놈아 산스람 메고 가며 상두군의 쇼리는 웬 일이니  
 오냐 너가 무심이 잘못슨 흐엿다마는 죠인광좌등의 무안썩이 썩은 제 어미를 붓기에  
 그딴지 치느냐 이것도 가세로 메여먹느냐 너희들이나 잘 메여먹고 살아라 도모지 말을  
 아니하라 흐기의 만정 이거슬 메고 가라는 너가 열업슨 바삭의 아들이지 그말하여 무엇  
 흐리  
 흐면서 왈학 녀여 더지니 뉘히 썩르던 왈지 혼이 썩져 흐는 말이  
 이 익 저 목 보아라 이거시 뽀넉고 열오르느 좃시라 주리를 흘 즈식이라니  
 그 왈즈 흐는 말이  
 너희는 뉘히셔 부촉하여 오는 체흐고 등의 손도 너히보며 젓가슴도 만져보고 썩도 엇  
 지 다혀 만져보고 손도 쏘흔 톱툰이 쥐여보고 온갖 맛있는 간간흔 즈미와 은근흔 농창은  
 다 치고 우리는 두 돈 오 푼 밧고 모군셔는 놈의 아들놈쳐로 가면 조흔 줄만 알고 간단

말이나 다른 사람은 아회를 살오고 토틸 기른 줄 아노고나

이러트시 작난호고 그렁저렁 옥의 내려가 엄슈호니 모든 왈지 버러 안즈 위로호며 쇼  
일홀 제 혼 왈즈 노래브르디

공산작야우에 도스 만나 바독 두고 초당금야월에 창년 만나 주일두시 빅편이로고나  
명일은 두릉호한 단창 만나디 못고지홀가 스마천의 명만고문 당왕일소의 초천인 필법 뉴  
령의 기쥬와 두목지 호식은 일신겸비호여 빅년쥬스호려니와 아마도 빵전키 어려울손 디  
순증즈의 효와 룡방비간의 통인가 푸른 산둥 빅발웅이 고유독직향남봉을 바람 브러 송싱  
슬이오 안기 즈져 학정홍이라 죽억제금은 천고한이오 덕나덩도논 일년풍이라 누구 셔산  
적막 다드니락 무궁을 여러 왈즈드리 디여가며 가스 호나식 호노고나 무슴 가스들 호노  
고 하회를 불지어다

○ 남원고스 권지스

화설 이 썩 모든 왈즈드리 가스 하나식 흐즈 흐고 흐 왈지 춘면곡 한다.

춘면을 느지 썩여 죽창을 반기흐니 정화는 작작흐여 가는 나뭇 머무는 듯 안류는 의  
의흐여 세연을 썩여세라 창전의 덜 권 술을 박잔의 가득 부어 이삼비 먹은 후의 호탕코  
밋친 흥을 부절업시 즈아너여 빅마금편으로 야류원 츠즈가니 화향은 습의흐고 월식은 만  
정흐디 광직인 듯 취직인 듯 흥을 겨워 머무는 듯 비회고면흐여 유정이 셋노라니 취와듀  
란 늙은 집에 녹의홍상 일미 인이 사창을 반기흐고 옥안을 잠간 드러 웃는 듯 반기는 듯  
교틱흐여 마즈드려 추파를 암주흐고 녹의금 빗기 안아 청가일곡으로 춘의를 즈아너니 운  
우냥디상에 초몽이 다정하다 또 흐 왈지 처스가 한다 평싱아지 뜰 디 업서 세상공명 하  
직흐고 낭간슈명흐여 운림처스 되오리라 구승갈포 몸의 걸고 삼절죽당 손의 쥐고 낙조강  
노 경 조흔 디 망혜완보 내려가니 적적송관 다든 곳의 요요형원 기 좇는다 경기 무릉 조  
홀시고 산림초목 프르렀다 층암병풍 돌엇는디 빅운심처 되엿세라 강촌 어부갓치 되여 죽  
간스립 두러메고 십니스장 내려가니 빅구비거 쏘이로다 일위풍범 높히 다라 만경창과 홀  
니 저허 슈척은어 낙가너니 송강노어 비길손나 일낙청강 저문 날에 슈막춘변 도라드니  
남북어촌 두세 집이 십니모연에 잠겨세라

또 흐 왈지 어부스 한다.

설빈어옹이 슈표간흐니 즈언거슈승거산을 비 썩여라 비 썩여라 조조즈락만조니라 지  
국충 지국충 어스와 흐니 의션어부일견괴라 청고엽상에 양풍기요 홍요화변빅노한을 닷  
썩여라 닷 썩여라 동정호리가귀풍을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흐니 범급전산홀후 산을 진일  
범쥬연니거흐니 유시요도월등환을 어어라 어어라 아심슈쳐즈방괴을 지국충 지국충 어스  
와 흐니 고세승유무정거라 만스무심일조간흐니 삼공불환츠강산을 돛 지어라 돛 지어라  
산우계풍권조스라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흐니 일싱종적지창낭을 동풍서일초강심흐니 일  
편티기만류음을 비 저어라 비 저어라 녹평신세빅구심을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흐니 격안  
어촌삼낭가라 탁영가과정쥬정흐니 죽경시문유미관을 비 밋여라 비 밋여라 야박진회근쥬  
가라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흐니 와구봉 저독심시라 취티슈착무인환흐니 유하정탄야부지  
라 비 저어라 비 저어라 도화류슈궤어비라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흐니 만강풍월속어션을  
야정슈한어불식흐니 만선공지월명귀라 닷 지어라 닷 지어라 파조귀릭계단봉을 지국충 지  
국충 어스와 흐니 풍뉴미필지서시라 일즈지간상조션흐니 세간명니진뉴유를 비 붓쳐라 비  
붓쳐라 계쥬유유거년흥을 지국충 지국충 어스와 흐니 관티일성산슈록을

또 흐 왈지 언문척 본다

이날 디강둑의 화렴은 창천흐고 함성은 디진흐디 좌편은 한당 장흠 냥노군이 적벽 서  
호로 좇쳐오고 우편은 진무 쥬티 냥노군이 적벽 동으로 좇쳐오고 가온디는 쥬유 덩보 서  
성 정봉 디디션척이 화세를 썩 삼강구로 일시에 좇쳐드러오니 화세는 바람을 돕고 바람  
은 불위엄을 도으니 이 니른바 삼강슈전이오 적벽오병이라 북군이 살 마즈며 불에 타며  
물에 썩진 지 부지기 쥬러라

한 왈지 흐는 말이

나는 슈호지 보깃다

각설 송강이 강쥬성 밋기 나와 디중 니규 당순 등을 맞나지 못흐고 홀노 마음이 심심  
흐미 날호여 거러나가 경기를 구경흐며 나아가더니 한쥬루 압홀 지나며 우러 러보니 푸  
른 쥬기를 다랗는디 심양강 정괴라 흐엿고 첩하 밋기 소동파의 글시로 심양누라 뺏거늘  
송강이 니르디 낙운성현 잇슬 제 드르니 강쥬 심양 뉘 조타 흐더니 과연 올토다 닉 비록

혼즈 왓시나 그져 지나지 못흐리라 호고 누 압히 다다라 도라보니 문가의 주황칠흔 기동  
우희 분칠흔 띠 둘을 달고 각각 다섯조로 뻗시되 세간무비주오 텃하유명누라 호엿거늘  
송강이 누의 올라 난간을 지혀 눈을 드러보니 아로삭인 침하는 희빛히 바히고 그림 그림  
들보는 구름의 잠겨 시며 프른 난간은 창외에 나죽호고 붉은 당은 문 우희 높히 다랗는  
딕 취안을 두른 곳의 만첩운산은 청텃을 의지호엿고 프른 물 긴 강은 정조기동을 들었는  
딕 상서의 구름이 어리엿고 넉 끼인 강물의 흰 마름 꽃치로다 기어귀에 있다감 비 져는  
하라 비 돛 지우는 양을 보고 다락가의 푸른 실 느티남기 뿔식 울고 문 압 가는 버들에  
빗난 말을 미엿더라

엇던호 왓지 셔유기 본다 화설 삼당의 스승 제지 선당의 쉬더니 가을하늘의 달이 심  
히 밝거늘 산문의 나와 달을 완상호더니 횡지 왓 스승님아 달도 보롬이면 두렷호고 금음  
이면 여즈러져 그음이 잇것마는 우리는 그음이 업스니 언제나 경을 가져 동토에 전호고  
공을 일우리오 삼당 왓 스승 제지 모롬이 마음을 가작이 호고 틱심을 너지 아니호미 올  
흐니라 팔계 왓 나는 언제나 공을 일우고 음식이나 비블니 만히 어더먹을고 횡지 귀박회  
를 치며 왓 이 텃텃 도다지놈은 미양 음식만 싱각는다 호니 모다 웃더라 삼당이 도라와  
잠이 업서 공작경 일편을 외오고 프기를 베고 조오더니 문득 잠결의 드르니 선당 밧기  
슬픈 바람이 지나며 은은이 당노야 호는 쇼리 나거늘 삼당이 혼미둥 머리를 드러보니 문  
밧기 호 당지 원몸의 물을 흘니고 섯거늘 삼당이 꾸지져 왓 네 엇던 요괴완디 이 반야삼  
경의 와 날을 희롱호는다 나는 욕심 만흔 상중이 아니라 도덕 높은 당황제 흠치어제오  
또호 슈하의 세제지이시니 근검호여 뵈홀 만나면 길을 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노코 놓  
을 항복밧느니 너 천엿 요괴 왓다 호면 그져 두지 아니호리니 밧비 가고 선당 근처의 어  
른거리지 말나 그 스람이 눈물을 먹음고 갈오디 나는 요괴 아니라 보상국왕이로라 호거  
늘 삼당이 눈을 드러 보니 과연 용포옥당의 평텃관 쓰고 빅옥규를 쥘여시니 연연호 군왕  
의 상이여늘 삼당이 놀나 썩다르니 침변일몽이라 음풍은 습습호고 잔등은 명멸호디 제조  
들은 잠을 너이 드러 코 고호는 쇼리 우레 갓더라

한편의셔는 노름호다 일성옹주덩꼭지 삼년적니관산월이라 장님슈폴의 범 권다 세목  
죽엇는디 네목지 간다 이번 쵸즌 당이야 쫓고 실가 곤이 장원 못지거든 가란잇가 한편의  
셔는 빅스아삼오록호고 쥘부 리스오삼록호고 제칠삼오 제팔관니 묘호다 열여덜식 드리소  
한편의셔는 네디갈슈야 오구일성이로고나 어렵다 조장원 맛초기 반식호즈 석뉴먹든 뼈나  
그만 잇소 척척 쳐서 섯거쥘여라 석조는 하공정이로고나 바닥 들지 님홀 너소 어디 갈가  
이 익 호즈던 반이나 호즈

또 한편의셔는 삼십삼천 바로 쳇다 뵈둥이를 드리소 당당홍의 증초립에 건양씨를 넘  
는고나 벌거호다 이스칠 드리소 한편의셔는 소상강 세우중의 증성이 정정이라 축으로 물  
니여 이 말은 죽네 검은 니 안말은 오궁도화십스슈로 죽는 줄노 보왔더니 전마 몹시 버  
렷고나 여기 호 구멍 잇다 그러치 또 한편의셔는 점점홍설슬한풍의 목난간학 정홍이라  
오록 줄록 또 한편의셔는 장군엽이 야귀호니 적위호어 중슈로다 장이야 군이야 말 썩 궁  
밧최고 차 올라 장이나 아셔라 그거슨 외통일다 또 한편의셔는 펄펄상쥘 덜격히쥘 연디  
남산 진동장군 돌통황제 호위군관 다 나온다 낮고나 팔상초도 옥호디상의 녀산칠십니 도  
다나온다

한편의셔는 탁견 씨름 주정 뽕흙 이렛트시 분난홀 제

옥스장이 호는 말이

여보시오 이리 구시다가 스쵸 염문의 들니면 우리등이 다 죽깃소

한 왈즈 너다르며 흐는 말이

여보와라 스또 말고 오또가 염문 말고 소곰문을 흐면 누구를 날노 받기느냐 기싱이  
슈금흐면 우리네가 출입이 응당이지 네 걱정이 웬 일이니

한 왈즈 흐는 말이

아셔라 그 말 말라 우리네가 제 소일하여 주라다가 제게 히롭게 흐는 거슨 의가 아닐  
다

중병너여 그리저리 hotter지니 춘향의 거동보소. 정신을 겨요 찰여 눈을 드러 살펴보니  
옥방 형상 가이업다 압문의는 살이 업고 뒤벽의는 외만 남아 시절은 남월이라 삭풍은 썩  
를 불고 삼미아기 핫 날니니 골절이 저려온다 북풍한설 찬 바람은 살 쏘드시 드러오니  
머리 끄히 서리 치고 손발조츠 어름갓다 거적즈리 현 누비에 그리저리 겨울 가고 봄이  
지나 하늬월이 다다르니 완연한 구쉬로다 현 즈리에 벼룩 빈디 여원 등을 파종하고 풀썩  
업는 모기들은 비가죽을 침질홀 제 천음우습 구즌 날의 귀곡성이 처량하고 혼흑턴지 어  
둔 밤의 옥 고초가 괴지업다. 이팔청춘 절디가인 가련이도 되것고나 향기로온 상산난초  
잡풀 속의 못쳤는 듯 말 잘흐는 잉무시가 놓 가운데 갓쳤는 듯 청계슈의 노든 고기 그물  
속의 걸넛는 듯 벽오동의 길든 봉황 형극 중의 드렸는 듯 십오야 밝은 달이 세구름의 싸  
혔는 듯 초창적막 홀노 안즈 주야당탄 우는 말이

하로 이틀 한 달 두 달 이틀 엇지 흐잔 말고 북희안치 소무고절 안독셔신 풀니엿고  
유리슈옥 문왕디덕 미녀선마 노히엿고 봉당금고 이응이도 이제하중 노헛고나 무쥬 구슈  
이닝 몸이 어이하여 노혀불고 청턴의 썩는 구름 눅흙도 눅흙시고 저 구름의 올라서면 님  
계신 디 볼 거시오 만경창과 저 물결은 주야당턴 흘러가니 저 물 갖치 흘러 가량이면 님  
의 곳의 가란마는 일거월저 오릭간들 은은일념 이즐손나 옥중명월 긴긴 밤의 독의셔창  
빔기 안즈 산운희월 바라본들 속절업시 켜는 간장 놀다려 니를손가 밤의 깃히 못든 잠을  
낮 버기의 잠간 드니 몽니희우 서로 만나 피츠 상스 니를 적의 경박홀손 일쌍 호접 두견  
성의 hotter지니 여견불건 황홀하다 스몽비몽 분별홀 제 헛트리진 십이운발 빈혀 쏘기 니  
젓고나 슈월춘풍 스시절은 뵈오리의 북 지나듯 적연무인 혼즈 안즈 싱각는 니 님 썩이라  
소소낙목 부는 바람 나붓기는 의상이라 향흔옥골 스라질 제 주루만협 흐는고나 보고지고  
우리 낭군 엇지 그리 못 오노고 춘슈 만스틱하니 물이 막혀 못 오시나 하운이 다괴봉하  
니 뵈히 눅하 못 오시나 가련금야숙창가라 스랑 괴야 못 오시나 주마투계유미환이라 노  
름 잠겨 못 오시나 오날이나 편지 올라 너일이나 소식 올라 응당 한 번 오련마는 이럴  
니가 업슬노다 바라보니 아득하고 싱각하니 목이 멘다 공방미인독상스는 날노 두고 니른  
말이로다 동원도리편시춘은 삼월모춘 슈심시오 공산낙목우소소하니 스월남풍 슈심이라  
오동야우 잠썩 후의 실술성이 슈심시오 겨울 가고 봄이 오니 송구영신 슈심이라 비 취금  
원앙침 공작병 합환연이 호스도 되려니와 연분을 위헌 쏘지 이제로 보와하니 니별이 슈  
심일다 니별에 설운 쏘을 놀다려 니를손나 가슴이 다 타오니 님 그리는 화렬시오 눈썹의  
미친 한이 님 그리는 화렬이라 혈육으로 삼긴 몸이 이리 설고 엇디 살니 나 죽고 님 죽  
으면 그제야 원슈 되야 나 조코 님 조흐면 그 아니 연분인가 니정의 흥불기는 남북으로  
중군하고 탁문군의 봉구황이 고금이 다를만정 인심이야 다를손나 왕소군 반첩여는 고금  
이나 상스일념 원헛기야 마음은 혼가지라 셔 왕모의 청도연과 소중낭의 흰 기력기 이런  
썩의 잇실진디 소식이나 전홀 거슬 화월갓치 맑은 얼굴 표표하여 눈의 암암 건곤은 유의  
하여 우리 둘을 삼겼는디 세월은 무정하여 옥빈홍안이 공너로다 나며들며 오락가락 님  
가든 길 바라보니 이닝 상스 허식로다 무정세월은 물 흐르듯 도라가고 유의한 우리 인싱

이별의 다 늙는다 녀관한 등에 깃회도 숲흐거든 벽창공방의 님 이별을 니를손가 공산야  
 월 점문 날과 천음월혼 우습홀 제 깃을 둘너 초흔흐면 영이별이 이썩로다 저 근덧 가미  
 하여 썸의나 보즈흐되 슈심 겨워 잠 못드니 타괴황형 저 썩소리 막교지상 우지 마라 네  
 우름의 잠 못닐워 님의 곳의 못갈노라 신무우익하니 바라본들 어이흐리 세류춘풍 저문  
 날과 오동청노 추월야의 이리 그리고 엇지 살니 달은 밝고 바람은 찬디 밤은 길고 잠 업  
 세라 넷일을 숨숨 세아리니 엇지 아니 설운손나 덕급금슈 탕님군도 하결의 포악으로 하  
 디옥의 갓챇다가 도로 노혀 성군 되고 만고성현 공부즈도 광썩히 욱을 보나 도로 노혀  
 성현 되고 명덕신민 주문왕도 상주의 음악으로 뉴리옥의 갓챇다가 도로 노혀 성군 되고  
 정충디절 소중낭도 흥노의게 잡혀가서 북희상의 갓챇다가 고국으로 도라오니 이런 일노  
 보와서는 익미흔 이니 몸이 형혀나 옥의 나셔 세상 구경 다시홀가 익고 익고 설운지고  
 주야당턴 우름 운들 속절 춘향 전혀 업다 오늘날이나 방송홀가 닉일이나 디스홀가 밤낮으  
 로 기다리나 노홀 쫓은 전혀 업고 취중의 주망 나면 썩썩 울너 중장하여 월삼동초 좌괴  
 마다 지만하라 슈죄흔들 송빅갓치 구든 절기 북풍한설 두려하라 익고 이를 어이흐리 죽  
 을 밧기 홀 일 업다 빅병이 충싱하니 속절업시 나 죽깃네 우리 도령님 한 번만 보고지고  
 한 번 보고 그 썩 죽어도 한이 업고 즉금 죽어도 한이 업고 이 즈리에 죽어도 한이 업깃  
 네 이 몸이 죽기 전의 아모조록 보고지고 알프기도 괴지업고 침기도 가이업다 마디마디  
 석는 간장 드는 칼노 점여니여 산호상 빅옥함의 점점이 담아다가 님의 눈의 뵈고지고 보  
 신 후의 석어진들 관겨하라 첩첩히 놓흔 봉의 즈고가는 저 구름아 나의 슬픈 눈물 빗발  
 삼아 품어다가 님 계신 옥창 밧기 뿌려주렴 이렛트시 앓흔 몸이 님을 보면 나흐 리라 슈  
 심가를 지어니니 닉 몸이 녀즈 되고 군즈를 스모하니 빅일이 무정하여 세월이 깃혀가니  
 전전반측하미 청춘이 가석이라 삼춘의 깃흔 병이 골슈의 드러시니 가슴에 석은 피를 편  
 작인들 어이홀고 문전뉴 창외미는 가지마다 춘식이니 금스로 밧쫓시며 빅설노 다듬었다  
 무한춘광은 어이하여 나의 회포를 도도는노 인싱부득김쇼년은 나도 잠간 알것마는 동원  
 도리편시춘을 님은 어이 모르는고 탁문군의 거문고를 남산 송빅슈로 월노승 밧즈니여 우  
 리 인연 밧고지고 죽지스와 미화곡을 님의 일홈 숨아 더져두고 무인성 월황혼의 한숨 썩  
 거 노리흔들 그 뉘라서 츠즈오리 창턴이 알 니 업고 야식이 처량하다 상스일님 못 니괴  
 여 북창을 의지하니 식벽서리 찬 바람의 숲히 우는 저 흥안아 요량한성의 남은 간장 다  
 석는다 나의 회포 그려니여 님의 곳의 보니고져 인비목석이니 어이 아니 감동하리 어와  
 닉 일이며 약슈삼천년의 청조를 바라거늘 동풍작야우의 몽혼이 날것고나 청스빅녹이 길  
 을 그릇 인도하여 님의 곳을 아니 가고 거미줄의 걸넛시니 가석하다 나의 신세 흥안박명  
 가련하다 어와 설 운지고 이싱에 품은 한을 후싱의나 즐기려 원하느니 텃지 일월성신 후  
 토는 어엿비 녀이쇼셔 어미드려 니른 말이 니가 만일 죽거들낭 늑진장포로 즐썩 동혀 명  
 산디천 못지 말고 한양성니 올너다가 디로천변 못더쥬면 도령님 왕니시에 음성이나 드러  
 보세

춘향어미 하는 말이

경 업슨 쇼리 하지마라 도령님이 썸의나 너를 싱각하라 소견업시 싱각 말고 미음이나  
 먹어보라 네 병세를 요량하니 회춘하기 망연하다 님 그리는 상스병과 밧 마즌 장독중에  
 음식을 전패하고 산귀신이 되것고나 집 안즁물 방미하여 의원의게 문병하고 무녀의게 곳  
 슬 하여 살니기로 익를 썩들 님 그리는 상스병에 무슴 효험 잇슬쇼나

춘향이 디답하디

아모것도 나는 슬소 혈육으로 삼긴 몸이 이리 썩고 어이 살니 죽즈하니 청춘이오 스

죽으니 고성이라 전심 조1악 아닐진디 가증동토 정녕하다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지라 하여시니 지성으로 기도하면 관직귀절 소멸홀가 틱일독경 하라 하고 온갖 경문 축원한다

불설턴디 팔양경과 삼귀삼지 삼지경에 금강경 틱세경 공작경 반야경 도왕경 턴슈경 도익경을 다 넓으며 안틱경도 넓으리라 여시아문 일시불공 장보살 관세음보살 온갖 경을 다 넓으며 무당 드려 굿술 하디 야락산초논 삼천죽절노 풍덩 드리쳐 쫓구경 가라하오

이러트시 굿술 하되 반점 효험이 업셔시니 이를 엇지 하잔 말고 속절업시 나 죽깃넌 춘향어미 슬피 울며

익고 익고 설운지고 나의 팔지 기박하여 삼중의탁 다 바렸다 조상부모 주라나서 중년의 상부하고 말년의 와 너 하나홀 두엇더니 저 지경이 되여시니 늘 바라고 사즈느니 한군스 제갈냥도 갈충보국하라다가 오장원 추야월 에 장성이 썩러지고 등피셔산 빅이숙제 불스이군하라다가 슈양산중 아스하고 주류턴하 지즈추도 할고스군하라다가 면산중에 불타 죽고 삼너디부 굴원이도 위국진통 익쁘다가 먹나슈의 썩져있다 너도 려너 되려거든 기천 굵기나 썩지려무나 너를 비고 조심홀 제 석부정부좌하고 할부정불식하며 목불시샤 식하고 독부답위지하여 십삭 몸을 조히 가져 너를 나하 기를 적에 즈느니 너가 눕고 마른 즈리 너를 뉘여 부중싱남중싱너를 너를 두고 니르미라 치단으로 몸을 빠고 보 옥으로 장식하여 말년 영화 보짖더니 흥안박명 네로고나 저리 될 줄 엇지 알니

이러트시 초조하여 주야업시 서로 붓들고 우름으로 세월을 보너나 니도령의 소식은 마춤니 묘연하더라

초설 니도령은 경성으로 올라와서 은근이 저를 위헌 정이 가슴의 못시 되고 오장의 불이 되여 운산을 창망하미 신무우익 한탄하고 몽혼이 경경하여 밤마다 관산을 넘나드니 꿈의 단니는 길이 주최 곳 나랑이면 님의 직창 밧기 석노라도 다들이라 아모리 싱각하여도 홀 일 업다 너가 만일 병 곳 들면 부모의게 불효 되고 저를 엇지 다시 보리 학업을 힘써 공명을 일우랑이면 부모의게 영효 뵈고 문호를 빗닐진디 너 스랑은 이 가온디 잇시리라 하고 주야불철 공부홀 제 일남첩기 지스여든 주마가편 무려하다 니적선옹고리상이 오 뉴중원시단문장을 가련 한퇴지 하쳐오 유유딩동양조향이로다 황산곡니미천슈오 빅낙 천변안일형을 두즈미인금적막하니 도연명월구황냥이라 이런 문장 가쇼하다 당시에 괴직로 한묵의 독보하니 국티민안하고 시화세풍이라 강구에 격 양가는 연월이 곳곳지라 방경 누흡하여 알성과 비시거늘 시지를 엮히 끼고 춘당디 드리가서 현제판 바라보니 강구에 문동요라 두렛시 거렛거늘 금슈간장 창희문장 희제를 싱각하고 농미연에 목을 갈고 순황모 무심필을 반둥둥 흠석 프러 왕희지 필법으로 도딩보의 체를 바다 일필휘지하니 문불가점이라

일천의 선정하니 상시관이 글을 보고 칭찬하여 니른 말이

글시를 불작시면 농식비등하고 글귀를 보랑이면 아모라도 귀신이 곱하깃다 체격은 굴원이오 문법 은 한퇴지라 주주이 비점이오 귀귀히 관주로다 상지상에 등을 막혀 당원급제 하것고나

금방에 날흠 쓰고 턴은을 숙스하고 어쥬 삼빅 마신 후에 몸의는 청삼이오 머리에논 어스화라 천금준마 빗기 타고 당안디로 화류등의 헌거로이 도라올 제 썩르느니 선달이오 브르느니 신리로다 이원풍악은 환턴하고 금의화동은 쌍져를 밧기 부니 단산추야월에 칙봉의 소리로다 청운낙슈교의 시절이 틱평이라 노류당화 우거지고 거리거리 격양가를 브를 적의 황화문전 다드르니 부모형테와 종족친봉 향당교리 드리 제성 칭찬하니 세상의 조흔 거시 급제 밧기 쏘 잇는가

삼일류과호 연후에 선영하의 소분호고 켄하의 숙비호니 성상이 인견호샤 반기시고 무  
르시디

불츠로 쓰려호니 너직들의 무슴 벼슬 외직들의 어너 곳을 소원디로 알외여라

니도령이 고두스은호고 쥬 왈

소신이 년소미직로 천은이 망극호와 소년 급제 호와시니 황공무지호와 알월 바를 모  
로오나 텃은지하의 감히 은휘치 못호올지라 왕화불급 원방의는 탐관오리 슈직곡법 환과  
고독 민간질고 알 길 업스오니 어스를 시기시면 민간의 질 고와 각관의 탐관오리 넉넉히  
삶혀다가 탐전에 알외리이다.

성상이 드르시고 칭찬호시디

기특하다 늑흔 벼슬 다 바리고 암행어스 구흔 쫓은 보국통신 네로고나

전나어스 특츠호시니 평싱의 소원이라 엇지 아니 감축호리

즉일 발행호을 적의 어전의 하직호고 집에 도라와 고스당 허빅호고 부모의게 하직호  
고 금의를 다 바리고 철디 업슨 현 파립에 미명실노 쓴을 호고 당만 남은 현 망건의 갓  
풀관즈 도희당슨 줄나 밋고 다 써러진 뵈도포를 모양업시 거러입고 칠푼짜리 목분합씩을  
홍복통을 눌러미고 하여진 맛부치를 웃다님으로 잘끈 밋고 변죽 업슨 스송선을 손의 쥐  
고 남디문을 너다라셔 군관 비장 서리 반당 녀니호 군 틱출호여 변복시겨 남 모르게 선  
송호고 암행으로 느려갈 제 칠푼 팔푼 니문동 도적골 쪽다리 지나 청푼 빅다리 돌모로  
동적이 밋비 건너 승방썰 남타령 인덕원 과천 갈피 스근평 군포너 미력당 지난 후의 오  
봉산 브라보고 지지디 올라셔셔 참나무정 열는 지나 교구정 도라드려 당안문 드리다라  
팔달문 너다라 상류천 하류천 준기골 썩전거리 중밋 음의 단위 칠원 소식 비트리 천안삼  
거리 진계역 지나 덕평원 진숙원 식숫막 번듯 지나 공쥬 금강을 헛근 지나 은진 닭다리  
능기울 삼네 지나 녀산 고산의 전쥬가 여기로다 슈의어스 철관풍치 심산의 밍회로다

열노 각읍 슈령드리 어사 썩단 말 풍편의 어더듯고 네 공스 다 바리고 식 공스 닷글  
적의 뇌정에 벽녁이라 관속드리 송구호여 관청밋춘 가슴 치고 니방아전 속이 탄다 관전  
목포 환상전결 복슈문서 닷글 적의 스결의 한 짐 열 못 늑결의는 석 짐 닷 못 팔결의는  
닷 짐 열 못 우의 두짐 닷 못 쫘아서 슈힌 석 짐 닷 못시라 동창 서창 미전목포 무턱으  
로 너입이라 니방은 부르거니 호방은 쓰거니 한창 이리 쓸을 적의 부모불효 형데불화호  
는 늑과 탐관오리 염탐호여 이리저리 단니면서 열읍 소문 드른 후의 노구바회 지나 임실  
을 달너드니

이썩는 춘삼월 호시절이라 만해방창호고 일난풍화호며 산천경지 거룩호여 외향물식이  
썩호 왕도의 승호미 만터라 어시 마음이 어즈럽고 몸이 곤뵈호지라 다리도 쉬며 경기도  
귀경호려 화류간의 안즈 스면을 삶혀보니 원산은 똥똥 근산은 첩첩 티산은 막막 기암은  
층층 당송은 낙낙 간슈는 잔잔 비오 리 똥똥 두견 접동은 좌우의 녀노는디 열업슨 산썩  
옥이는 이 산으로 가며 썩옥 저 산으로 가며 썩옥 우름 울고 썩 호 편 바라보니 모양 업  
슨 슈국식은 저 산으로 가며 슈국 이 산으로 가며 슈국 우름 울고

썩 호 편 브라보니 만니산 갈가마피 돌도 차돌도 아모것도 못 어더먹고 티빅산 기슭  
으로 갈가오 갈가오 울며가고 썩 호 곳 바라보니 층암절벽간의 홀노 웃둑 썩는 고양남무  
것츠로는 비루 먹고 썩 먹어 속은 아모것도 업시 아조 텡 뷔엿는디 부리 썩족 허리 질늑  
썩지 못둑호 썩져구리 거동보소. 크나큰 디부동을 한아름 드립더 흠석 안고 썩두덕 썩  
벽거리며 썩두덕 썩벽 구을니는 쇼릭 권들 아니 경일쇼냐

썩 호 곳 바라보니 각식 초목 무성호디 천두목 지두목 빅즈목 흥즈목 느러진 당송 부

러진 고목 넓적 썩갈나무 산유죽 검핑 느름 박달 능슈버들 한 가지 느러져 한 가지 평퍼  
져 휘넙느러져 구비층층 뒹쳐논디 십니 안의 오리나무 오리 밧기 십니나무 마조 섯다 은  
헝나무 님 그려 상스나무 님 맛초와 쪽나무 방귀 꾸여 쑥나무 한 다리 전나무 두 다리  
들미나무 하인 불너 상나무 냥반 불너 귀목나무 부쳐님전 공양나무 이런 경기 다 본 후  
의

또 혼 모롱 지나가니 샹평 전 하평전 농부드리 갈거니 심으거니 탁주병의 점심고리  
겻티 노코 격양가 노리흐니 그 노리의 흐여시디

시화세풍 티평시의 평원광야 농부네야 우리 아니 강구미복으로 동요듯던 요님군의 버  
금인가 얼넉넉 상스디 함포고복 우리 농부 천추만세 즐겨왜라 얼넉넉 상스디 순님군 밋  
드신 장기 녀산의 밧출 갈고 신농시 밋든 썩뵤 천만세를 유전흐니 권들 농뵤 아니신가  
얼넉넉 상스디 어서 갈고 드러가서 산승갓흔 혀를 물고 잠을 든다 얼넉넉 상스디 거적즈  
리 칙 혀 덥고 연적갓튼 젖슬 쥐고 얼넉넉 상스디 밤든 후의 한 번 올라 돌송이를 비즌  
후의 즈식 하나 밋들니라 얼넉넉 상스디

이리 한창 노닐 적의 어식 돌통디의 담비 혼 디 담아들고 농부다려 흐는 말이

담비불 쯔 밧치즈넛가

모든 농부드리 어스를 보고 모도 모혀 들너안즈 우슴거리 밋들 적의

이분너 어디 삼나 요런 밋시 구경흠소 실 팔나 단니시오 망건 압흔 덜 썩습나 썩떡산  
이 어즈럽소 동썩러진 말 뉘게다가 흐노 약계 모롱이를 헐고 병풍 뒹히셔 잠즈다가 왓습  
나 이 스람 들 그만두소 보와흐니 그리야도 철쫓칠세 당초의논 외입흐고 선이 노던 왓지  
로세 의복 썩은 그려흐나 옷거리논 제법일세 즈시는 담비디 정장을 몇번이나 맛나넛오  
이 스람들 가만두소 저런 스람 무서우니 아님밤의 단니다가 춤화흐기 남의 집의 드러가  
서 무삼 물건 도적흐기 일슈니라 이 익 이것 귀경흐라 박조가리 관즈로다

엽구리를 썩 지르며

이 익 보소 마다흐오

그 쯔 혼 늙은 농뵤 너다라 말니는 말이

이 스람들라 그리 마라 풍편의 얼논 드르니 어스 썩단 말이 이시니 이 스람 팔시 마  
소 그도 바히 밋물은 아니기로 세폭즈락 에 동썩러진 말흐니 과히 팔시 마쇼

어식 너심에 헤오디

스람은 늙어야 썩단 말이 올라

흐고 무삼 말을 흐려홀 제 또 혼 늙 너다르며 흐는 말이

에라 에라 그만 두라 모양 거룩흐옵시다 주제 썩러흐면 냥반이 아닌가 웨들 그리구노  
냥반 디접 아니로세 영종조의 계시더면 인물당상 어디 가며 남원싸히 드러가면 춘향의  
셔방 되리로다

모든 농뵤 골을 너여 썩을 치며 흐는 말이

빅웃갓튼 춘향이를 제 아모리 업다 흐고 뉘게다가 비기느니 밋친 늙이로다

저희길리 다토거늘 그 곳을 후리치고 한 곳을 다드르니

계석총님 유벽흐고 은 근유흥 식로왜라 풍편의 종경소리 들니거늘 츠즈가니 산간 불  
당이라 판두방 드러가니 승속 업시 거동보쇼. 걸인으로 디접흐여 밤을 겨유 지닐 적의  
소년선비 공부긔드리 어스 보고 박장디소 온 가지로 보치거늘 어식 정식흐고 니른 말이

상업시들 구지 마오 선비 도리 희연흐오

여러 선비 의논흐디

제가 만일 낭반이면 밥주이나 알 거시니 운즈 불너 글 짓거든 우리 저를 경덕하고 글을 만일 못 짓거든 타둔방축이 맛당하다

하고 운즈를 강운으로 창창강당강 다섯 즈를 다투어 주니 응구첩디 지어시디

위연위직도방창하니 약 포춘싱구절창을 첩외옥봉은 연복극이오 탐전금불즈셔강을 신여야학영슈목하라 심스한선불선당을 산당의 종파인진반하니 등반선치촉초강을

모든 선비 글을 보고 크게 놀나 빅빅 스레하고 흠양경복하여 종야토록 문답할 식

각읍 소문 탐지하려 선비다려 못는 말이

남원읍너 스람의게 추심 차로 송스하려 하니 공스나 분명홀지오

한 선비 다투며 말나고 하는 말이

남원부스 말을 마오 탐지어식 무도하여 빅성이 소를 일코 고관하니 낭척을 불너드려 원고의게 분부하디 너는 소가 몇 필인디 대답하디 황우 한 필 암소 한 필 다만 두 필 잇습더니 황우 한 필 일헛습니다 쏘 무르디 저 도적놈 너는 소가 몇 필이니 대답하디 쇼인은 적빈하와 한 필도 업는이다 소 임자놈 드러보라 너는 무슨 복덕으로 두 필 탐이 두고 저 놈은 무슨 죄로 한 필도 업단 말이니 한 필식 난화시면 스면 무탈하고 송니가 공평이라 하고 소 임자의 소를 아스 도적놈을 주어시니 이런 공스 쏘 잇스며 빅옥갓튼 춘향이 툇 억지 겁탈하랴다가 도로혀 옥을 보고 엄형중치 하옥하여 병든 지 희포만의 거월초싱에 신스하여 이 산 넘어 저 산 넘어 초빙하여시니 권들 아니 적악인가

어식 이 말 듯고 춘향이 죽은 줄을 즈셔이 알고 정신이 어둡고 설운 마음이 북받쳐 넘시웁기 비죽비죽 눈물이 등경등경 하거늘 모든 선비 고이 역여 의논하디

그 결인의 형상 보니 불승비감 불금유체 그 아니 고이하냐 저를 속여보즈

하고 중 불너 분부하디

픽 하나홀 짝가다가 아모디나 식로 초빙하디 쏘즈노코 먼니 셔셔 거동보라

그 픽의 글을 쓰디 밍낭이도 하엿고나

본읍기싱 슈절원스 춘향지묘라 하여 중놈 주어 보느니라

어식 천 만몽미밧기 춘향 흠음 듯고 남 우힐 줄 전혀 잇고 춘향 초빙 츠즈가니 모골이 송연하고 정신이 황망하다 급급히 거러 한 고기를 넘어가니 식로한 무덤이 잇고 픽를 쏘갓거늘 부지불각의 다라드려 무덤을 두다리며 방성디곡하느 말이

익고 춘향아 이거시 웬 일이니 우리 두리 빅년괴약 밋쫓더니 이제는 허식로다 발썽천니 너 오기는 너만 보려 하엿더니 죽단 말이 웬 일이니 공산야월 적막하디 누엇느냐 잠즈느냐 너가 여긔 왓것마는 모로느 듯 누엇고나 안흥고이 총청하니 식월감어 여디 로다 산초야화년년기나 향흔옥곡귀불귀라 익고 익고 설운지고

두 주먹귀 쥐여다가 무덤을 쿵쿵 두다리며

춘향아 춘향아 날다려 이거라 얼굴이나 잠간 보즈 성음이나 드러보세 너를 어디가 다시 보리 익고 이를 엇지홀고 츠아 설위 못 살깃다

익연이 슬히 우니 슈운이 참담하고 일월이 무광이라 초목이 슬허하고 금슈도 우름운다

한창 이리 슬피 울 제 건넌 마을 강좌슈가 이 형상을 바라보고 마음의 놀납고 고이하여 급히 드러가 마노라다려 하느 말이

우리 아기 스라실 제 미성인 처직여든 엇던 걸 깃놈이 빅년괴약이 허식라고 두다리며 우름우니 요럴 변이 쏘 잇는가 이 놈 고두쇠야 몽치 츠고 건너가셔 아기씨 무덤의 우름놈 난정결치하라

고두쇠 건너가서 즐옥하고 달녀드니 어식 착급하여 혼이 써서 삼십육계중 즐힘냥이  
웃듬이라 천방지방 저스도쥬하니 이 쏘흔 장관일너라

먼니 다라나 혼 곳의 다드르니 기암층층 절벽간의 폭포청과 써러지고 계변 좌우 반석  
상의 제명직석 무슈하다 싹 드러 세슈하고 쏘 혼 곳 다드르니 담발초동 목동드리 쇠식랑  
의 흙의 들고 산유화 쇼리하며 올라올 제

엇던 스 람 팔즈 조화 호의호식 넘너 업고 쏘 엇던 스 람 팔즈 기박하여 일신이 단쳐  
하고 아마도 빈한고락을 돌너볼가 쏘 혼 아회 쇼리하디 이 마을 총각 저 마을 처녀 남가  
녀혼 제법일다 공변된 하늘 아리 세상 일이 경오도 지다

어식 서서 듯고 혼즈말노

조 아회년석은 의붓어미게 밥 어더먹는 늬이오 조 아회년석은 장가 못드러 익쓰는 늬  
이로다

하고 쏘 혼 곳 다드르니 농부드리 가리질 부침하고 선쇼리한다 그 노리에 하였시디

턴황시가 나신 후의 인황시도 나시도다 열닐 열닐 상스디 슈인시 나신 후의 교인화  
식 하시도다 열닐 열닐 상스디 하우시 나신 후의 착산통도 하단 말가 열닐 열닐 상스디  
신농시 나신 후에 상빅초를 하단 말가 열닐 열닐 상스디 은왕성탕 나신 후의 디한칠년  
맛나시니 전조단발하온 후의 상님들의 기우한다 열닐 열닐 상스디 시화세풍 티평시의 평  
원광야 농부드라 승평연월 이 세겐가 오왕성덕 아니신가 열닐 열닐 상스디 갈턴시적 빅  
성인가 우리 아니 슈민인가 함포고복 우리 농부 천쥬만세 즐겨왜라 열닐 열닐 상스디 슈  
님군의 믿든 장기 녀산의셔 밋출 갈고 신농시 밋 든 썩뵈 천만세를 유전한다 열닐 열닐  
상스디 남양농중 제갈선싱 불구문달 하올 적의 양보음을 읊흔 후의 궁경산전 하였고나  
열닐 열닐 상스디 식상오류 도쳐스도 청운환노 마다하고 오두미를 벽소하여 전원당무 가  
라 있다 열닐 열닐 상스디 어와 우리 농부드라 스월남풍 보리타작 구십월 벼차리를 우격  
지격 지어봄세 열닐 열닐 상스디 오곡빅곡 하여너여 우리 님군과 공을 하고 남은 곡식  
잇거들낭 부모 봉양하여봄세 열닐 열닐 상스디 봉양하고 남거들낭 처즌권속 먹여봄세 열  
닐 열닐 상스디 남은 곡식 잇거들낭 일가친척 구제흙세 열닐 열닐 상스디 어와 우리 농  
부드라 농스하고 드러가서 힘곡식의 빅 불니고 기즉장스나 달너봄세 산승갯튼 혀를 물고  
연적갯튼 젓슬 쥐고 굵닐굵닐 굵닐러서 돌송이나 거취흙세 열닐 열닐 상스디 우리 농부  
드리보소 불상하고 가련하다 남원 춘향이논 비명원스 하단 말가 무거불측 니도령은 영절  
소식 업단 말가 열닐 열닐 상스디

이런 쇼리 다 드르니 무슨 핑계로 말무르리오 별안간 판전으로 하는 말이

저 농부 여보시 요 검은 소로 논을 가니 컴컴하지 아니흔지

농부 대답하디

그러키에 벗 다랏시오

벗 다라시면 응당 더우려니 덤기에 성엿장 다랏시오

성엿장 다랏시면 응당 찻지 찻기에 쇠게 양지머리 잇시오

이러듯 슈작홀 제 한 농부 님다르며

우슈은 직식 다 보깃다 어더먹는 비령방이 년석이 반말지거리가 웬 일인고 저런 년석  
은 근중을 알게 혀를 슴비지 썩힐가 보다

한 농뵈 님다라

아שר라 이 익 그 말 마라 그 분을 슴스 쓰더보니 쥬제는 비록 허술하나 손길이 보희  
니 낭반일시 적실하다 세폭즈락의 하 덩물은 아니로 다

한 농부 흐는 말이

영감 너모 아는 체 마오 손길이 희면 다 낭반닌기오 나는 그 놈을 쓰더보니 거어지쥬  
상거어지오 손길을 보니 움속의셔 송곳질만하던 갓밭치 아들놈이 분명하오

늙은 농뵈 못는 말이

어디셔 살며 어디로 가시오

어식 디답하디

서울셔 사더니 능광쥐싸히 권당 츠즈라 가다가 마춤 회양이 업고 공교이 점심씩니 요  
괴나 흘가하고 안갓지

여러 농뵈 공논하고 열의 혼 술 밥으로 한 그릇슬 두둑이 주니 어식 포식흔 후 치하  
하고

다시 보즈넛가

하직하고 혼 곳을 다드르니 길가의 주막 짓고 한 영감이 안즈셔 막걸니 팔며 청울치  
꼬며 반나마 부르니 하여시디

반나마 늙어시니 다시 점든 못하여도 이후나 늙지 말고 밭양 이만이나 하였고저 벅발  
이 제 짐작하여 더디 늙게

어식 주머니 찌러 돈 혼 푼 너여쥬고

술 한 잔 너란잇가

영감이 어식의 꼴을 보고

돈 문져 너시오

쥬엇던 돈 너여쥬고 혼 푼어치 줄나 바다먹고 입 뺏고 흐는 말이

영감도 혼 잔 먹으란잇가

영감이 디답하디

아스시오 그만두오 지나가는 형인의게 무슴 돈이 너너하여 날을 술 먹이려시오

어식 디답하디

넉가 무슴 돈이 잇셔 남을 술 먹일가 영감 술이니 출출하디 한 잔이나 먹으란 말이지

영감이 꼴을 너여 흐는 말이

넉가 술을 먹던지 마던지 이녁 엇던 스람이완디 먹어라 말아라 총집힘노

어식 니른 말이

괴야 정 먹기 슬커든 그만둘 거시지 남과 빠호려 말난잇가 그러나 그 말은 다 실업슨  
말이여니와 서울셔 드르니 남원 기싱 춘향이가 창기쥬 정절이 이셔 괴특다 하더니 이 곳  
의 와 드르니 서방질이 동관삼월이오 본관 슈청드러 주야 농창흔다 하니 그럴시 분명흔  
지

이 영감의 성품은 현릉장 작이라 이 말 듯고 훨적 썬여 니려셔셔 상토쑏가지 꼴을 너  
여 두 눈을 부릅쓰고 두 팔을 썸너면서 너시 올라 흐는 말이

뉘라셔 이런 말을 하옵던가 벅옥갓튼 춘향이를 이런 더러운 말노 모함하는 놈을 만나  
면 그놈의 다리를 무김치 뼈호듯 못둑못둑 즈를 거슬 통분하고 절통하외 이녁도 다시 그  
런 말을 하면 누덕이를 평싱 못 버셔보고 비렁방이로 늙어 죽을 거시니 그런 양급즈손홀  
소리는 다시 움기지도 마옵소

어식 디답하디

영감은 악담 말고 이야기나 즈셔히 하란잇가 춘향의 얼굴이 일월갓튼지 형실 이 벅옥  
갓튼지 알 슈가 잇나 영감은 썬라단니며 보왓습나

골닌 영감 하는 말이

전등 스또 즈제 니도령인지 하는 아희년석이 춘향이를 작첩하여 빅년괴약 밍세하고  
올나갈 제 후일괴약 금석갓치 하였더니 한 번 썩난 후 삼년에 쇼식이 돈절하고 신관 스또  
호식하여 춘향의 향명 듯고 성화갓치 불너드려 슈청으로 작정하니 춘향의 빙옥절기 한스  
하고 불청하니 신관 스또 골을 너여 한스등당흔 연후의 향식 족시 엄슈흔 지 올조츠 삼  
년이라 썩썩 올녀 등치하며 지만하라 분부하디 그런 고초 격 그면서 뉴리갓튼 맑은 마음  
추호 불변하여시니 즈고로 창기지절이 이럿탄 말 드럿습나 이런 렬녀 첩을 외방다가 바  
려두고 삼년이 되도록 편지 일장 아니하고 소식조츠 돈절하니 그 아희년석이 신스년 팔  
월통의 썩러졌시면 모로거니와 스라 잇고는 이런 뵈고 독하고 모질고 단단흔 무정팅낭흔  
제 할미를 붓틀 아희년석이 어디 잇기습나 이제는 홀 일 업시 옥둥에서 죽게 되여 우리  
아들 복실이가 돈 닷 냥 삭슬 밧고 급쥬편지하라 하고 그 편지가 여긔 이시니 거쥬말인  
가 편지를 보 읍소

어식 이 말 듯고 싱각하되

옥 먹어도 홀 말 업다 되저 살기는 그저 살았는가 그 도령다려 옥을낭은 과히 마즈  
날과 바히 남 아닌 스이란잇가

하고 편지 바다보니 피봉의 삼청동 니승지딕 도련님 시하인 기탁이라 남원 춘향은 상  
셔라 하였거늘 썩혀보니 하였시딕

별후광음이 우금삼지의 책서어안이 돈절하니 약슈삼천년의 청초가 썩쳐시며 복희만니  
의 홍안이 업스미라 텃익창망하니 망안이 옥천이오 운산이 격절하니 심담이 구렬이라 니  
화의 두견이 울고 오동에 밤비 올 제 적막히 혼즈 안즈 상스일념이 지황턴되라도 츠한을  
난설이라 무심흔 호접몽은 천년의 오락가락 정불즈억이오 비불즈승이라 한숨과 눈물노  
화조월석을 보너더니 우환등 싱각밧 신관의 슈청 분뵈 상설을 능멸하니 뇌정과 별악이  
신상의 나리오며 편신이 분쇄하고 심장이 스라지느니라 이럿툐 괴로오믈 지너나 일루잔  
천을 지금까지 부지하문 싱면으로 한 번 맛나 평싱 설운 회포를 다흔 후의 즉각의 슬  
허져 세상을 니별코져 스라져가는 정신을 슈습하여 혈서를 알외오니 바라건디 형혀나 감  
동하샤 미스지전의 한 번 보와 파경이 직합할가 미견낭군의 일명이 진호오면 천고의 원  
혼 되여 망망흔 구름 밧기 솟히 울며 한양가지 올나가서 낭군의 즈최를 썩로리니 낭군은  
넛 정니를 싱각하샤 한 번 맛나기를 셔셔 기다리느이다 소소설화는 창희를 기우리나 일  
필난괴오 함비홍격의 혼벽이 비월하고 붓슬 잡아 글을 일우미 눈물이 압홀 가리오느니라  
말을 일우 지 못하디 되강을 괴록하느이다 모년 모월 모일에 남원 춘향은 상셔하노라 하  
였더라

어식 보기를 맞치미 일희일비하여 총총이 인스하고 하는 말이

그 도령은 나의 스촌동싱이니 이 편지를 착실이 전하여 줄 거시니 녀네 말고 셔울 가  
야 보지 못할 거시니 헛거름 말고 슈일 후 제게 가서 착실이 전하였다 하란잇가

영감이 천만당부하디

나중 말 아니되게 잘 전하여 쥬읍소

어식 되답하고 도라셔셔 심신이 황홀하다 죽은 줄노 아랏더니 산 편지를 보왔고나 제  
형상이 오 죽하리 허둥지둥 밧비 거러 썩 한 곳을 다드르니 풍헌 약장 면님드리 답인슈  
결 받기들고 민간슈렴 하느고나 이 달 이십칠일이 본관 원님 싱일이라 되둥소호 분등하  
여 돈과 쌀을 회계하니 민원이 철첼하여 집집이 우름일다

노변에 상인 하나 올고가며 하는 말이

이런 관당 보왔는가 살인소지 정소하니 원님이 제스하니 슈소흔 민호중의 하나 죽고  
도 어렵거든 또 하나를 디살하면 두 빅성을 일논고나 밧비 모라 니치여라 하니 이런 공  
스 보왔는가

이런 말도 어더 듯고 또 혼 곳 다드르니 초 부 하나 시절가 하니

불상코 가련하다 인들 아니 불상흔가 크나큰 옥방 안의 꽃치 니울고 향이 스라지니  
일거의 무소식하니 이쨌는 듯

어식 듯고 감누를 먹음고 두로 도라 남원 지경 드러서서 천천이 완보하여 박석지를  
올나서서 좌우산천 둘러보니 반갑도다 반갑도다 산도 예 보던 산이오 물도 옛 보던 물이  
라 위성조우 맑은 물은 나 마시든 창파이오 녹슈진경 너른 쥘은 님 단니든 길이로다 직  
스청청뉴식신은 나귀 밋든 버들이오 푸른 버들 두 스이는 빅포당막 찢든 디라 동문 밧기  
현원스는 야반중성 반갑도다 광활 누야 잘 잇더냐 오작교야 무스터냐 좌편은 교룡산성  
우편은 영주고기 춘향 고딕 츠즈갈 제 반갑고도 식로왜라 산천경기 예와 갓고 녹음방초  
예와 갓고 안전물식 반갑도다 반갑도다 님의 얼굴 반갑도다 창희의 풍범이오 일모창산의  
석경귀승이라 비류직하삼천척의 폭포슈 내려가듯 막막슈전비빅노의 경직과극 내려가듯  
심망의축 춘향문전 다드르니 옛 형상이 전혀 업다 흥낭치 이그러지고 안치는 쥘니이고  
면회흔 압뒤 담도 간간이 문혀지고 창전의 누은 기는 기운업시 조오다가 구면직을 몰나  
보고 쟁쟁 쥘고 니닷는다 황섬의 푸른 풀은 옛 즈최가 희미하고 창외에 옛 경기는 녹죽  
창송 쥘이로다 디문썩도 간 디 업고 등문칸도 흔혀지고 압뒤 벽은 잣바지고 셋가리는 고  
의 벗고 방안의는 하늘 뵈고 마당의는 쥘을 뵈고 아궁기 툇기 즈고 붓두막의 다람이 괴  
고 물두멍에 쌍벌의 집 밥솥히는 가얌이 집 뒤 년못도 다 메이고 석가산도 흔혀지고 홍  
도 벽도 부러지고 화초분도 썩여지고 큰 기는 비루 먹고 즈근 기는 굴타리 먹고 만백서  
화 웃쳐지고 그런 세간 다 업스니 주인 업는 집이 완연하여 전모양이 바히 업서 거목초  
창에 만심 비절이라 불상하고 처량하다

한심지며 하는 말이

저의 집이 이러하니 제 일은 불문가지로다

허희탄식하고 두로 구경하다가 황혼시를 기다려서 디문간의 드러서서

춘향어미 게 잇는가

춘향어미 거동보소. 노랑머리 비켜 쏘고 몽동치마 두루치고 옥바라지 단니다가 질탕관  
의 죽을 쭈니 죽탕관의 불 살을 제 저즌 남게 불을 불며 눈물 흘녀 성화한다 한숨도 훌  
훌 나리쉬며 가슴도 쿵쿵 두드리고 머리로 박박 긁그면서 부지쌍이도 드터지며 날 잡아  
갈 귀신은 어디로 갓누 즈슈라도 흐련마는 저를 두고 엇지하니 즈는 드시 죽고 지고 천  
산지산 홀 것 업시 니가 높이 니 원쉬라

한창 이리 원망홀 제 부르는 소리 아라듯고 팔작 썩여 니다르며

건 누구 와 계시오

어식 디답하니

니로세

니라하니 동편작 굴독의 아들인가 비령방이도 눈이 잇지 집 몰골 보와하니 무어슬 주  
리라고 어두온디 드러왔노 옥에 갓친 쌀 먹이즈고 죽 쓰리옵니 다른 디나 가서 보소

이 스람 니로세

오호 김풍헌님 와 계시오 돈 혼 돈 쭈어온 것 슈히 어더 가오리다 너모 그리 직촉마  
오 니 설운 말 드러보오 금산셔 온 옥섬이는 신관 스또 슈청드려 슈야농창 흥낙하며 남

원 읍 닥 디소스를 제게 몬져 청을 하면 빅발빅둥 영낙업고 원님이 덕후후여 저의 아범  
형슈군관 제 오라비 셔창고죽 읍니 논이 열섬직이 군청 뒤 밧 보름가리 가장기물 모도  
치면 오류천금 되여시니 춘향의 죽을 보오 요런 거슬 마다하고 날가지 못살계굽니

이 스람 닥로세

오호 지 넘머 니풍헌 즈젠가

아니로세 즈셔히 보소 날을 몰나보나

올희 이제야 알깃네 즈네가 봉화직 스는 어린돌인가 이 스람아 향년에 죽갑 칠 폰 진  
것 주고 가쇼 요스이 어려워 못 견디깃네

어스 민망후여 디답후디

그디지 눈이 어두온가 정신이 업나 닥가 전 칙방 도련님일세

춘향어미 코쫘쫘고 하는 말이

이놈의 즈식이 어디서 낫노 완구헌 상고의 즈식놈이로다 늙은 거시 고지듯고 불너드  
려 지오거든 밤든 후의 쭉쭉한 것 도적후여 가랴는가 희를 곱다케 지오다가 갓지아닌 즈  
식 다보깃다

등을 미리 닥치거늘 어식 어히업셔 웃고 하는 말이

이 스람 망녕일세 나의 스정 드리보쇼 시운이 불행후여 과거도 못후고 벼슬길도 쓴허  
져셔 가산이 탕퍽후고 유리결식 단니더니 우연이 여귀 와서 소문을 잠간 드르니 즈닉 쌀  
이 날노후여 엄형둥치후고 옥에 드러 죽게되다 후니 저 볼 낫치 업건마는 옛 정니를 싱  
각후고 춤아 그져 가지 못후여 혼 번 보려 츠즈왔네 임의 닥가 여귀 왔시니 제나 잠간  
보고가세

춘향어미 이 말 듯고 삼작 놀나 뽀시눈을 요리 뽀고 조리 뽀고 녀녀히 치여다보니 실  
디업는 네로고나 두 손뼉을 마조치며 강동강동 쉼놀면서

익고 이거시 웬 일인고 이 노릇 보게 미오 잘 되엿다 현슌박결인들 분슈가 잇지오 벽  
희가 상전 되고 상전이 벽히 된다흔들 저디지 변후엇나 잘 되엿네 디한칠년 비 바라듯  
구년지슈 희 바라듯 하늘갓치 바라고 북두갓치 미더더니 이를 엿지 후잔 말고 익고 익고  
설운지고

센 디강이 퍼브리고 옷즈락을 드립더 잡고 복장을 탁탁 치밧치며 윈 몸을 꺾여쫓고  
악을 쓰며 하는 말이

날 죽여쥬오 닥가 스라셔 무엇후가 옥갓튼 나의 쫘이 널노후여 옥둥의셔 죽게 되니  
모네 쥬야장천 밧고 바라던 일 이제는 홀 일 업네 이를 장츄 엿지후고

어식 기가 막혀 도로혀 달니는 말이

너모 과도히 구지 말소 스람의 일은 모릅느니 너모 괘시 말쇼 읍지에도 벳 들 적이  
잇느니

늙은 거시 켜시는 훈목 보는지라 눈치 킷고 더듬어 풀쳐 하는 말이

여보 셔방님 닥 말 듯쇼 닥가 모도 화평이오 하는 거시 열증이라 늙 은 거식 말이 망  
녕이니 조금도 노와 마오 저리 되기도 팔직로세 저를 옥의 너흔 후의 가장기물 진믹후여  
옥바라지후는 중의 이 집인들 닥 집이라고 환상스췌 톱산이라 견디다가 못후여 집을 파  
라 슈쇄흔 후 집도 업는 거어지라 엿지 아니 설울손가

이러트시 슈작후며 저른 밤을 길게 실 제 상단이 어스 보고 목이 메여 말을 못후며  
식은밥을 더여 노코

셔방님 시장후디 어셔 요기나 후옵시오 아기췌 말슴이야 혼입으로 엿지 다 후오릿가

어식 괴특이 여겨 요괴하고 분흔 마음과 슬픈 뜻시 가슴의 일천 전납이 쉼노라 전전 반측하여 잠을 날우지 못하고 겨유 밤을 식을식 오경 북이 동행거늘 춘향어미 불너 다리고 상단이 등불 들너 압세우고 옥둥으로 향하니라

춘설 이씨 춘향이는 옥둥에 홀노 안즈 이삼경의 못든 잠을 스오경의 겨유 드리 스몽 비몽 꿈을 꾸니 상히 보던 몸거울이 한복판이 썩여지고 뒤동산의 잉도꽃치 빅설갓치 썩러지고 즈던 방 문설주 우희 허슈아비 달라뵈고 틈산이 문혀지고 바다히 말나뵈니 꿈을 썩여나서 하는 말이

이 꿈 아니 슈상흔가 남가의 일몽인가 화서몽 구운몽 남양초당 춘슈몽 이 꿈 저 꿈 무슴 꿈 인고 님 반기랴 길몽인가 나 죽으랴 흥몽인가 일조낭군 니별 후의 소식조츠 돈 절하니 급쥬셔간도 회보 업고 슈삼춘츄 되여가되 편지 일장 아니흔노 봄은 유신하여 오는 썩에 도라오되 님은 어이 무신하여 도라올 줄 모로논고 이 꿈 아마 슈상하다 님이 죽으랴나 너가 죽으랴나 이 몸은 죽을지라도 님을낭은 죽지 말고 너 설치를 하여쥬쇼 혼빅이라도 님을 아니 니즈리라

칼머리를 베고 누어 가마니 싱각히디

날 스랑하던 도련님이 경성의 득달흔 후 날 그리워 병이 든가 쇼인의 참쇼 입어 천니 원적 하였는가 날 츠즈오다가 비명 참스 하였는가 날보담 나은 님을 어더두고 스랑 겨워 못 오시나 요도숙녀 정실 어더 유즈싱녀 금슬종고 즐기시나 남린복춘 청누쥬샤 뉴협직이 되었는가 이런 연고 다 업스면 일정 혼 번 오련마는 오시지는 못하여도 일즈셔신 붓쳐시면 나의 소식 알련마는 너 몸 죽을 꿈을 꾸니 이를 엿지 하갓 말고 쇼년등과하여 남북병 스하였는가 북경스신 가 계신가 날을 아조 이것는가 이러홀 니 만무하다

이러트시 혼즈 스설 눈물 석거 한심질 제

외촌 허봉스가 도부길에 도라간다 문복 외며 가는 쇼릭 셔울판스와는 판니하다 쇼릭을 폭 쥐여 지르논 드시 문슈흡쇼 문슈흡쇼 거드러거려 좃니다가 물근 쏽을 드되고 밋그려져 안성장의 풀송아지쳐로 뒤쳐지며 철버덕거려 니러날 제 두 손으로 쏽을 집혀 왕심어미 풋나물 쥐무르듯 원통 쥐무르고 니러서서 썩릴 적의 옥모통이 돌썰이의 작근하고 부디치니 말이 못된 네로고나 쏽 무든 줄 전혀 잇고 입에 너허 손을 불 제 구린니가 촉비하니 어찌 구려 어너 년석이 쏽을 누엇논고 세벌 뼈근 쏽니로다 눈먼 것만 한탄하고 옥문 압홀 지날 적의 원 옷술 거두쳐 안고 눈을 희번득이고 코살을 썩그리고 막디를 휘저으며 썩파람불 제 더듬어 오거늘

춘향이 김형방 불너

저 판스 줍 청하여 쥬오

김형방이 판스를 불너쥬니 저 계집아히 거동보쇼. 판스 쇼릭 반겨دت고

허판스님 여보시오 이리 와서 썩여가오

허판스 니른 말이

그 누구가 부르논고 말쇼릭가 심히 익다

익고 나는 읍니 춘향ियो 그스이 덕다히 연고나 업고 스망이나 만히 잇소

허판스의 거동보쇼. 혼 번 길게 썩기오고 하는 말이

이 아히 너 불 낫치 바히 업다 원슈의 싱익로다 요스이 어른의 윤감아희들 역질비송도 하고 프닥거리 방슈보기 중병에 산경 넓기 집 이스에 안퉁경 밍청에 계획 참네하기 동관기리 골퉁 소골단 파방갑즈 곁흔노라 네 말 드런지 오릭것마는 혼번도 와서 정다히 못지 못하고 이럿툃 맛나니 홀 말이 전혀 업다 그랴셔 요스이 둥당을 당하였다 하니 상

쳐나 만져보즈

얼굴부터 나리 만져 젓가슴의 니르러는 밋오 지체하느고나

익고 계는 관겨치 안소

딴답하고 츄츄 내려가다가 불가불 주점홀 딴 다드라는

어불스 몹시 첫고나 바로 학치를 꺾얏네 제 아비 쳐죽인 원쉬던 가

하며 삼삼미를 만지라고 몸을 굼실하느고나 손을 썩혀 바지춤을 문희치고 꾸러안즈  
거취를 츄리려하니 춘향의 성품의 뽀을 기쁨치듯 하여 보너련마는 계유 춤고

여보시오 판스님 너 말 듯쇼 넷일을 곰곰 생각해니 설음이 식음솟듯하오 허판스님 소  
시적과 우리 어루신니 소시적의 압뒤 집의 니웃하여 여형약제 희히하며 주봉 되어 단니  
실 제 돈이 너 폰만 숨겨도 판스님 우리집의 와서 어루신티를 불너너여 우리 오날 희즈  
하세 어루신니 딴답하고 날을 안고 나가시면 허판스님 날을 보고 머리를 살살 쓰다듬 고  
너 쌀 춘향아 어디보즈 술집의 안고 가서 안주 주고 달너던 일 엇그젠 듯 하오마는 오날  
날 생각해니 어루신너를 다시 뵈은 듯 하오 넷말의 닐너시딴 고인지즈는 즉오직라 하여  
시니 나는 우리 어루신너로 아오 아모 티 업스니 두로 만져주오 식환하기 청냥업쇼

판스놈이 춘향의 말 듯고 밋이 풀녀 혼편 모호로 슬며시 썩러지며 열업시 하는 말이

고 년석 너 아희 정신 조타 과연 그러흔 법 잇느니라 그러하나 김픽두가 치더냐 니픽  
두가 치더냐 쪽바로 닐러라 너 밋질하던 놈 너 설치하여주마 형방 픽두놈드리 오일 오일  
날바드라 너 집 오니 이후의 날 바드라 오거들낭 절명일을 바다주어 싱급살을 맞치리라  
스람놈이 밋질을 혼들 그다지 몹시 하여시랴 아모커나 신슈점이나 쳐보아라

하더라

세괴스 구월 념오 필셔

○ 남원고스 권지오

츠절 이 썩 허판스눔 흐는 말이

신슈점이나 쳐보아라 너 식전 정신에 잘 쳐보마

춘향이 쏜꾼 말을 다 즈서히 니르며 웃고름의 돈 너 폰 호턴호지 호일호월 합흐면 턴  
지일월이라

가진 거시 이썩이니 히몽점을 잘 쳐주오

판스의 거동보쇼. 주머니를 어로만져 산통 니여 손의 들고 눈 우희 번적 드러 활활 혼  
드면서 천하언직야 고지죽응흐느니 신지영의 감이순통 감이순통 복걸 신명 일월성신 조  
림하토 인지화복 팔팔늑십스괘 삼늑늑십스효 괘불난상 효불난동 여 턴지로 합기덕 여일  
월로 합기명 여스시로 합기서 여귀신으로 합기길흥 고선사 복희 신룡 요순우탕 문무듀공  
소공 공즈 귀곡 손빈 황석공 장즈방 제갈무후 관뇌 괘박 원턴강 니순풍 소강절 정명도  
듀회암 상지천문 하달지리 금우티세 갑즈 삼월 기희삭 십일일 기유에 히동 조선국 팔도  
둥 전나좌도 남원부 스십팔면둥 부늑면 향교리 거흐옵는 곤명 김시 갑인싱신 을스복즈로  
근복문흐오디 모년 모월 모일에 낭군 니슈즈로 니별후 식물감 침불안이거니 거년분의 신  
관 스또 도입 신정지초의 황피 둥당흐고 인위슈금흐여 우금주년의 빅병이 충출흐고 스싱  
미판중 거야일몽이 여츠여츠흐옵기 지성감복문흐오니 유하쇼취운지 유하판직 천나지망  
이연야아 복걸신명은 물비소시 물비소시 흐옵쇼서

산통을 왈각왈각 혼드러 것구로 잡고 하나 둘 허여보고 션즈를 두드리며 점괘를 프러  
닐 제 니외효를 작과흐니 가인지비 되것고나

이 익 춘향아 이 점 믹오 묘리었다. 니도령이 과거흐여 청포를 님을 격이오 천녹귀인  
성의 녀마가 발동흐니 분명 외념흐여 나갈 형상이라 연즈괘 빗최여시니 등실등실 썩단니  
는 술지벼술이오 즈순이라 흐는 거슨 공명의는 화약이라 삼형살피 썩여시니 이 아니 고  
이흐냐 응효로 논지흐면 도모지 남이로다 올컷다 알니로다 열읍슈령 관속드를 형츄파직  
홀 거시니 암형슈의 분명흐다 화락흐니 능성실이오 경파흐니 기무성가 문상에 현허인흐  
니 만인기앙시라 산봉흐니 작평지오 히갈흐니 견농안이라 이 글 뜻은 쏜치 썩러지니 능  
히 여름이 열닐 거시오 거울이 썩여지니 엇지 쇼티 업스랴 문 우희 허슈아비 달너시니  
만인이 다 우러러 보리로다 산이 문허지니 평지 될 거시오 바다 히 마르니 농의 얼굴을  
보리로다 혼 쏜이라 이 익 춘향아 부디부디 조섭흐여 녀네 말고 두고 보라 평싱 미망낭  
군을 불구의 맛나리라

춘향이 덕답흐디

이 점 갓틀진디 무삼 한이 이시리오 밍냥흔 말 너모 마오

저 판슈 골을 니여 곳지 밍세흐는 말이

제 할미를 흐엿다고 헛부리를 놀닐것가 고름밋고 나기흐즈 아모커나 덕길흐니 두고만  
보아라 말말쑤히 싱각흐니 복츠달나기 어렵도다

의몽식레 설지트디

이 익 춘향아 이스이는 너가 스망도 업고 지너기가 극난 극난흐다마는 엇지흐리

춘향이 이 말 듯고 쏜쫓던 금츠 썩혀주며

불 상흐오 이거시 약소흐나 파라 혼 썩 보티여 쓰오

판스눔이 두부즈로 터지오듯 속으로 드리 썩기오며 흐는 말이

아모리 무물불성이라 흐여신들 저기나 흐면 보티여 줄 터에 남이 알면 날을 무어스로  
알니 아셔라

하며 말할 스이의 밭서 왼손으로 바다 스미속의 슈쇄하고 열업서 하는 말이  
 이 익 시장하니 다시 보즈  
 하고 니러서니  
 익고 평안이 가오  
 인스하여 보닌 후의 천스만탁 해으리며 전녁죽도 물니치고 오경누성 잔진토록 잠 못  
 드러 안줏더니  
 이썸 춘향어미 압서 와서  
 춘향아 춘향아 자느냐 썸엇느냐  
 춘향의 거동보쇼. 혼혼침침 안줏다가 부 르는 쇼릭 듯고 급히 니러 나오다가 형문마즌  
 정강이를 옥문턱의 부디잇고 익구 쇼릭 크게 하며 어마니가 놀나깃다 목안 쇼릭로 겨유  
 익고 익고 하고 진정하여 디답하디  
 어마니 이 밤등에 쏘 웨 왓소 밤이나 제발 평안이 쉬시오 저리 익쁘다가 마즌 병이  
 들면 구하 리가 뉘가 잇소 임의 보라 와 계시니 닉 속것시나 가져다가 압니물의 썸썸 썸  
 아 양지바로 너러쥬오 춤아 가려워 못 살깃소  
 춘향어미 손목 좁고 디성통곡 우는 말이  
 이를 엇지 하죇느냐 아장을 녀장홀 디 녀장을 아장케 되니 아장을 슈장홀고 익고 익  
 고 설름이야 아곡을 녀 곡홀 디 녀곡을 아곡하니 아곡을 슈곡하리  
 서로 붓들고 한창 우드가 춘향이 눈 드러 어스의 먼니 썸는 냥을 보고 무르디  
 저 뒤히 썸는 니가 누구요  
 디답하디  
 직넘머 니풍헌이 즈리갑 바드라 왓단다  
 그러면 어더드리지요 이 밤의 무삼 일 옛가지 되셔왓소 날 보고 가실나오 니풍헌님  
 이리 오오 그스이 평안하옵시고 안악문안도 안령하옵시오 디스로이 이 밤에 보라오시니  
 감격하오  
 춘향어미 하는 말이  
 즈서히 보아라 이놈의 즈식 썸 된 것 썸썸의 아들놈 너를 츠즈 왓단다  
 춘향이 울며 하는 말이  
 그 뉘라셔 날 좇논고 날 츠 즈 리 업것마는 이 곳지 흥흥 옥둥이라 형문마져 죽은 귀  
 신 결항하여 죽은 귀신 익미하게 죽은 귀신 못귀신이 날 좇논가 진언이나 넓어보즈 늑즈  
 디명 왕보살옵 마리반메흠 윈발 구르며 먼니썸썸 그러치 아니하면 상산스호 벗지 업서  
 바독두즈 날 좇논가 영천슈의 귀 뻗던 소부 허유 진세스를 의논코져 날 좇논가 쥬둥턴즈  
 뉴령이가 술 먹즈 날 좇논가 시둥무랑 니티빅이 시부를 읊즈 날 좇논가 위슈어옹 강티공  
 이 낙시질하랴 날 좇논가 슈양산 빅이 숙제 고스리 킷즈 날 좇논가 면산 김흔 곳의 기즈  
 츠가 불타 죽즈 날 좇논가 황능묘 의 아항 여영 시녀 업서 날 좇논가 텃티산 마고션녀  
 숙낭즈를 프르려고 날 좇논가 날 츠즈 리 업것마는 그 뉘라셔 날 좇논고  
 춘향어미 하는 말이  
 네 셔방 니도령이 너를 보라 왓단다 바라고 미더더니 잘 되엿다 거록하고 의젓하다  
 네 셔방도 조흠도 조타 이제는 무어슬 밋고 바라야느냐  
 춘향이 이 말 듯고 움죽 놀나 불빛히 바라보니 팔도의 비치 못홀 상거여지가 완연하  
 다  
 익고 어마니도 망녕이오 눈이 어두어도 마련이 업소

날다려 눈이 어둡다고 혼다마는 네 붉은 눈의 주저히 보아라 니가 놀이 아니오 옛  
역적의 아들놈이나

어식 먼니 서서 모녀 의 거동을 보다가 어히엿고 귀가 막혀 눈물을 먹음고 날호여 나  
아가 흐는 말이

춘향어미 등불 드쇼 얼굴이나 주세 보세

문틈으로 드러다보니 화용월티 홀연이 변하여 공산촉녀 되엿고 옥부방신의 피 흔적이  
난만하며 난초괴질 부용화티 거의 진케 되엿거늘 정신이 산란하여 급히 쇼리히되

춘향아 어디보즈 저 형상이 웬 일이니 빅옥갓튼 고은 양주 축누갓치 되여시며 선녀갓  
튼 네 모양이 산 귀신이 되엿고나 녹의홍상 흐든 몸의 몽동치마 웬 일이며 비단당혀 신  
든 발의 흰 집신이 웬 일이니 반가온중 선갑도다 나도 가운데 불행하여 급제도 못하고  
가산도 탕진하여 루년 결식호노라니 진시 한번도 못 와보고 풍년든 디만 좇노라니 금년  
이야 이 곳을 지나다가 공교이 네 편지도 보고 네 소문도 드르니 날노하여 저릿트 죽을  
고심 당하니 너 볼 낫치 업것마는 넷 정니를 싱각하여 그저가들 못홀지라 보라오기는 왔  
다마는 반가온 등 무안하고 슬픈 등 붓그럽다 아니 보니만 못하고나 너 모양이 이리 될  
제 어니 결을에 너를 츠즈며 금년으로 닐너도 이곳 시절이 방불히미 동냥하기 골몰하여  
진작 오지 못하였다 우리 두리 당초 언약 아모리 구더신들 시방 와서 흘 슈 업다 췌을  
본들 모를쇼냐 날 바라고 엇지히리 몸 구쳐를 흐려무나

춘향이 그 말 듯고 다시 보니 영낙엽다 말쇼리와 흐는 거동 미망낭군 정녕하다 상시  
나 꿈이나 만일 꿈 곳 아니면 이 몸이 죽엿도다 죽은 혼일만정 왔다하니 반가왜라 삼흔  
칠백 나타난다 혼절하여 정신을 닐허더니 오리게야 썩여나서 우는 말이

익고 이거시 웬 일이며 이 말이 웬 말이오 하늘노셔 썩러진가 썩호로서 솟스느가 바  
람결의 불녀와나 세구름에 빠져와나 무릉도화 범나뵈가 오류문전 썩소린가 환희풍과 골  
몰하여 못 오 던가 주마투게 주식으로 외입하여 못 오던가 산이 높하 못 오던가 물이 깊  
혀 못 오던가 산이여든 도라오고 물이여든 건너오지 엇지 그리 못 오던가 추월이 양명회  
하니 달이 밝아 못 오던가 일낙당스츄식원하니 날 저무러 못 오던가 축도지안이 난어상  
청천하니 길 험하여 못 오던가 한슈북희안서지하니 소식 몰나 답답하데 건곤이 일야부에  
단원당취불원성하니 술 취하여 못 오던가 빅설이 만공산이라 호구불난금의박하니 날이  
치워 못 오던가 회두일소벽미싱하니 식 상량 겨워 못 오던가 삼춘고한봉감우오 천니타향  
봉고인이라 깃부도다 이 몸이 죽어져서 후세에나 불가 하였더니 천만의외 오날 다시 상  
봉하니 칠년디한 빗발 보듯 구년지슈 희빛 보듯 반갑기도 칭냥업니 금석슈식나 한을 흘  
가 열스 조홀시고 그러하나 그스이 몸이나 일향호읍시고 발병이나 아니 낫소 산적벽희슈  
류기라 하였신들 저디지도 변호가 엇지 그리 무정호오 어이 그리 야속호오 아모리 저 물  
골이 되여신들 넷 정니를 니즈시고 말슴조츠 그리호오 너 몸 구쳐를 흐라시니 그러면 아  
시에 엇지하여 산천은 이변이나 츠심은 난변이라 땡세하였소 엇지하던 지 날 살너쥬오  
향식 죽쇄 벗겨쥬오 거름이나 식환이 거러보세 나의 몸을 옥문 밧기 닐여쥬오 세상 구경  
다시 흐세 반갑기도 괴지엿고 깃부기도 칭냥업니 과연 말슴이지 서방님 바라기를 남정북  
별 요란홀 제 명당갓치 기국렬토 공신갓치 밧고 바랏더니 이제 저 물골이 되여시니 익고  
나는 죽네 죽으나 한이 업소 저 지경으로 내려오니 남의 천디 오죽하며 귀한인들 적어슬  
가 불상하고 가련이도 되엿고나

일변 반기며 일변 아득하여 정신이 어즐하여 업티엿다가 식경 후 니러나 문틈으로 바  
라보며 눈물 오월 장슈 갓하여 슬피 울 며 흐는 말이

스람이 초년 빈궁하기 쏘흔 예식것마는 서방님 의관이 남누흔들 저딕지도 되엇는고 익고 닉 신세를 엇지히리

어식 이 형상을 다 보고 속이 터지는 듯 가슴이 답답 드립더 붓들고 시부나 겨유 참고 딕답히딕

어허 이 거시나 닉 거시라고 상토바랑으로 단니다가 임실읍니 오려논의 막딕씩워 세운 거슬 압뒤 스람 업슬 적의 가마니 도적히여 쓰고 불이나게 도망히여 어제 이리 왔거니와 닉집 날가 스람 만흔 곳은 가기 슬터라

춘향이 어미 불너

익고 어마니 닉 말 듯소 서방님이 뉴리걸식홀지라도 관망의복이 선명히여야 남이 천딕를 아니히고 정흔 음식을 먹이느니 서방님이 날 다려갈 제 쓰려히고 장만히엿던 의복 초록공단 것막이며 보라딕단 속적고리 남무딕단 핫치마며 진홍갑스 핫치마 빅방슈쥬 고장바지 딕설후릉 너른바지 돈피즈알 갓적고리 양피불끼 갓토슈며 삼승 두 필 함농 속의 드러시니 그것 모도 드러히여 혈가 방미 탕탕 파라 서방님 통냥갓 외올망건 당뵈도포 저스슈건 장만히여 드리고 옷접션 혼 즈로 빈혀케의 드러시니 한편의는 막막슈전비빅노를 그려 잇고 쏘 혼 편의는 음음화 목전황괴 그려시니 날 본다 시 쥐시게 드리고 닉 말딕로 부딕 히여쥬요

춘향어미 이 말 듯고 독을 닉여 히는 말이

쥬야당천 바라더니 이제는 바라던 길도 쓴쳐지고 기다리던 일도 허식로다 이 설름을 놀다려 히잔 말고 방정맛다 나는 네 슈종을 밤낮으로 들건마는 전혀 말션을 쏘이지 모쥬한 잔 먹으라고 돈 혼 쏘 쥬는 일이 이 썩가지 업더고나 이 원슈의 높은 보든 마듯 옷파라라 노리기 파라라 호스시겨라 잘 먹여라 엇지흔 곡절이니 좀 아죋고나 닉 마음딕로 히랑이면 단단히 참나모 몽치로 동혀미고 쥬리를 혼참 틀면 가슴이 쇠환홀 듯히다

춘향이 울며 히는 말이

익고 이거시 무슴 말슴이오 서방님이 칙방으로 계실 적의 엇더케 지닉엿소 이진정소 빅은망덕 나는 춤아 못히깃쇼 어마니 마음 저러히면 닉 몸 하나 슬혀져서 출하리 불효는 되려니와 마음은 꺾치지 못히깃쇼

춘향어미 이 말 듯고 겁히여 농쳐 히는 말이

속업슨 말 듯기 슬타 닉 말이 정말이나 닉들 현마 분슈업스라 요망흔 말 다시 말고 안심하라 너 히라는 딕로 다 히면 그만이지

춘향이 딕답히딕

어마니 그리면 나는 마음노코 잘 먹깃소 여보 서방님 닉 말 듯소 닉일이 본관 싱일잔 치니 취등에 쥬망나면 응당 날을 잡으올너 지만히라 칠 거시니 오날은 집의 도라가셔 나즈던 방 슈쇄히고 나 식던 요를 펴고 나 덥던 니블 덥고 나 베던 벼기 베고 평안이 쉬신후의 닉일 일즉 나와 날 치라고 올닐 적의 칼머리나 드러다가 삼문 압히 노화쥬소

어식 나른 말이

이 익 그는 과연 중난히다 닉 아모리 죽게 되여신들 칼머리를 엇지 들며 본관이 만일 닉 줄 알면 필연 슈육벨 거시니 권들 아니 위턱히나 그 썩를 보고 홀 말일다

여보 서방님 닉 말 듯소 이 우회 혼 번 더 마즈면 북두칠성 일곱분과 삼 티녹성 여섯분이 닳토와 명을 쥬어도 살 가망이 업스리니 나 죽기도 쏘거니와 나 죽는 모양 보시는 서방님 마음 오죽홀가 적막고혼 닉 신체를 밧그로 쓰어닐 거시니 서방님이 삼문 밧괴 썩다가 닉 신체 나오거든 드립더 덤석 안고 집으로 나와 나즈던 방 닉 금침의 날을 누인

후의 서방님도 혼디 누어 한 몸이 두 몸 되고 두 입을 혼디 디여 서방님 더운 춤을 흘너  
 너코 혼식경을 누어실 제 서방님이 말을 혼디 춘향아 춘향아 무슨 잠을 이리 깊히 드렸  
 느니 천호만환 불너보고 영결종천 홀 일 업다 귀혜 다여 아미타불 세마디 념불하고 몸이  
 쾌히 식은 후의 그제야 니러나 슈시하여 훗니불을 보기 조케 덤허노코 나 입던 속적삼을  
 너여다가 지붕말니 올라서서 너 혼빅을 부를 적의 서방님 초성 눅혀 회동 조선국 전나좌  
 도 남원부 부닌면 향교리 거흔온 곤명 갑인싱 김시 춘향 혼빅은 서양세계로나 극낙세계  
 로나 천슈경 법화경으로 식니오 복복 혼빅 불너 드리와서 우리 어마니하고 혼참 통곡하  
 신 후의 어마니를 부디불상이 녀이시오 그 형상이 엇더하깃소 디소름을 흘지라도 먼쥬비  
 단 하지 말고 순빅목으로 염습하고 녹진장포로 밋를 하고 관을낭 하지 말고 뒤동산의 솔  
 썸하여 두엇다가 슈삼삭이 지닌면은 부리난 것 चु기물이 물슈이 색질 거시니 피골이 상  
 연하여 감첩갓치 경첩하거든 칠성관 혼 뉘만 맞쳐서 아모커나 질쌍하여 서방님이 친히  
 지고 촌촌이 올라가면서 너 적삼을 가지고 고기마다 올라서서 서방님이 초흔하디 네 신  
 체를 너가 지고 가니 네 혼빅도 무쥬고혼 되지 말고 날을 썸라 오느라 하고 갓금 적삼만  
 두루면 너가 혼빅이라도 즐거워 허공둥턴 음음둥에 서울가지 썸라가서 서방님딕 묘하의  
 버셔노코 아모디라도 희즈안히 무더쥬고 무덤 압히 비를 세 고 여덟즈만 쓰디 슈절원스  
 춘향지묘라 하여 쓰고 덩월 보름 이월 한식 삼월 삼짇 샤월 시제 오월 단오 녹월 뉴두  
 칠월 빅둥 팔월 추석 구월 구일 십월 시제 동지 썸달 납향가지 서방님 산소 출입하실 적  
 의 제스지닌 퇴션으로 너 무덤의 움겨노코 서방님이 친이 와서 빅불니 흠향하라 이러트  
 시 하여쥬옵시면 너가 비록 유명이나 감축하여 즐겁고 조화하여 춤을 추고 만슈무강 특  
 원하며 서방님 왕니시의 즈최쇼리 음성이나 드리보세 익고 익고 설운지고 나 죽어 업다  
 말고 글공부 착실이 하여 아모조록 급제하샤 이 설치를 하여쥬쇼 익고 익고 셔름이야 이  
 를 엇지 하잔 말고

어식 목의 춤이 말나 하는 말이

넛말의 날너시디 극성쥬 필픽라니 본관이 네게 너모 괴승을 띄여시니 무슨 픽 볼 일  
 이 이실 줄 엇지 알니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너도 세상 볼 날이 아니 이시라

입맛 다시고 옥문틈으로 손을 너허 춘향의 손을 마조 쥐고

너모 설워 마라 입이나 썸 다혀보즈

옥문틈으로 맛초라흔들 그림속의 썸치로다 이런 썸의는 황식 즈식이나 되더면 조흔번  
 하다 홀 일 업서 물너서서 혼즈말노 니를 갈고 하는 말이

이놈 너일 싱일잔치 하량이면 더욱 조타 너 손씨로 출도하여 급경풍을 모라다가 만경  
 창포 되강오리를 민들니라 마음이 썸니고 썸가 져리고 눈의 불이 난다 돌절구도 밋치 색  
 지고 마로굼기 벗치 든다 이놈 미양 괴승홀가 어디보즈

강기하여 탄식하고 춘향을 니별하고 도라셔니 스라져 울고 드리갈 제 당부의 간장이  
 다 녹는고나

춘향어미 썸라간다 춘향이 보는 디는 천연스레 다리고 오더니 혼 모롱 도라셔서 이성  
 하는 말이

서방님 어디로 가라하오

어식 디답하디

집으로 가지

춘향어미 하는 말이

이거시 츄소위 드레질이오 집 업는 줄 번연이 알며 집이란 말이 웬 말이오 환상스체

쥬어쁘고 못 밧쳐더니 혼 정일 두 정일 지나가미 접썩에 약장하고 면님이 나와서 관작지 쥬하여 파라드려간 거슬 어딴로 가즈호

그리면 즈네 그 집의 잇기는 무슨 일고

경신년 글강외듯 흐라호오 거긔 썩여진 노구 츠즈라 갓다가 공교히 썩 맛낫지오

그리면 즈네는 어딴 가 잇노

글세오 읍니다 과부집 갓흔디 홀어미집다히로 단니면서 불씨나 거두어쥬고 누른 밥술 이나 어더먹지오

이 스람 그리호면 즈네 가는 디 나도 한가지로 가세

춘향어미 썩작 놀나 호는 말이

난정맛고 밧가락 썩히고 날가지 썩기여나 노중에서 즈게 흐려는가 실업슨 말 다시 말 고 여긔다히로 나가서 보지

어식 어히업서 저를 엇지 같을쇼냐 뒤썩히여 도라셔서 깃스 공청 츠즈간다. 스벽의 문을 나셔 군관 서리 역줄드를 입궂스로 뒤홀 썩라 청운스로 드러가니 각읍의 폐인 염탐 각각 변복 다 모혔다. 담비장스 메육장스 망건장스 파립장스 항우장스 결각이라 밤뚱의 판 방 잡으 불을 혀고 오십삼관 염문괴를 각항조목 상고하여 모일 모역 모장으로 뇌정괴 약 헛쳐노코 금일 오후 본부 싱일잔치에 부치 썩셔 들거든낭 출도호고 드러오라 약속을 정흔 후의 평명시의 니르러서 빅번이나 당부호든 옥문 밧근 아니 가고 관문 근처 단니면서 잔치 썩시 살펴보니 싱일잔치 적실하다.

빅설궂흔 구름차일 보계관도 눅흔시고 왜병풍의 모란병을 좌우의 둘너치고 화문등미 칩화석의 만화방석 총전보로 몽고전 담노로다 스초롱 양각 등의 뉴리 등을 흥목으로 줄 을 하여 휘황하게 거러노코 청홍스 스초롱을 석가리 슈디로 층층이 거러두고 썩별궂튼 요강 타구 룡초디 노초디 를 여긔저긔 버려노코 인근읍 슈령드리 츠레로 모혀 올 제 인 마가 낙력하여 당상의는 부스 현감 당하의는 만호 별장 임실현감 구례현감 고부군슈 전 쥬판관 함열현감 운봉영장 청턴의 구름 모든 룡문산의 안기 껍듯 스면으로 모혀드니 위 풍이 엄숙하고 호령이 썩리궂다. 츠레로 버려안즈 아회 기싱 녹의홍상 어른 기싱 착전립 에 좌우에 버려세고 거복궂튼 거문고 기악고 양금 싱황 삼현쇼리 반공의 어터엿다 쥬안 상을 드리면서 순비술의 권쥬가라 흥을 겨워 한창 놀 제 넘춤 후의 검무 보고 거문고 남 창이며 희적 의 녀창이라

이러트시 즐길 적의 저 절인의 거동보쇼. 두로 도라단니면서 혼즈말노

아마도 이 노름이 고름 되리로다 이놈의 즈식들 잘 호강한다 슬궂트 노라라 얼마 놀니 므오 잘 노는고나

호며 얼굴 형상 궂게 호고 쥬적쥬적 드러가며

옛쥬왜라 스령드라 먼니 잇는 결각으로 조흔 잔치 맛나시니 술잔이나 어더먹즈

진퇴하여 드러가니 좌상의 안즌 슈령 호령호디

이거시 어인 결각이니 밧비 집어 닛더리라

못스령이 달너드려 등 밀거니 빅 밀거니 팔도 잡고 다리도 잡고 썩도 치고 먹살 썩며

이분너 어딴를 드러오시오 밧비 나가란 잇가

오동지 진상의 단지거름으로 빅츄밧티 썩썩이쳐로 밧그로 닛더리니 어식 가로 썩러져 분긔팅둥호나 십분 춤고 니르셔서 디밧쳐 드러가니 혼갈궂치 구박한다. 어식라도 홀 일 업서 뒤문으로 가서 보니 게도 혼금이 디단호지라 드러갈 길이 전혀 엷다. 혼 모룽에 안 궂다가 엷히 안즌 노인다려 못는 말이

이 스또 쇼문 드르니 치민선정 유명혀여 빅성드리 만세불망 선정비를 세운다 하니 그  
러홀시 분명흔지

그 노인 덕답히덕

예 이 스또오 공스는 잘흔는지 못흔는지 모로거니와 참나무 휘온 듯 하니 엇더타 홀  
지오

어식 왈

그 공스 일흠이 무슨 공식라 헉는지

그 스람 양턴디소 왈

그 공스 일흠은 쇼 | 코쭈레공식라 헉지오 원님의 욕심이 엇던지 모로거니와 미전목포  
를 다 고미레질혀여 드리니 엇더홀지오 식의는 아귀오 정스에는 쏹쭈치라 아모디도 바닥  
첫지는 가지오 이번에도 스십팔면 가가호호에 빅미 삼승 돈 칠 푼의 계란 삼기식 거두어  
잔치헉니 거룩헉고 무던헉지오

어식 드를만헉고 안줏더니 문보는 하인드리 어스다려 헉는 말이

우리 잠간 입시헉고 올 스이에 아모라도 드러가거든 이 칩죽으로 먹여주고 문을 착실  
이 보와주오 잔치 파후의 음식이나 만히 어더쥬오리다

어식 다형혀여

글낭은 념네를 아조 노코 가란잇가

하인드리 입시간 스이의

흔 스람이 드러가라

헉고 기웃기웃 헉거늘 어스 헉는 말이

분분킴 조흔 판의 아니 드러가고 무엇헉리 저기 잇는 아희들아 넉 알 거시니 모도 드  
러가 구경헉라

마음디로 터 노흐니 부문헉는 선빅쳐로 몽계몽계 뒤쓰러서 함부로 드러가거늘 어스도  
셋겨 드러가며

조타 잘 드러온다 한 모롱이 치여라

죽충교 보계판으로 부적부적 올라가니 좌중에 슈령드리 하인 불너 호령홀 제 운봉영  
장 갇눈으로 어스 잠간 술 펴보니 면광인활헉고 안담한파혀여 흑빅이 청슈헉고 비란츄월  
혀여 슈담미당흔디 윤낭이 하 모헉고 스비는 봉괴로다 쇼불노치헉며 복모이건혀여 요원  
이 빅평이라 인중장덩부운의 산근후창고만이라 삼정이 균평헉고 오악이 구전이라 언간청  
월헉고 좌담침정혀여 법령이 엄장헉고 장벽방후로다 연견의 화식헉니 무쌍영걸이라 삼십  
에 승상이오 명쥬출히헉니 팔십에 티식로다 운봉이 마음의 놀나고 의심혀여 본관의게 통  
헉는 말이

여보시오 그 분을 보와하니 의복은 남루하나 냥반 일시 분명헉오니 우리네가 냥반을  
덕접 아니헉고 뉘가 혼단 말이온잇가

일변 청혀여 말석의 좌를 쥬고

이 냥반 예 안즈시오

어식 이 말 듯고

괴야 냥반이로고 동시 냥반 앓기니 운봉이야 참 스람을 아논고

헉며 부적부적 상좌로 올라가서 본관 갇히 안즌 쏹 무친 두 다리를 압흐로 펴버리  
니 본관이 혀를 츠며

계도 눈이 잇지 다리를 어디다가 썻는닷게 도로 오고리라니 어허 운봉은 야릇헉것다

어식 디답헛디  
 여복헛여야 그리헛오 닉 다리는 썩기는 헛여도 임의로 오고리지 못헛오  
 그딴로 안져더니 운봉이 민망헛여 꺾좌 로 청헛여 말습헛더니 좌중의 큰 상 든다  
 슈팔련의 가즌 귀화 각식 지물 츠담상이 츠레로 드러오논디 어식 공복이라 음식 보고  
 시장이 지출헛니 좌중의 통헛는 말이  
 상좌의 말습 올라가오 지나가는 걸직으로 복공이 즈심헛니 요괴시겨 보넛시오  
 운봉영장 하인 불너  
 상 하나홀 가져다가 이 낭반귀 밧즈오라  
 귀신갓튼 아희놈이 상 하나홀 드러다가 노호니 어식 눈을 드러 살펴보니 모 조라진  
 상쇼반의 쓰더먹던 같이 혼 디 디초 세 지 싱를 두 낫 소곰 혼 줍 장 혼 종즈의 저린김  
 칩 혼 보스기 모쥬 혼 스발 면 혼 그릇 덩그럿게 노햇 거늘  
 남의 상 보고 닉 상 보니 업딘 심정이 절노 난다  
 가장 실슈헛는 체헛여 한복판의 뒤집어 노코  
 아츠 이 노릇 보게 먹을 복이 못되나 보다  
 두 스미 옷즈락으로 업친 모쥬를 못쳐다가 좌우벽의 썩리며 좌우 슈령의게 함부로 디  
 고 썩리니 모든 슈령 헛는 말이  
 어허 이거시 무슨 좃시란 말고 밋친 손이로고  
 어식 디답헛디  
 원통으로 적시는 닉 옷도 잇쇼 약간 썩는 거시야 글노 관겨흘나오  
 무진무진 썩리거늘 운봉이 민망헛여 바닷든 상 물녀노코 권헛거늘 어식 헛는 말이  
 이거시 웬 일이오 운봉이 헛는 말이  
 녀네 말고 어셔 즈시오 닉 상 은 쏘 닉여오지오  
 어식 상을 바다노코 트집헛는 말이  
 통인 여보아라 상좌의 말습 혼마디 올라가오 헛여라 닉 가마니 보니 엇던 디는 기싱  
 헛여 권쥬가로 술 드리고 쏘 엇던 디는 기싱 권쥬가는 익썩헛고 썩거머리 아희놈헛여 얼  
 녕썩썩헛니 엇지흔 일인지 술이란 거슨 권쥬가 업스면 무마시라 그중 기싱 된년으로 하  
 나만 느려보넛시면 술 한 잔 부어 먹스이다.  
 본관이 칙망헛디  
 그만헛면 어랑의독의여든 쏘 기싱 암쥬로 헛고 어허 고이흔 손이로고  
 운봉이 기싱 하나 불너  
 약쥬 부어 드리라  
 그중 한 년이 마지 못헛여 술병 하나 들 고 내려오니 어식 헛는 말이  
 너 묘헛다 권쥬가 흘 줄 알거든 하나만 헛여 날을 호스시기여라  
 그 기싱 술 부어들고 외면헛며 헛는 말이  
 기싱노릇슨 못헛깃다 비렁방이도 술 부어라 권쥬가가 웬 일이고  
 권쥬가가 업스면 줄썩기에 술이 아니드러가나  
 허를 츠며 권쥬가혼다  
 먹으시오 먹으시오 이 술 혼 잔 먹으시오  
 여보아라 요 년 네 권쥬가 본이 그러헛냐 횡하권쥬가는 이러헛냐 잡슈시오 말은 싱심  
 도 못헛는나  
 그 기싱 독을 닉여 좋아리며

익고 망측혀여라 성가시지 아니호오 잘 하여주오리다 처박이시오 척박이시오 이 술  
 혼 잔 처 박이시오 이 술 혼 잔 처박이시면 장명부동홀 거시니 어서어서 드르지르시오  
 고년의 열골 낮익이고 예라 요 년 아셔라  
 술 마시고 음식상 다그어노코 하나토 남기지 아니하고 주린 판의 비위 널녀 순식간의  
 다 흠우루 써이고 또 상좌의 통하기를  
 샤월팔일에 등 올라가고 음식은 잘 먹엇소마는 또 패심혼 입이 식여 못헛깃쇼 저 초  
 록적고리의 다홍치마 닙은 동기 좀 노력보노오면 호스판의 담비까지 부쳐먹깃쇼  
 운봉이 기싱 불너  
 부쳐드리라  
 그 기싱 노력오며구러  
 스나 숯거시라  
 제반 악종의 쇼리를 다하넌 운봉 안 전은 분부한 목 맛타나 하며  
 담비덕 너시오  
 어식 돌통딩를 너여주니 고 기싱이 셔초 한 덕 쉼여너여 부쳐주니 어식 덕 밧고  
 이리오너라 절묘하다 게 안져다가 혼 덕 더 부쳐다고 손목 쥐고 안져더니  
 이윽하여 비속의셔 별안간의 장악원이 룡좌괴하는 쇼리쳐로 쫙쫙쭈루룩 쫘쫘쫘쫘 별  
 쇼리가 다 나더니 비속이 굶틀하며 방기가 나오려하고 밧궁글 쫘는지라 발 뒤굶치로 잔  
 득 괴앗다가 슬며시 터 노호니 부시시 하고 그져 못딴여 연슈히 나오는지라 방기너가 윈  
 동원의 다 허여지니 구린너가 엇지 독하던지 마던지 곳 코흘 쏘는지라 좌중이 저마다 코  
 흘 가리오고 응 쇼리가 연속하다  
 본관이 호령하되  
 이거시 필연 통인놈의 조화로다 스획하여 밧비 모라 너치라  
 어식 덕답하되  
 통인은 익미호오 너가 과연 방괴즈론지 췌엿소  
 하고 혼 번 통혼 후는 그져 무한 슬슬 통통 췌여바리니 윈동헌이 다 구린너라 모든  
 슈령드리 혀를 츠며 운봉의 탓만 하더라  
 본관이 취흥을 못 니기여 주담으로 하는 말이  
 여보 임실 나는 묘리잇는 일이 잇쇼 심심혼 췌면 니방놈과 모든 은결 픽여너여 단두  
 리 쪽반하니 그런 즈미 또 잇는가 여보 함열현감 준민 고딕 마즈하엿더니 홀 밧기는 업  
 는 거시 정업는 별봉이 근력의 무슈하고 궁교빈독 걸췌드리 쓴힐 적이 바히 업고 윈천강  
 예봉도 전보다가 비가 되니 실살구는 홀 슈가 업서 주야 경눈 싱각하니 환즈묘리도 홀만  
 하고 또 스십팔면 부민들을 낫낫치 췌려너여 좌슈츠첩 풍헌츠첩 아전의 환방갓튼 것 너  
 여주면은 근혼 묘리가 잇고 또 봄이면 민간의 계란 하나식 너여주고 가을이면 연계 일슈  
 바다드려 슈합하면 여러천슈 맛득하고 흥년인면 관포 밧고 혈가 주기 이런 노릇 아니하  
 면 지팅홀 길 과연 업소  
 운봉이 하는 말이  
 여보오 본관 직담 말고 여츠성연의 풍월귀나 하옵시다  
 좌우 슈령 조타하고 시축지를 너여노코 운을 너여 글 지을 제  
 어식 또 통하되  
 상좌의 말슴 올라가고 나도 비록 절인이나 오날 우연이 조흔 잔치 맛나 비불니 어더  
 먹고 그져 가기 무미하니 필목 도히 빌니시면 츠운이나 하오리다

좌우 슈령 묵소호고 저 쏜의 글이란니 운봉이 말뉴헛  
문무귀천상식로다  
문방스우 가져다가 어스 압히 노화주니 어식 붓슬 들고 순식간의 지어시니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오(금으로 만든 그릇식 아름다운 술은 일천 사람의 피오) 옥반가  
효 | 는 만성고라(옥반에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빅성의 기름이라) 축누낙시의 민누낙이오  
(불쫓 썰러질 썩의 빅성의 눈물이 썰러지고) 가성고쳐의 원성고라(노리쇼릭 놓흔 곳의  
원망쇼릭 놓하도다)

어식 이 글 지어 모든 슈령 아니뵈고 운봉만 년쫓 뵈고 흐는 말이  
노형은 몬져 가시오  
운봉이 눈치 알고 본관의게 통헛  
나는 빅성 환즈쥬기 밋바 몬져 도라가요  
전쥬판관 쏘 통헛  
나는 미진공스 잇서 몬져 가오  
고부군슈 흐는 말이  
나는 하로거리로 제썩가 되면 못 견디여 몬져 가오  
본관이 쥬중에 골을 닉여 흐는 말이  
낙극진환이라니 종일토록 노지 아니코 공연이들 몬져 가니 남의 잔치 파홍이라 고이  
흔 즈식들 실살쥬를 못 니져서 질알이 나나보다 좌등의 여보시 오 가는 니는 가거니와  
우리나 호토시 노스이다

이러트시 어언간의 가는 니는 가고 다 업는지라  
이썩에 삼방하인 마흔 썩가 다하오니 관문 근처 골목마다 파립장스 망건장스 메육장  
스 항우장스 각각 외며 도라단녀 삼방하인 손을 치니 군관 셔리 역졸드리 청전디를 둘러  
썩고 홍전립을 젓게 썩고 마뽕을 썩혀 들고 삼문을 썩썩 두드리고 이 고을 아전놈아 암  
헝어스 출도로다 큰문을 밋비 널나 한편으로 봉고호고 우직근 썩닥 두드리며 급히 쫓쳐  
드러오며 암헝어스 출도호오 이 쇼릭 혼마디의 틱산의 범이 울고 청천의 벽녁이라 기와  
골이 썰어지고 동헌이 터지는 듯 노름이 고름이오 삼현이 파면이오 노리가 모릭 되고 빅  
반이 현반이라

좌우 슈령 거동보쇼. 겁닌 거동 가쇼롭다 언어슈작 뒷켜흐다 갓 닉여라 신고 가즈 목  
화 닉라 썩고 가즈 나귀 닉라 닉고 가즈 창외 잡아라 타고 가즈 물 마르니 목을 다고 임  
실현감 갓모즈를 뒷켜 썩고 이놈들 허무흔 놈 갓구멍을 막아고나 칼집 쥬고 오쫓 누니  
오쫓 마즌 하인드리 겁결의 흐는 말이

요스이는 하늘의셔 더운 비를 주나보다  
쥬구멍의 상토 박고 구례현감 말을 갓구로 타고 하인다려 뒷는 말이  
이 말 목이 본릭 업나  
너산부스

오쫓 빠 고 문 드러온다 바람 다드라 말이 썩져 니가 헛날닌다  
굴독 뒷히 습엇다가 줄헝낭이 기가족이라 기굼그로 다라난다  
이러트시 덤병일 제 본관원이 썩을 썩고 실너부인 썩을 빠고 셔방님도 썩을 빠고 도  
련님도 썩을 썩고 쇼인니도 썩을 빠고 원집안이 썩밋치라 이를 엿지 호오릿가 남원부스  
디답헛

그러흐면 발진 놈을 밋비 불너 왕십니를 급히 가서 거름장스 잇는디로 성화갓치 잡으

오라

비반이 낭즈흔디 몽치찬 늬 고이ㅎ다 장구통도 씌여지고 큰북통도 씌여지고 희금통도 씌여지고 피리 젓디 좇밧히고 거문고도 씌여지고 양금줄도 쓴허 지며 교즈상도 부어지고 화통항도 씌여지고 찬합도 허여지고 준화가지 부러지고 차담상도 웃쳐지며 화괴명도 다 부이고 양각등도 다 족치고 스초롱도 미여지며 그런 잔치 다 파ㅎ여 동헌이 일공이라 좌슈 니방 곡경으로 발광ㅎ고 삼번관속 녹방아전 된벼락을 마젓고나 너외아스 상하업시 쫘 빗츠로 진동흔다 삼공형 삼향소를 위션 형쥬 정비ㅎ고 본관은 봉고파출ㅎ여 지경 밧기 닉친 후의

어스의 거동보쇼. 동헌디청 독좌ㅎ여 삼방하인 분부ㅎ여 좌괴절츠 밧비 홀 제 디괴치 나털ㅎ고 삼공형 불너드려 읍페 못고 도서원 불너 전결 못고 샤창빋 불너 곡부 못고 군 괴빋 불너 군장복식 집척ㅎ고 전세빋 불너드려 세미 남봉흔다 형쥬일츠 밧타ㅎ여 방송ㅎ고 네방 불너 불효강상 죄인드를 원찬ㅎ고 형방 불너 살옥 못고 이런 분부 다흔 후의 옥 스장이 밧비 불너

옥의 갓친 춘향이를 스장의 손 디지 말고 모든 기싱 안동ㅎ여 밧비 디령시기여라

옥스장이 청령ㅎ고 옥문 열쇠 손의 들고 옥문 밧기 밧비 가서 열쇠를 갓고로 밧고 업다 성화ㅎ깃다 엇지 아니 열니노고 님다라 직축이 뇌정갓튼지라 옥스장이 홀 길 업서 발노 박츠 문 을 씌고 업허노코 손을 치되

어서 이리 나오너라 어서 밧비 나오너라

히포 묵은 구슈드리 몽게몽게 다 나온다 옥스장이 발광ㅎ여

업다 밧비 나오너라

구슈드리 의논ㅎ디

국가의 경스 잇서 통기옥문ㅎ나 보다

그저 함부로 썬역썬역 다 나오니 옥둥이 일공ㅎ엿고나 옥스장이 성화ㅎ여

업다 이놈들 나오지 말라 일변 드리밀며 어서 밧비 나오너라 스람 죽깃다 너만 어서 나오너라

구슈드리 어히업서

누구를 나오라느니

업다 성화ㅎ깃다 저 아희만 나오너라

저 아희가 누구니

춘향이만 나오너라

춘향이 이 말 듯고 혼이 업서 나오면서

익고 이 제는 나 죽깃네 서방님은 어디 가고 잇썬가지 아니오노

춘향어미 드립더 잡고

익고 익고 다라났다 이제는 아조 갓다 반점만도 싱각마라 밥을 ㅎ여 만히 쥬니 마파람의 계눈이라 익고 그놈 잠을 잘 제 동냥군이 적실터라 돌겅잠에 니를 깔고 기지기 잠고딧의 밥 ㅎ 술 쥬옵쇼셔 돈 ㅎ 푼 조닐ㅎ오 한두번이 아닐너라 만일 읍둥 스람드리 그놈인 줄 알냥이면 손가락질 지목ㅎ여 춘향의 서방 춘향의 서방 ㅎ랑이면 이 아니 슈치ㅎ냐 아셔라 싱각마라 눈꼬알을 보와ㅎ니 소도적놈이 다 되엿더라 이 집 저 집 단니다가 남의 거슬 몽티 ㅎ면 그런 우환 쏘 잇느냐 만일 다시 오거들낭 왕손만이 각지손ㅎ고 금일 좌괴의 못거든 반합에 허락ㅎ면 엇지 아니 조홀쇼냐 물나는 쥬나 무지 슈절이 무어서니

춘향이 울며 대답하되

익고 그 말 듯기 슬소 그말 그만하오 죽을 밋기 홀 일 업쇼

좌우편을 살펴보니 서방님이 간 디 업다 저 춘향의 거동보쇼.

익고 이럴을 엿지홀고 죽기를 한하여 니를 갈고 엄형을 바드나 부모유체를 앓기지 아니코 형장쫓히 다 석어 썩만 남도록 슈절터니 건곤턴지 우주간의 이런 일도 쏘 잇는가 서방님이 어디 가고 나 죽는 줄 모르논고 죽도 록 그리다가 명턴이 감동하샤 싱전에 겨유 맛나 잠시라도 얼굴을 디히미 스무여한이라 나 죽는 양 친히 보고 남의 손 비지 말고 감장이나 하여줄가 신신 부탁하엿더니 쏘쫓치 닉 마음과 갓지 아녀 야숙하기 청냥업네 서방님도 마즈 날 바리니 놀을 밋고 스잔 말고 나는 이리 익를 틈와 죽것마는 서방님은 당뵈시라 아모라도 녀즈의 간장긋틀리오 나 죽는 꼴 보기 슬려 아니오나 어딴로 가 계신고 오슈당의 가 계신가 죽을 밋기 홀 일 업다 익고 익고 설름이야

칼머리를 압호로 활화 썩쳐 뒤호로 벌떡 주저안즈 두 다리 툄 퍼버리고 되성통곡하논 말이

익고 이제야 나는 죽네 턴지 일월성신드라 오늘날의 나는 죽소 산천초목 금슈드라 오늘날의 나는 죽네 눈을 번적 썩보면서 광활누야 나 죽는다 오작교야 나 죽는다 당초에 널노하여 도련님을 맞앗더니 오늘날의 니별하니 언제 다시 만나보리 광활누야 잘 잇거라 오작교야 너는 만팔천세를 누리려니와 닉 인심은 오늘날 분이로다 상단야 어마님 피시고 잘 잇거라 아모썩나 서방님 오시거든 나 업다고 괘시 말고 잘 되접하고 나의 세세흔 말 즈셔히 하여다고

상단이 통곡하며

그 말 마오 듯기 슬소

이러트시 우름 울며

익고 익고 설운지고 어마니 나 죽은 후의 엿지 살녀하오

인하여 혼절하여 칼머리를 안고 갓구러지니 못기심이 드리다라 썩드러다가 동헌썩의 느려노코 춘향의 괴절하여시믄 알외오니 어식 슈로 불너 분부하되

앗가 노름노던 기싱 하나토 유루치 말고 다 점고하라

슈로놈이 분부듯고 강성 눅혀 점고홀 제

천연군즈거조식하니 청슈정신 옥년이

나오

혼연상고근신지하니 화축오덕 복희

나오

춘월승스츄월식하니 환픽산산 진주옥이

나오 벽슈누디십오야의 미인권렴 월출이

나오

찬찬문장남덕귀하니 성세진금 칙봉이

나오

일즈고당부성후의 십이봉두 초운이

나오

인간팔월등방홀하니 독슈청향 계홍이

나오

희희세속춘디상의 요지건곤 순일이

나오  
 적벽등성기호시흐니 호의현상 계명월이  
 나오  
 종성벽옥인여옥흐니 일난춘전 선옥이  
 나오  
 조거전후십이승흐니 형연무하 명옥이  
 나오  
 강남취련빵탕장흐니 쉼부용 연홍이  
 나오  
 동시편강한스두의 구지부득 순절이  
 나오  
 슈령향노가디운흐니 석상삼일 향희  
 나오  
 금덕문장즈유인흐니 일지단계 월향이  
 나오  
 시지진녀선명소흐니 양양등선 치란이  
 나오  
 광한던하화 일엽이 운외포양 계향이  
 나오  
 인심유의도심미흐니 요지일월 순심이  
 나오  
 다 나오  
 어식 분부흐디  
 너희들 빗비 가서 춘향의 쓴 칼머리를 니로 무러쓰더 즉직으로 다 벗기라  
 흐니 이는 앓가 패심이 본 연괴러라 기싱드리 드라드러 절문 년은 니로 쫓고 늙은 년  
 은 혀로 할타 침만 바르거늘  
 조 년은 왜 쫓는 거시 업노  
 예 쇼녀는 니가 업서 침만 발나 쉼겨만 노호면 브를 스이의 절문 것들이 쫓기 더 쉽  
 스외다  
 이러트시 쓰드면서 어림 아는 약은 거슨 슈근슈근 흐는 말이  
 춘향아 너 거번의 산삼으로 속미음혀 보닛엇더니 먹었느냐  
 흐 년 다투라 흐는 말이  
 일전의 실빅즈죽 뿌어 보닛엇더니 보왔느냐  
 또 흐 년 흐는 말이  
 슈일전의 편강 흐 봉 보닛엇더니 아왔느냐  
 또 흐 년 흐는 말이  
 저 거시기 밤콩 복가 보닛엇더니 보왔느냐  
 이러트시 요공흐니 어식 호령흐디  
 요괴로운 요년들아 무슨 잡말들 흐느니 칼을 빗비 벗기여라  
 호령이 싹풍흐니 기싱드리 겁을 다투 망스호고 쓰들 적의 못기드리 썩다귀 쫓듯 늙은  
 범이 기깃기 쫓듯 쓰덤쓰덤 쓰더닐 제 니 썩진 년 님슈알 터진 년 불닥이도 쭈러 지고

턱아리도 버서지며 죽을 힘을 다 드러서 즉각닉의 칼 벗기니 불상하다 연지긋튼 저 춘향이 괴절홀시 분명하다.

어식 황홀 망조하여 의원 불너 명약홀 제 김쥬부야 살녀쥬소 니쥬부야 살녀쥬소 여러 의원 공논하여 명약하다 싱익산 통선산 회싱산 픽독산 함부로 명약하여 밧비 달혀 퍼부으니 만고털녀 춘향이 회싱하여 니러느니 어식 쏘흔 상쾌하여 정신이 쇠락하고 마음이 낙낙하여 회불즈승이라 즉시 내려가 붓들고 시브나 혼 번 속여보려하고 음성을 변하여 분부하디

노류당화는 인기가절이 라 드르니 너만 창기년이 슈절을 혼다 하니 슈절이 무슨 곡절고 네 본관 스쏘 분부는 아니 드렸거니와 오날 닌 분부도 시형 못홀쇼냐 너를 이제 방석하여 슈청으로 정하느 거시니 밧비 나가 쇼세하고 썰니 올라 슈청하라

춘향이 이 말 듯고 움죽 쇼쇼라져 하느 말이

이고 이 말이 웬 말이오 조약돌을 면하엿더니 슈만석을 맛났고나 궤상육이 되여시니 칼을 엇지 두리리오 농천검 드는 칼노 버히라거든 버히시고 츠거이순 술위 꾸며 발기라거든 발기시고 울산전복 봉오리듯 오리려거든 오리고 싹그 러거든 싹그시고 기름 쓰려 살무려거든 살무시고 가즌 낙넌 꺾물녀서 정이려거든 정이시고 구리기동의 쇠를 달화 지지려거든 지지시고 석탄의 불을 띄워 구으려거든 구웁쇼서 조롱 말고 어서 밧비 죽여쥬오 본관 스쏘 불양하여 송빅긋튼 나의 절기 아스라고 슈삼년을 옥에 너혀 반귀신을 밋들렸쇼 금석긋튼 빅년기약 변괴라고 엄형중치 싱죽음을 밋드렸쇼 죽기로만 바라다가 텃우신조하여 어스스쏘 좌정하옵시니 하늘긋튼 덕택과 명정하신 처분을 넘어 스라날가 특슈하옵더니 스쏘 분부 쏘흔 이러하옵시니 다시 무어 시라 알외오릿가 어름긋튼 닌 마음이 이제 와서 변홀손가 어서 밧비 죽여쥬오

눈을 감고 이러트시 악을 쓰니 어식 이 말 듯고 박장디쇼하며 칭찬하디

떨너로다 떨너로다 춘향의 구든 절기 천고의 무쌍이오 아름다운 의괴 고금의 일인이라 서안 치며 디찬하고 아름답다 절기로다 괴특하고 신통하다 아릿답고 어엿부다 절묘하고 향기롭다 반갑고도 깃부도다 어이 저리 절묘하니 눈을 드러 날을 보라 닌 얼굴도 니도령과 갓트니라

춘향이 혼미둥의나 음성이 귀의 익고 말쇼리 슈상하디라 눈을 잠간 드러 치여다보니 슈의어식 미망낭군이 정녕하디 천근갓치 무겁던 몸이 우화이등선이라 한 번 쇼쇼 췌여올나 드립더 덤석 안고 녀산폭포의 돌 구으듯 데굴데굴 구을면서

엘스 조홀시고 이거시 쏜인가 상인가 전싱인가 이싱인가 아모라도 모로깃닉 조화웅의 작법인가 천우신조하엿는가 조홀 조홀 조홀시고 어스 서방이 조홀시고 세상 스람 다 듯거라 청춘금방 쾌명하디 쇼년등과 즐거운 일 동방화촉 노도령이 숙녀 맛나 즐거운 일 천니타향 고인 만나 즐거운 일 삼춘고한 감우 만나 즐거운 일 칠십노인 구덕독신 싱남하여 즐거운 일 슈삼천년 정빅죄인 디 샤 만나 즐거운 일 세상의 즐거운 일 만컨마는 이런 일도 쏘 잇는가 실낱긋튼 닌 목숨을 어스 낭군이 살녓고나 조홀 조홀 조홀시고 저리 귀히 되엿고나 어제날 유결직이 오늘날 슈어식라 어제 잠간 맛났실 제 조곰이나 일씩오지 그딴지도 속여논고 허판스의 용흔 점이 천금이 빠리로다

어식 화답하디

무릉도원 화충중의 호접 오기 제격이오 영쥬 봉닉 삼신산의 신선 오기 제격이오 소상강 동정호의 홍안 오기 제격이오 악양누 등왕각의 쇼인 오기 제격이오 빙옥 떨녀 춘향의 게 어스 오기 제격이라

이러트시 즐기면서 음식상을 혼디 밋고 지닌 말 을 서로하며 즐거오를 니끼지 못하더라

츠시 춘향어미는 춘향의 형상 보기 슬희여 집으로 도라오니 마음이 산난하여 도로 나와 회남포 당뵈 썰나 닛가의 갓다가 이 쇼문을 듯고 아모란 줄은 모로고 즐겁기만 측냥 업다 썰니그르시 물조츠 담아 이고

이고 닛 쌀 괴특하다 이고 닛 쌀 착흔지고 어스 사회가 쫓밧기라

강동강동 썬놀 적의 인 그르시 밋치 썬져 물을 모도 누리쁘고

아츠 급히 이노라고 물 담은 줄 니졌고나 요 물골을 엇지하리 오냐 그만 잇거라 어스 스희 어더시니 옷 혼 벌이야 어디 가라

한스하고 썬놀 적의

조홀 조홀 조홀시고 어스 스희가 조 홀시고 지어즈 조홀시고

즐거오를 못 니끼여 강동강동 썬놀면서 강동의 범이 드니 길날아비 훨훨 소쥬 혼 잔 먹어더니 곤디쫓시 절노 난다 탁쥬 혼 잔 먹엇더니 엉덩춤이 절노 나니 위션 관속들의게 형악하다

발가락들 모조릴 놈 한서부터 주리를 흘나 삼번관속 다 나오소 술갑 썬도 즉금하고 죽갑 썬도 마즈하세 즈네네들 싱심이나 닛 돈 지고 아니줄가 고치려도 손이 쉽고 속이려도 잠간이라

총총 거러 관문으로 드러갈 제 관속드리 절하며

아즈마니 그스이 안령하옵시오

이 스람들 요스이 문보는 스람은 슈드리 그딕지 썬가 그리들 마쇼 그러치 아니하니 업소 망녕이오 그털 니가 잇습는잇가

관노 하나 하는 말이

여보시오 즈치신니 이 익 일은 그런 것분 일이 업소

이 스람 웃지 마쇼 이제야 말이지 어제 니셔방이 우리집으로 츠즈왔는디 그 쥬제 썬 이 썬전 거어질너라 우리 아기는 그리야도 춤아 박디를 못하여 잘 디접하엿지 나는 썬보 기 슬혀 밋그로 짜보니엿더니 제라도 넘치업서 그 길노 다라났느니라 오날 아츰에 닛가 아기드려 츠셔히 니르고 다시 싱각말나고 하며 만일 다시 못거들냥 방슈들나 하엿더니 쳐도 그 썬 보고 어히업서 살족하고 홀 일 업시 역여 어스의 슈청 드러나 보외 지금 당 하여 잘된 썬이라 만일 본관의게 허락 곳 하엿다면 오고랑이 되엿실 거슬 요런 썬관 썬 잇는가 이제는 괴탄업스니 니셔방이 온다흔들 이런 쇼문 듯게되면 무슨 낫치 다시 올라 이고 그런 흥흔 놈을 이제는 아조 빅송일다

아전 하나 니다르며 하는 말이

이 어스가 전등 칙방 니도령일세 철도 모로고 이리 구다가 큰일 나리 드러가셔 뒗도 락를 잘 치소 늙은 몸의 팔즈 조케 되엿네

춘향어미 하는 말이

아니외다 그런 말슴 다시 마오 서울놈이 음흉하여 가어스로나 단니면 모로거니와 슈 의어스 야 제집 조상의나 잇시릿가

머리를 썬썬 흔들면서

아이에 이런 말슴 다시 마오

이러트시 슈작하며 한갈갓치 춤을 추고 동헌으로 드리다라

지어즈 조홀시고 춘향아 거기 잇느냐 업느냐

흐며 어스를 치여다보니 어제 왔던 걸직이라 마른 하늘 된벼락이 어딴로써 내려오나  
괴가 막혀 병병하고 그만 팔석 주저앉져 아모 쇼릭도 못하거늘 어식 내려다보고 웃고  
하는 말이

이 스람 춘향어미 요스이도 집 팔기를 잘하나 오날도 과부집의셔 오나

춘향어미 속이 부적부적 죄오건마는 그라도 먹은 감시 잇고 둘너딴기를 잘 하느니라  
엄کم흔 마음의 두루 쳐 디답하디

이제야 말슴이지오 스또 일을 그 썩 발셔 다 아랏지오 뉘 기쫄년이 몰나다고요 그리  
하기에 허남포 한 필 당뵈 두 필 급히 빨나 갖지오 스또 옷식으로 하여드리주 하엿지오 그  
러치 아니하면 무슨 경에 그것 썰나 갖것쇼 너 일을 낫부게 아라계신가 보오마는 나는  
다 속이 이셔 그리하엿지오 만일 너 집의셔 주무시다가 혹시 은근한 일을 뉘가 알가 하  
고 아조 각지손하엿지오 그러치 아니면 엇지 춤아 구박하오릿가 날을 놀만 녀이시오 순  
라골 싸마종이오 것흔 퍼려하여도 속은 다 녀었지오

하면서 고기를 속이고 얼굴이 붉으락 누를락 하거늘 어식 웃고

이 스람 얼굴 들고 말하쇼 익고 얼굴의셔 쥐가 나오

춘향이 하는 말이

여보 그만두오 그만하여도 늙은 어미 무안하깃소 그것도 쏘한 날을 위하노라고 그리  
하엿지 스또를 띄여 그리하엿것쇼

어식 디답하디

그만둘가 그리라도 어미 역슬 드느고나 네 말이 그러하니 그만두지

이리 슈작하며 밤이 맞도록 즐거오를 니끼지 못하더라

본관은 봉고파출하여 감영에 보장하고 본읍에 밀닌 공스 거울갓치 처결하고 니방 불  
너 분부하디

너외아스 직물들이 모도다 탐장이니 동현의 잇는 거슨 민고로 입장하고 너아의 잇는  
거슨 논막하여 금일 너로 관납하라

니방이 분부듯고 공관즙물 방미홀 제 실니마노라 조흔 서답 네 귀에 썬을 다라 갖거  
리로 방미하고 척방이 쓰든 총관도 말콩망턱로 방미하고 가즌 즙물 다 파라서 관전의 밋  
치오니 봉고하여 너흔 후의 모든 공스 처결하고 좌슈 불너 인관하고 춘향의 집으로 나아  
오니 문전뉴 창외미는 옛 경기가 식로왜라

슈삼일을 묵은 후의 가마독교 선명이 찰혀 춘향 티와 압세우고 스립가마 꾸며니여 월  
미 티와 뒤세우고 가장기를 진미하여 부담바리 시른 후의 상단이 티와 부촉하여 경성으  
로 보닌 후의

전나도 오십칠관 좌우 도를 다 도라셔 탐관오리 슈지곡법 녀녀히 뒤여니여 흐린 공스  
맑혀니고 불효부제 훈계하니 거리거리 선정비오 골골리 칭성이라

이러트시 도라단녀 모든 일을 다한 후의 승일상니 입성하여 탑전의 불명하온디 상이  
반기시며 귀히 녀여 밋비 인견하여 손을 잡으시고 원노형역 위로하며 인민거폐 무르시니  
어식 고두스은하고 격년문서와 형등일기를 두 손으로 밋드로 드리온디 상이 바다 삶혀보  
시고 용안이 디열하샤 칭찬하시며 위로하시디

년소미질이 누삭을 원방에 구치하나 조금도 상흔 비 업고 슈다공스를 선치하나 하나  
토 미진하 미 업스니 이 진짓 샤직의 괴공이로다

하시고 디찬하시며 동벽응교를 제슈하시고 상스를 무슈이 하시며 밋비 나가 쉬라 하  
시니 썩마춤 조용흔지라 응교ㅣ 복지하여 춘향의 정절과 전후스를 즈셔히 주달하오니 상

이 드르시고 희한이 녀이샤 격절칭찬하시되

저의 덩절 지귀하다 만고의 드문 일이로다 창가지물은 노류장쾌라 스람마다 길드리거  
늘 춘향의 열절성형이 고인의 지나고 청고숙덕이 스부규슈의 불급하미 만하니 이는 즈고  
로 드문 일이라

하시고 니조의 하교하샤 덩렬부인 직첩을 누리오샤 정비를 봉하라 하시니 이런 영광  
이 어딴 이시리오

응교 | 천만의외 텃은이 여츠하시를 감축하여 빅빅고두 스은하고 퇴조하여 집의 도라  
와 가묘의 현알하고 슬하의 비현하니 부피 반기고 친척이 모다 하례하더라

응교 | 부모전의 꾸러안즈 전후스연과 성상의 은지를 고희온디 부피 쏘흔 깃거 못너  
칭찬하고 길일을 틱하여 종족을 디회하고 늑네빅냥을 갓초와 남원집을 부인으로 승츠하  
고 폐빅을 갓초와 스당의 고희 후 빅년히로하올 적의 벼슬은 늑경이오 즈녀는 오남미라  
닉외손이 번성하여 괵 분양의 다즈하믈 불워아닐너라

부모의게 영효 뵈고 친척의게 화목하며 가증상하의 칭성이 여되하니 아마도 천고괴스  
는 이 분이오 춘향의 고절은 다시 업슬가 하노라

괴스 구월 녀팔 누동 필서